

석사학위논문

조이가 열쇠를 삼켰어요

-Joey Pigza Swallowed the Key-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한영과

김 수 아

2003년 12월

조이가 열쇠를 삼켰어요

지도교수 박 경 란

김 수 아

이 논문을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김수아의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위 원 _____

위 원 _____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2003년 12월

Joey Pigza Swallowed the Key

Su-ah Kim

(Supervised by Professor Kyung-ran Park)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Korean-English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December 2003

목 차

ABSTRACT	1
1. 별난 아이	2
2. 가계도	4
3. 골칫거리	14
4. 낚시놀이 하기	27
5. 소원 빌기	38
6. 넌 누구지?	48
7. 특별한 아이	61
8. 정확	71
9. 나쁜 씨앗	76
10. 건널목	82
11. 기어변환	95
12. 피츠버그	111
13. 달에 간 남자	120
14. 새로운 약	129
15. 다시 여기에	136
작가소개	144
참고문헌	145

Abstract

This book, *Joey Pigza Swallowed the Key* by Jack Gantos, is the story of a boy named Joey Pigza. Joey has big problems. He is wired just like his dad and his grandma. He has trouble paying attention or controlling his mood swings when his prescription meds wear off and he starts getting worked up and acting wired. We gradually see that Joey must have Attention Deficit Disorder (ADD). After leaving him for several years in the care of his abusive grandmother, his mother returns to reclaim him and her parental responsibilities. But Joey remains a challenge: he continually disrupts his class, swallows his house key, and runs away during a field trip. Then he runs through the classroom holding open sharp scissors. When he trips and falls, seriously injuring a classmate, he is transferred to a special-education center for six weeks. Here, thankfully, he encounters a caring teacher who recommends further medical evaluation, and Joey is eventually able to return to his former school.

The story is written from the boy's point of view in a sharp, worried style that veers out of control when Joey does. We want to turn away from Joey's shifting prison of emotions. But for those who stick with him, he shows us what his life is like. We walk a mile in his shoes, our feet hurting all the way. For young readers touched by ADD and for their teachers and parents Joey gives us the key to his world.

1. 별난 아이

학교에서 사람들은 나를 내 기분과 선생님들의 반응에 따라 지나치게 짓궂은 녀석, 지나치게 무모한 녀석, 지나치게 우울한 녀석 또는 지나치게 즐거워하는 녀석이라고 부른다. 어쨌든 간에 내게 그런 기질이 있는 것은 틀림없다.

올해도 여전했다. 매일 매일이 비슷한 것처럼 보였다. 아침에는 나는 대개 상태가 괜찮아서 수업을 곧잘 받기도 했다. 하지만 점심 시간 이후에 약 기운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곤 했다.

어느 날, 우리들은 수업시간에 산수문제를 풀고 있었다. 맥시 선생님이 “9곱하기 9는 얼마죠?”라는 식의 질문을 하실 때마다 나는 손을 번쩍 들곤 했다. 왜냐하면 나는 정말이지 산수에는 도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비록 답을 아는 경우에도 “나중에 대답하면 안될까요?” 라고 불쑥 말해버리곤 했다. 그리고 나서는 의자에서 굴러 떨어질 정도로 배꼽을 쥐고 깔깔거리며 웃어댔다. 그러면 선생님은 ‘암전히 있어’라는 표시로 정색하는 표정을 지어 보이셨다. 그렇지만 나는 그만두기는커녕 선생님이 질문을 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손을 들었다. 그러면 마침내 우리 반 아이들은 나와 맥시 선생님간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눈치채고는 손도 들지 않고 가만히 침묵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래, 조이” 내 이름을 부르시고는 선생님은 마치 눈빛이 기다란 손가락이 되어 내 턱을 움켜쥘 수 있기라도 하듯이 날 엄하게 쳐다보셨다. 나는 선생님을 똑바로 쳐다보고는 마치 질문에 답하겠

다는 듯이 잠시 머뭇거렸다. 그리고는 정말로 큰소리로 물었다. “나중에 대답하면 안될까요?” 마침내, 내가 그런 짓을 연달아 몇 번이고 계속하자, 선생님은 교실 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복도에 나가 있어.” 라고 말했다. 그러자 반 아이들은 일제히 까르르 웃어댔다.

그래서 나는 복도에 나와 서있었다. 하지만 몇 초 되지 않아 나는 곧 주머니 안에 있는 미니 수퍼볼을 생각해내고는 그것을 꺼내서 사물함과 천장에 튕겨대기 시작했다. 그러자 옆반에서 수업 중이던 딥스 선생님이 교실 문으로 고개를 내미시고는 “이 녀석, 그만하지 못해.” 하고 마치 도둑고양이에게 소리지르듯 호통을 치셨다. 하지만 나는 곧바로 또 다른 흥밋거리를 찾아내었다.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본 팽이처럼 빙글빙글 도는 타지마니안 괴물을 생각해낸 것이다. 나는 곧 허리띠를 풀어서 잔디 깎는 기계에 시동을 걸때처럼 힘껏 한쪽 방향으로 잡아당겼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빨리 돌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발목까지 올라오는 운동화의 끈을 풀어 그 두 개를 묶고는 다시 연결된 운동화 끈을 허리띠에 묶었다. 그 긴 끈을 허리춤에 칭칭 매고는 한쪽 끝을 잡고 다른 한쪽 끝을 꺾 잡아당기니 빙글 돌 수가 있었다. 나는 점점 잘 돌 수 있을 때까지 잡아당기기를 계속했다. 그러다가 어지러워서 사물함에 부딪히고 말았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진짜로 멋지게 허리띠를 잡아당겼다. 나는 이미 어지러운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빙글빙글 돌면서 진짜 타지마니안 괴물처럼 으르렁거리며 씩씩댔다. 그러자 맥시 선생님이 나오셔서 내 어깨를 꼭 잡아 쥐셨다. 선생님이 너무나 갑자기 나를 멈춰 세웠기 때문에 끈이 풀려 헐거워진 운동화가 벗겨져 복도위로 날아갔다.

“너 5분 동안 가만히 땅바닥에 발을 붙이고 있지 않으면 교장실로 직행할 줄 알거라.”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어떻게 할래?”

“나중에 대답하면 안될까요?” 내가 물었다.

선생님 얼굴이 새빨개졌다. “5분이다.” 선생님이 말했다. “5분 동안 얌전히 있으면 다시 교실로 들어와도 좋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가시자, 나는 다시 금 신발 끈과 연결된 허리띠를 허리에 매고는 멋지게 획 잡아당겨서는 계속해서 빙빙 돌면서 사물함 여기저기에 부딪혔다. 나는 너무나 멋지게 회전을 했기 때문에 혀 밑에 있던 검은 튀어나왔고, 손에 쥐고있던 수퍼볼은 미끄러져 복도 아래로 튕겨져 나갔다. 나는 마치 가파른 언덕을 굴러내려 가듯 빙글빙글 돌면서 계속 나아갔다. 오래지 않아 나는 어항 속을 어지럽게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가 어항 벽에 부딪치듯 교장실 주위의 유리벽에 쿵하고 몸을 부딪쳤다. 그러자 교장 선생님이 나오시더니 나를 벽에 붙여 세우고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 몇 마디 주의를 주셨다. 그리고 나는 그날 교장실 바닥에서 유치원생들이 큰 플라스틱 통에 보관해 둔 쓰다 남은 크레용들을 파랑, 초록, 빨강, 노랑색 등으로 구분하면서 남은 시간을 보냈다.

2. 가계도

우리 아빠는 내가 유치원에 다닐 때 집을 나가셨고 우리 엄마는 아빠를 찾으러 집을 나가셨다. 대신 할머니가 나를 올 여름까지 키우셨다. 이번 여름에 엄마는 마침내 아빠를 찾는 것을 단념하고 나를 떠올리셨다. 그리고는 어느 날 아침 엄마가 우리 집 현관 초인종을 눌렀던 것이다.

“누구세요!” 내가 소리쳤다. 할머니와 내가 현관문을 벌컥 열자 거기에는 반들반들 닳인 구두에 나들이용 모자를 쓰고 예배에 참석하러 가는 신도처럼 생긴 낯선 여자가 서있었다.

“이제야 돌아오게 돼서 면목이 없네요.” 그 여자가 말했다.

“네가 돌아와서 난 유감이다.” 할머니가 무뚝뚝하게 대꾸했다. 그리고는 나를 팔꿈치로 저만큼 떼밀었기 때문에 하마터면 빨고 있던 투씨팝 캔디가 목구멍에 걸릴 뻔했다.

“전 그냥 모든 일을 잘 처리하고 싶어요.” 우리 엄마인 그 여자가 말했다.

“그런 얘기는 이미 들을 만큼 들었다.” 할머니는 그렇게 소리치고는,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할머니 엉덩이 주변으로 계속해서 머리를 들이키는 나를 다시 한번 저쪽으로 밀어내셨다.

나는 그 여자 분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누가 청하지 않았는데도 현관문을 밀어젓히고는 성큼 거실로 들어섰다. “안녕, 조이.” 그 여자가 말했다. “ 난 네 엄마란다.”

그 여자가 손을 뻗어 내 머리를 쓰다듬으려 하자 나는 몸을 피하면서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조차 못하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 엄마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자의 얼굴위로 뚜렷한 고통의 빛이 스치고 지나갔다. 순간, 나는 그 여자가 우리 엄마가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어떤 낯선 사람도 내가 한 말로 인해 것처럼 상처입지는 않을 테니까 말이다. 하지만 그 여자는 실망으로 주저앉지는 않았다. 대신 온 방안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와 내가 사는 모양새를 보고는 고개를 내저었다.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 여자가 말했다. “모든 게 달라질 거다.

더 이상 이런 돼지우리에서 살 필요는 없어.”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 여자는 새로운 규칙들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나와 할머니 그리고 우리 집을 관리해 나가려 했다. 난 그 여자가 정말 싫었고 그 여자가 돌아온 첫 일주일동안 우리 셋은 꽤나 많이 싸워댔다.

엄마가 할머니와 나와 살기 위해 다시 돌아온 그 즈음, 나는 정말 구제불능의 골칫덩이였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할머니를 내 못된 행동거지에 책임이 있는 노망난 늙은이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사실 나는 그냥 이렇게 생겨먹은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도 선천적 신경증환자였고, 우리 아빠인 카터 피그자도 선천적인 신경증 환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나도 그런 천성을 타고난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 집 가계도는 마치 한 개의 철탑에서 저만치 떨어진 또 한 개의 철탑에 걸쳐져 있는 일련의 고압전선과 같아 보였다. 할머니는 항상 내가 “하루 스물 네 시간 이리 저리 튕겨다니는” 아빠와 꼭 닮았다고 얘기하셨다. 하지만 아빠는 여태껏 우리가 사는 곳으로 튕겨져 나온 적이 한번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아빠가 여전히 어딘가를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할머니는 아빠가 피츠버그까지 튕겨져 나갔을 거라고 말했지만, 언젠가 다시 튕겨져 나와서 우리 집 현관문으로 튀어 올라올지 모른다. 나는 아빠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나는 아빠에 대해서 듣기만 했기 때문에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만나보고 싶다. 나에게서는 테엽을 감아서 움직이는 자동차 장난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바퀴가 달려있어서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마다 쉽게 방향을 바꿀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물을 만나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가 있었다. 그 자동차를 가지고 놀 때마다 나는 언제나 아빠

가 운전석에 앉아 있다고 생각했다. 아빠의 눈은 이리 저리 빠르게 움직이고 발은 항상 가속 페달 위에 놓여있는 것이다. 내 장난감 자동차는 태엽이 풀려 멈춰서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아빠는 결코 멈춰서는 일이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아빠는 계속해서 빌딩과 표지판 그리고 주차된 차들을 들이박을 것이다.

나는 아빠와 내가 공통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가끔 할머니가 갑자기 기분이 좋을 때는 내게 충고조의 경고를 하기 때문이다. “조이야, 난 네가 침착하게 행동했으면 좋겠구나. 너 설마 네 아빠처럼 되고 싶진 않겠지, 그렇지?”

“나중에 대답하면 안될까요?” 달아나기 위해서 애를 쓰며 나는 소리쳤다.

“내 말 잘 듣거라.” 도망치려는 날 붙들며 할머니는 말했다. “너희 아빠는 정말 심각한 신경쇠약증환자였다. 그래서 병원에서 공짜약을 타는 것조차 줄서 기다릴 수 없을 정도였다.”

그리고 나서 할머니는 내 귀를 쪽 잡아당겨 나를 마루 위에서 들어올렸다. 할머니는 내가 뱀처럼 꿈지락거리며 소리지를 때까지 놓아주지 않았다.

내 행동을 할머니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은 진짜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할머니이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불공평하다. 사실 우리는 괴짜 파트너 그 이상이다. 우리는 온 집안을 헤집고 돌아다니면서 세계 레슬링 팀처럼 서로를 치고 받았다. 나는 험크였고 할머니는 닥터 둠이었다. 전화벨이 울리면 우리는 둘 다 소리를 지르며 야단스럽게 전화를 받으러 달려갔다. 우리는 서로 엇치락뒤치락하며 전화를 서로 받으려 경쟁을 했다. 그래서 둘 중

어느 하나가 승리를 거둘 즈음에는 이미 수화기 반대편 사람은 겁을 집어먹고 전화를 끊어 버린 상태였다. 그리고 집안 일은 결코 마무리지어지는 일이 없었고 집안이 말끔히 정돈되는 일도 결코 없었다. 고대 이집트 모습이 담긴 조각 맞추기 게임의 조각들이 식탁 위 주변에 어지럽게 놓여있었고, 피라미드처럼 쌓인 나머지 조각들은 바닥 위에 흩어져있었다. 나는 숙제를 번번이 까먹었고, 커다란 매미 위에 할머니 얼굴을 그려서는 마치 할머니가 트럭에 깔려 몽개진 것처럼 마루바닥에다 납작하게 붙여놓았다. 또 젖은 나뭇잎을 창문마다 붙여놓았으며, 박제동물들을 의자 위에 붙여놓았고, 모든 오븐 손잡이를 죽은 식물 화분 속에 숨겨두기도 했으며, 문손잡이와 천장 전등, 그리고 바닥 통풍구에 실로 된 거대한 거미줄을 만들어 놓았다. 때때로 그 거미줄에 할머니가 걸려들어 꼼짝못하게 될 때도 있었다.



“도와줘어. 날 좀 도와줘어.” 할머니는 괴상한 곤충영화에 나오는 사람얼굴을 한 파리처럼 우는소리를 했다. 어떤 때는 할머니가 재미있기도 했지만, 자주 그런 것은 아니었다.

할머니는 대개 그저 정신이 반쯤 나가서는 내 뒤를 쫓아다니며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다.

“만지지 마라. 몸 좀 흔들지 마라. 뛰지 마라, 소리 지르지 마라.” 할머니는 큰소리로 호통치곤 했다.

무엇을 만지든, 무슨 말을 하든, 무엇을 하든, 나는 뜨거운 석탄 위에 서서 붉은 새끼 악마가 갈퀴로 내 엉덩이를 찌를 때마다 이 불구덩이에서 저 불구덩이로 경충거리며 옮겨 가야하는 만화 속 지옥에 갇혀 있는 느낌이었다. 내가 하는 말조차도 내 혀를 데게 했다. 그리고 아주 우연히라도 내가 잠시동안 얌전히 앉아서 그냥 몸

을 앞뒤로 흔들고 있을 때조차도 할머니는 어쩔거나 불평을 계속 해댔다. 할머니는 내게 소리를 지르면서 동시에 뜨개질도 할 수 있었다. 할머니는 마치 삼총사를 한꺼번에 격퇴하기라도 하겠다는 듯이 뜨개바늘을 힘차게 움직여서 우리동네 주택가를 빙 감싸고도 남은 만한 털로 된 천을 짜냈다. 하지만 그렇게 짜낸 것은 결코 완성품이 되지는 못했다. 시작한 것은 끝난 적이 없었으며, 할머니의 모든 뜨개천과 내 숙제와 다양한 취미거리들은 결국엔 그저 먼지더미 속에 묻혀버리곤 했다.

지금까지도 내 침실 벽은 차분한 핑크색 페인트가 반쯤 칠해져 있는데, 할머니가 밑바닥부분을 조금 칠하고는 중간에 그만뒀기 때문이다. 누군가 할머니한테 핑크 색이 나를 차분하게 만들거라는 얘기를 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사실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엄마가 돌아오기 전까지 내 침대는 의자와 철이 벗겨진 가짜 나무 걸로 된 옷장과 함께 방 구석에 처박혀있었다. 페인트가 떨어져 묻는 것을 막기 위해 오래된 신문지들이 침대시트 위에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신문지를 담요 대신 사용하고는 했다. 가끔 나는 만약 할머니가 벽을 핑크색 페인트로 끝까지 다 칠했다면 내가 침착해질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사실 나는 벽장 안에 앉아 페인트 깡통을 열고는 안에 있는 빛나는 핑크색 내용물을 들여다보곤 했다. 그럴 때면 난 몇 시간이고 최면에 걸린 듯 거기에 매혹되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단지 몇 분 동안이었는지도 모른다. 확실히 그게 얼마동안이었는지는 알 도리가 없다. 하지만 만약 색깔이 어떤 종류의 느낌을 뿜어낸다면, 핑크 색은 차분한 느낌을 준다고 나는 확신한다. 아마도 내 방 벽에 칠해진 핑크 색은 그런 종류의 핑크 색이 되기엔 자격미달이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얼

마 되지 않아 나는 곧 안절부절못하는 내 자신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다.

엄마가 지난여름에 돌아와서 주변을 정리해나가기 시작하자 할머니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다. 할머니는 점점 더 고약해 졌는데 나는 그 이유가 할머니 역시 규칙들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엄마가 일하러 가시면 나는 할머니와 함께 집에 있어야 했는데, 그럴 때면 할머니는 곧 나를 겁먹게 했다. 개학하기 한달 전쯤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아침 내내 심술궂게 굴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뜨개질을 하는 대신에 계속해서 더욱 심술을 부리는 것이었다. 마침내 할머니는 내가 이리저리 몸을 흔들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 정말 화가 나서는 냉장고안에 있던 내용물과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전부 잡아 꺼내서는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자 이제 이것들을 다 제자리에 집어넣어라.” 할머니는 불링 핀처럼 여전히 빙글빙글 돌고있는 케첩병 옆에 서서는 내게 명령했다.

할머니의 그런 모습은 나를 더 굼뜨게 만들었다. 나는 할머니를 쳐다보았다. 틀니가 한쪽 끝으로 당겨져 올라갔다가 마치 할머니 자신도 어찌지 못하는 것처럼 갑자기 툭하고 닫히곤 했다. 마치 틀니가 얼굴 한쪽으로 기어올라가서 할머니 귀를 콕하고 깨무는 것처럼 보였다.

“넣어놓으라구!” 할머니가 소리질렀다. “진짜 화내기 전에 빨리 집어넣으라니까.” 말 한마디를 할 때마다 씹씹거리는 소리가 났다.

“나한테 그런 거 시키지말아요.” 나는 깡충 깡충 뛰면서 말했다. “시키지 말라고요.”

“집어넣어.” 할머니가 말했다. 할머니 몸이 움찔하며 움직였다.

“집어넣으라고 말했다. 안 그러면 네 엄마한테 네가 내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일러 줄 꺼다.”

하지만 나는 집어넣지 않았다. 나는 좋은 규칙과 나쁜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냉장고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나쁜 규칙인 것이다.

“이런 못된 녀석.” 문을 쾅 닫으면서 할머니가 말했다. “좀 나갔다 와야겠다.” 할머니는 현관 앞에 놓인 흔들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에 나는 할머니가 우리 집 마당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고 누구에겐가 잔소리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할머니의 쿵쿵대는 발자국소리가 들렸다. 엄마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혼자였고 무서웠다. 엄마는 부엌이 온통 엉망인 것을 발견했고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했다.

“네가 신경쇠약이라는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구나.” 엄마가 말했다. 엄마는 화가 나있었다. 우리는 할머니를 찾으러 다녔다. 그리고 우리는 밑창이 닳은 신발 한 짝을 하수구 창 옆에서 발견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엄마가 잠시 생각을 하시고는 말했다. “아마도 할머니가 이번엔 아주 정신이 나가셔서 하수구 밑으로 미끄러져서 완전히 휩쓸려 가셨나보다.”

우리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며칠동안 나는 하수구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손을 입에다 모으고는 어두운 하수구에 대고 소리쳤다. “할머니! 할머니! 내가 용서해 줄게! 돌아와!”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다. 나는 마음이 아팠다. 왜냐하면 때때로 내가 길을 잃을 때면 할머니와 비슷했기 때문이었다.

“할머니는 너와 똑같진 않으셔.” 내가 슬프다고 말하자 엄마가 대답했다. “할머니는 입을 잠시도 놀리지 못하시는 거고 넌 다리를

한시도 가만두지 못하지 않니.” 할머니는 항상 반나절은 잘못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해댔고 나머지 반나절은 사과하는데 보냈다. “할머니는 지나치게 과민한 입을 가진 거야.” 엄마가 말했다. “너도 때때로 네가 발 떠는 것이나 문에 매달려 흔들거리는 것, 침대 위에서 뛰는 것 등을 멈출 수 없잖니?”

“네” 나는 고개를 숙이고는 이미 심하게 문질러서 피가 조금 배어 나온 머리 속의 마른 딱지를 긁어대면서 말했다.

엄마는 내 손을 머리에서 끌어내려서 엄마 손안에 잡아 쥐셨다. “있잖니, 할머니도 ‘넌 네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 넌 뭐든지 다 망치고 있잖아. 넌 내 말이라곤 듣지 않는구나. 내가 항상 넌 돌대거리라고 말했잖니’ 같은 식의 말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거란다.” 엄마 말이 옳았다. 할머니는 그저 심술궂게 행동하는 것에 너무 신이 나서 한가지 고약한 말이 다른 하나, 또 다른 하나로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곧 할머니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입만 1분에 1마일의 속도로 나불거렸던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좀 진정이 되면 할머니는 속이 상했을 것이다.

“정말 미안하구나.” 할머니는 이렇게 입을 떼곤 했다. “난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하리라곤 생각치도 못했단다. 모두들 내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는 안돼. 알다시피 나는 그저 허튼 소리나 해대는 성질 고약한 늙은 할망구잖니.”

할머니는 같은 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는 했다. 할머니도 약물치료를 받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바로 넘버원 할머니표 약. 그렇지만 사람들은 할머니가 단순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지 아프다고는 생각치 않았다. 사람들은 그저 할머니를 머리가 돈 늙은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할머니도 나처럼 아팠던 것이다.

오직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할머니의 병은 내 병과는 다르게 취급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엄마가 돌아온 이후로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제 나는 엄마 없이는 살 수가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엄마야말로 내가 과민해져서 주체할 수 없게 될 때 나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단 한사람이기 때문이다. 어제 학교 가기 전 이른 아침에 내가 스티트맨 놀이를 했던 경우처럼 말이다. 나는 고장난 천장 전등을 바꾸기 위해 엄마가 세워 둔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래로 다이빙을 하고 있었다. 나는 위로 훌쩍 뛰어올라서 소파위로 풀썩 떨어지고는 바닥위로 튕겨져 나갔다. 엄마가 잠이 깨서는 곧바로 나를 잡아 똑바로 앉히더니 내 얼굴에 엄마 얼굴을 바짝 갖다 대고는 말했다. “안녕 애야, 오늘은 기분이 어떠니?”

“나중에 대답하면 안될까요?” 몸을 꿈틀거리며 내가 말했다. 그러자 갑자기 엄마는 내 앞에 두 주먹을 내밀었다. “하나 고르렴.” 엄마가 말했다. 나는 하나를 골랐고 그 안에는 내 알약이 들어있었다. 내 알약은 항상 엄마 손안에 들어있다. 마치 엄마가 신기한 마술 약 배급기인 것처럼.

“자 봐.” 엄마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상냥하게 말했다. “넌 너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고르는 법을 알고 있어. 그러니, 저 사다리를 치워주겠지?”

“네” 나는 웃으면서 대답하고는 일어섰다. 나는 물을 마시지 않고 알약을 삼켰다. 알약이 목안으로 내려가다가 걸리고, 조금 더 내려가다가 다시 걸리고 그러다가 내 뱃속으로 넘어가는 것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사다리를 들고는 방 건너편으로 돌진해나갔다. 하지만 내 목표는 빗나갔고 대신 문설주에 황 부

뒤틀리고 말았다. 나는 충격을 느꼈다. 나는 상처 난 문설주에서 페인트가 거의 다 떨어져 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사다리를 가지고 빠져나가기 위해 애를 썼다. 엄마는 그저 내가 계속해서 사다리를 들고 시도하는 것을 지켜보셨다. 마침내 나는 사다리를 통과시키는데 성공했지만 곧바로 비틀거리면서 부엌에 있던 식탁을 들이박고 플라스크 수탉모양의 소금 그릇과 후추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어린 아기였을 때부터 넌 네모난 조각을 네모난 구멍에 끼워 넣는 것을 힘들어 했었지.” 내 뒤에서 엄마가 말했다. “첫 번째 규칙을 기억하렴- 천천히 할 것,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것.”

엄마는 규칙을 무척 중요하게 여겼다.

3. 꼴치거리



그 여름 내내, 학교에서는 나에 관한 중요한 모임이 열렸다. 엄마는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와서는 나를 내 방에 가 있게 한 다음 나에 대한 과일을 읽었다. 다 읽은 뒤 엄마는 방에 들어오셔서 침대 가에 앉았다. 엄마는 내가 따로 보살핌을 받아야 하지만 선생님 중 어느 누구도 2년 연속으로 나를 가르치고 싶어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분들을 원망할 수는 없을 것 같구나.” 엄마는 한숨을 쉬었다. “넌 이따금 정말 꼴치거리거든.”

“난 왜 선생님들이 나를 그렇게 귀찮게 생각하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말했다. 사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난 대부분의 시간동안 교실 안에 있어본 적조차 드물었기 때문

이었다. 대신 교장실에 있었거나 양호선생님이랑 있었거나 혹은 도서관이나 매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운동장에서 눈썹이 휘날리게 달리기를 하고 있었다. 내가 항상 성가신 존재였던 것만은 아니었다. 비가 올 때면 선생님들은 모두 나에게 주차장에 뛰어가서 열려진 차창을 닫아달라고 부탁하곤 했다. 내가 빗방울을 똑똑 흘리면서 교실로 돌아왔을 때 선생님들은 날 야단치지 않았다. 또는 새 사무용품이 도착했을 때 내가 교장실에 있을 때면 항상 물건을 창고로 나르는 일을 도왔다. 그러면 나는 “성가신 녀석”이라는 도장이 아닌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곤 했다. 게다가 나는 날아다니는 파리를 잡아채서 잡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리고 교실 안의 모든 거미들을 죽이는 것과 흰 생쥐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모두 내 담당이었다. 물론 이처럼 내가 잘하는 일들은 엄마가 보신 서류에 적혀있지 않은 게 뻘했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나한테는 착하다고 해놓고서 서류에는 다른 말을 적는다는 것은 정말 공평하지 못한 일이었다.

“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을 알면 슬퍼져요.” 내가 엄마에게 말했다.

“음, 그래. 그럴 꺼야.” 엄마가 대답했다. “하지만 올해 우리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학교에서는 엄마가 너를 의사선생님께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하기를 원한단다.” 그리고 나서 엄마는 팔을 뻗어 나를 안고는 내 얼굴 전체에 뽀뽀 세례를 퍼부었다. 나는 눈을 감아야 했다. 안 그러면 엄마가 눈 속에까지 뽀뽀를 할 태세였기 때문이다.

맥시선생님도 내 파일을 읽으셨다. 내가 교실에 들어갔을 때 선생님

은 나더러 자리에 앉으라고 말하고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착해 질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나에게 주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날 내내 나에게 일종의 “지금 너를 지켜보고 있어”라는 식의 눈길을 보내셨다. 나는 사람들의 감시하는 눈초리에 익숙해져 있었다. 특히 작년에 특수상담교사가 배치되어 내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 다녔던 이후에는 더욱 그러했다. 그 상담교사는 나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고는 성적표를 계속해서 집으로 보내왔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성적표를 광고 전단지쯤으로 알고는 쓰레기통에 던져 버렸다.

아침 식사 때 알약을 먹으면 약효가 좋기 때문에 오전 중에는 대개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었다. 나는 맥시 선생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수학문제를 풀 때면 답을 큰소리로 외치곤 했다.

점심시간 전까지는 내 의자가 다른 의자와 마찬가지로 딱딱하게 느껴졌으며 내 자신도 여느 아이들과 똑같은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점심시간 이후에는 아주 거대한 용수철 위에 앉아있는 것 같았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천장위로 튀어 오르지 않기 위해 애써야만 했다. 아침에 먹은 알약은 하루종일 약효가 지속되어야 했지만 내 경우에는 약효가 금방 떨어지곤 했다. 나는 의자 바닥을 단단히 잡고서는 시계의 분침이 췌각췌각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았다. 맥시선생님이 말하는 중요한 내용이 그저 한쪽 귀로 들어가서 다른 쪽 귀로 흘러 나왔다는 말이 아니다. 사실 선생님이 하신 말은 하나도 귀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튕겨져 나와버렸다. 그리고 쉬는 시간 종이 울리면 움켜쥔 의자를 놓고 총알같이 교실 문을 빠져 나왔다.

그렇지만 맥시선생님은 나를 멈춰 세우셨다.

“조이야, 그렇게 빨리 뛰면 안되지.” 내가 달아나려고 하자 내 서

츠 칼라를 잡아 쥐며 선생님이 말했다. “얘기 좀 하자구나.”

그리고 나를 자리에 다시 앉히고는 선생님이 정한 규칙에 대해 얘기하셨다. 달리지 말 것, 점프하지 말 것, 발로 차지 말 것. 책상 위에 두 손을 가만히 올려놓을 것.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 것도 내 앞에 앉은 애를 만지는 것도 안되었다. 안절부절못해서 조바심을 내도 안되고 내 몸에 낙서를 해서도 안되었다. 또한 손을 들어 이름이 불리기 전까지 아무 말도 해서는 안되었다.

선생님은 이 모든 규칙들을 작은 메모지에 적어오셨다. “자 이것이 선생님이 정한 기본 규칙들이야.” 이렇게 말하고는 선생님은 그 쪽지를 내 책상 위에 단단히 붙이셨다. “이 규칙들은 반 친구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야. 예외란 없다. 만약 네가 이 규칙들을 잘 지키고, 공부에 힘을 쏟는다면, 너와 나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문제는, 내가 듣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선생님 손톱에는 빨간색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는데 선생님의 손가락이 내 책상 위를 툭툭 치면서 반달 모양의 자국을 남기는 것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 다음날 나는 당연히 선생님이 전 날 한 말을 기억하지 못했고, 점심시간이 되어 약 기운이 사라지자 나는 교회 유원지에서 큰 찻잔모양의 놀이기구를 탈 때처럼 의자 위에서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조이야” 맥시선생님이 나를 불렀다. “선생님 책상으로 좀 오겠니?”

나는 선생님께 다가갔다. 선생님 앞에 서서 오줌이 마려운 것처럼 오른발 왼발을 번갈아 가며 강충거렸다.

“잊어버렸구나?” 날 가만히 서있게 하려고 내 어깨에 손을 올려

놓으시며 선생님이 말했다. “규칙 기억하지?”

“규칙이요?” 약간 어리둥절한 듯 내가 되물었다.

“어제 선생님이랑 얘기 했었잖아.” 선생님이 말했다.

“제가 좀 안절부절 못 하긴 해요” 내가 대답했다. “저는 이럴 때면 뭔가 할 일이 있어야만 해요. 우리 할머니는 나한테 빗자루를 주고 우리 동네 주변을 쓸라고 시키곤 했어요.”

맥시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음, 학교에는 이미 수위아저씨가 계시니까 그럴 필요는 없겠고.” 선생님이 말했다. “하지만 그 대신 네가 도와줄 게 있다.”

선생님은 나에게 심이 닳은 연필 한 상자를 주고는 꺾게 하셨다. 다른 친구들은 대통령들에 관한 어떤 사회과목 프린트물을 공부하고 있었다. 내가 프린트물을 공부하는 대신 그저 연필만 꺾으면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 반 반장인 마리아 돔브로스키는 날 췌려봤다. 아마 내가 일주일도 못되어 선생님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공부대신 이렇게 재미있는 것을 하는 것에 질투가 난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마리아에게 멍칠이 표정을 한번 보여 준 다음 계속해서 연필을 꺾었다.

첫 연필 한 자루를 연필 꺾기에 집어넣고 손잡이를 돌렸다. 나는 나무 꺾이는 소리와 연필심이 갈리는 소리가 무척 좋았다. 나는 연필 꺾기 바로 위에 코를 바싹대고는 방금 꺾인 신선한 나무부스러기 냄새를 들이마셨다. 그것은 내가 몰래 숨었다가 갑자기 뛰어나와 할머니를 화들짝 놀래주곤 했던 엄마의 장롱 속에서 나던 냄새랑 비슷했다. 나는 계속해서 연필 꺾기를 돌려서는 연필이 끝에 달린 고무지우개 위로 일인치정도만 남을 정도로 아주 몽당하게 꺾었다. 나는 연필을 꺼내서는 끝을 만져보았다. 바늘만큼이나 뽀족했다. 그

것을 상자 속에 넣어두고는 다른 연필을 꺼내서 깎기 시작했다. 연필을 다 깎고 나서 나는 분필 몇 개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깎아서 날카롭게 만든 다음 드라큘라 이빨처럼 윗입술과 잇몸사이에 꽂아 넣었다. 그리고 나서 종이인형을 만드는데 쓰다 남은 사탕막대기가 만들기 함에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맥시 선생님이 보고있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막대기 하나를 집어서 연필 깎기 안에 넣었다. 연필 깎기를 돌렸지만 잘 돌려지지 않았다. 그러더니 마침내 막대기가 걸려서 빠지지 않았다. 나는 불안스레 맥시 선생님을 쳐다보았다. 다행히도 선생님은 대통령들의 얼굴을 게시판에 붙이느라 바빴다. 나는 다시 한번 막대기를 확 잡아 뺐지만, 정말로 단단하게 속에 박혀있어서 그저 손에 가시만 박힐 뿐이었다.

나는 입고있던 피츠버그 펭귄 하키 셔츠 밑단으로 그 막대기를 감싸고는 한쪽 손으로는 연필 깎기를 돌리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막대기를 힘껏 잡아 뺐다. 막대기가 빠져 나오면서 나는 뒤로 자빠져서 빈 책상에 부딪혔다. 그 때문에 내 분필 송곳니들이 교실바닥으로 조각조각 굴러 떨어 졌다.

맥시선생님이 나를 쳐다보셨고 반 아이들도 전부 나를 쳐다보았다. “조이야” 선생님이 물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거니?”

선생님의 질문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송곳니를 주워들고 정말 꼼짝하지 않고 서있었다.

“아뇨, 맥시 선생님. 아무 문제도 없어요.” 내가 쥐새끼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내게서 얼굴을 돌렸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계속해서 나를 보며 얼굴을 찌푸렸다. 그리고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더니 두 글자를 적었다. 잘 볼 수는 없었지만

아마도 “조이”라고 쓴 것 같았다. 반장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모든 반 아이들이 똑바로 행동하게끔 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맥시 선생님이 벌로 우리의 쉬는 시간을 줄여버린다고 하셨기 때문이었다.

고자질쟁이,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는 마리아 따위는 잊어버렸다. 연필 깎기는 각각 다른 크기의 연필에 맞게끔 다양한 구멍이 나있었다. 예를 들면, 2번 크기의 연필은 보통크기의 구멍에 넣으면 되었고 좀더 두꺼운 연필은 숫자 판을 돌리면 좀 더 큰 구멍이 나오므로 거기다 집어넣으면 되었다. 심지어 내 손가락만큼이나 두꺼운 광대모양연필도 깎을 수 있을 만큼 큰 구멍도 있었다.

엄마는 전에 내가 손톱을 짧게 깎아야 한다고 말했었다. 왜냐하면 내가 잘 때 심하게 긁어대기 때문이다. 게다가 만약 손톱을 뽀족하게 갈아서 드라쿨라 손톱처럼 보이게 만들면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새끼손가락을 집어넣고는 힘껏 연필 깎기를 돌렸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손가락을 단숨에 빼내고는 소리를 질렀다.

맥시 선생님이 획 몸을 돌리더니 나에게 달려왔다.

“내가 실수를 저질렀어요.”내가 소리쳤다. “사고였어요. 사고”

“어디 좀 보자구나.” 선생님이 내 손을 잡아 쥐셨다.

나는 손가락을 폈다. 윗부분에 약간 굵힌 상처가 났고 피가 약간 배어 나와 있었다. 하지만 손톱이 일부만 깎인 채 새우 껍데기를 벗겨놓은 것처럼 한쪽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하나도 안 아파요.” 선생님 손에서 내 손을 빼내며 말했다. 그리고는 아무도 보지 못하게 주머니 속에 손을 감췄다. “괜찮아요.”

맥시 선생님은 티슈 뭉치로 내 손가락을 감싸고 꼭 눌렀다. 그리고 괜찮을 거라고 내게 말하시고는 다른 한 손으로 내 팔꿈치를 잡

고는 나를 자리에 앉혔다. 왜냐하면 내가 마구 몸을 움직이며 불개미 떼가 온몸을 물어뜯기라도 하듯 내 다리를 때려댔기 때문이었다.

“자기 몸에 상처를 입히는 건 좋지 못해.”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다.

“난 그저 드라큘라 놀이를 하려던 거 뿐이었어요.” 내가 설명했다.

선생님은 나를 곧바로 홀리필드 양호선생님께 데려가셨다. 양호선생님은 이보다 더 심한 상처도 봤다고 하시며 다른 아이들도 이런 적이 많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양호선생님은 커다란 흰 붕대로 내 손가락을 감쌌다. 손가락 끝에 큰 솜사탕 덩어리가 매달려있는 모양새였다.

“손톱이 빠질 거야.” 선생님이 말했다. “하지만 걱정 안 해도 돼. 곧 다시 자랄 테니까.”

“새 손톱 물어다주는 요정도 있나봐요?” 내가 물었다. “만약에 있다면 현 손톱을 베개 밑에 넣어두고는 1달러를 벌 수도 있을 텐데.”

선생님이 나를 보고 미소짓고는 얼굴을 맥시 선생님께 돌리고는 나에게 관해 내가 모르는 어떤 것을 두 사람은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은 항상 내 주위에서 그와 같은 비밀스러운 표정을 주고받았다. 그렇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나 역시 그들이 모르는 나만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피장파장인 것이다.

그날 수업이 끝나자 맥시 선생님이 교실 문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잠깐 얘기 좀 해야겠구나.” 선생님이 말했다. “좀 앉으렴.”

나는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몰랐고, 만약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아무애기나 무작정 튀어나올 것만 같았기 때문에 그저 선생님을 뺀히 쳐다봤다. 내가 잠자코 있으니 선생님이 먼저 입을 여셨다.

“조이야, 내 말 잘 들어야 한다.” 선생님은 라디오방송에서 들려나오는 듯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널 돕고 싶다. 하지만 너 스스로도 네 자신을 도와야해. 오늘, 너 네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어.”

“그냥 사고였어요.” 내가 소리쳤다. 그리고 경충경충 뛰었다. 선생님은 내 어깨에 손을 올려놓고는 천천히 날 자리에 앉히셨다.

“하지만 너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혔잖니.” 선생님이 말했다. “다른 학생들 같으면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거야. 선생님이 염려스러운 것은 네가 무엇이 너에게 해가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아무도 네가 상처 입는 것을 보고 싶어하지 않아. 그리고...” 선생님은 매우 조심스레 말하느라 잠시 머뭇거리셨다. “그리고 누구도 네가 반 친구들에게 상처 입히기를 바라지 않고 말이야.”

“난 아무도 해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말했다.

“일부러 해치진 않겠지.” 선생님이 대답했다. “의도적으로는 말이야. 하지만 우리는 네가 그렇지 않도록 확실히 해 두어야 한단다.”

나는 왜 내가 선생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수 없는지 알 수가 없었다.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더 얘기를 하셨지만 선생님이 하는 말은 전부다 그저 문자로 이루어진 긴 줄처럼 붕 떠올랐으며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것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서커스 음악을 듣는 것과 같았다.

“조이야.” 선생님이 말했다. “교실 안에서는 제한이 있는 법이란다. 네가 그 규칙들을 지키지 않으면 선생님은 너를 특수교육반으로

보낼 수밖에 없어. 이것에 대해서는 너희 엄마와도 얘기를 했었다.”

“좋아요.” 나는 대답했다. 그냥 대답만 한 것이다. 무작정 동의하는 것이 말을 끝내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었다. “좋아요. 좋다고요.” 나는 반복해서 말했다. “다 이해해요.” 그렇지만 이해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사실 특수교육반은 나에게 새로운 개념이었고 그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아직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발 이해하길 바란다.” 선생님이 말했다. “우리는 단지 네가 올바른 방향으로 자랄 수 있기를 바랄 뿐이야.”

엄마가 직장에서 돌아오시자 나는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는 손가락을 보여드렸다. 엄마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머리를 뒤로 쓸어 올려 고무줄로 묶었다. “어디 한번 보자.” 엄마는 손가락의 밴드를 푸셨다. 엄마가 내 손가락을 들여다 보고있을 때 난 엄마 얼굴을 들여다 보았다. 엄마 얼굴이 슬프게 변했다. “괜찮을거야.” 엄마는 크게 말하면 상처가 더 아프기라도 하는 듯이 조용하게 속삭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속삭이듯 대답했다. 그러자 엄마는 매우 조심스럽게 밴드로 다시 손가락을 싸주셨다.

“말썹 피웠던 거니?” 엄마가 물었다.

“꼭 그런 건 아니고.” 내가 대답했다. “양호선생님이 별거 아니라고 하셨어요.”

“착하구나.” 엄마가 공중에다 대고 내게 뽀뽀하는 시늉을 했다. “자, 이제 엄마약 좀 만들어 줄래? 오늘 미용실이 난장판이었던단다.”

나는 부엌 찬장으로 쓴살같이 달려가서 23.99달러 붉은 딱지가 붙여있는 아마레토 한 병을 꺼냈다. 내가 약을 먹기 시작한 이후 엄마는 아마레토를 엄마약 이라고 불렀다. 내 생각에 엄마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기분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약을 먹어야한다는 사실에 기분상해 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 같았다. 즉 엄마가 말했듯이, 엄마약을 먹으면 엄마도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공통점을 갖게된 것이다.

학교 모임 후 엄마는 나를 병원에 데려갔고 그 이후로 나는 약을 먹게 되었다. 나는 서류를 책상 앞에 쌓아둔 어떤 의사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 분은 “텔레비전 보면서 숙제를 할 수 있니?” 혹은 “저녁 먹을 때 냅킨을 네 무릎 위에 놔둘 수 있니?” 와 같은 질문을 하셨다. 그리고는 나에게 루빅큐브를 주고는 얼마동안이나 내가 그것을 가지고 놀 수 있는지 시간을 잰다. 의사선생님이 다른 친구들이 날 놀려댈 때 어떻게 느끼는지 묻자, 다른 애들이 날 놀리는지 어떻게 알았느냐고 내가 되물었다. 의사선생님은 그냥 추측해본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말라깽이고 과잉행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애들이 나더러 ‘정서불안’이나 다른 이름으로 놀려댄다고 말했다. 나는 그렇게 놀림받는 게 정말 싫었다. 그리고 나자 의사선생님은 엄마랑 오랫동안 얘기를 나누시고는 엄마에게 여러 가지 서류를 주면서 작성하라고 하셨다.

시험처럼 길고 지루한 서류작성을 끝나치고 나서 우리는 곧바로 조제실로 향했다. 처방전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오래된 의자 속에서 솜뭉텅이를 빼냈다. 엄마가 일을 마치고 커다란 알약 병을 받아 들고 오셨을 때 나는 빼낸 솜뭉텅이를 전부 내 바지 속에 집어넣었다. 마치 허수아비처럼 배 주위가 똥똥해 보였다. 엄마와 빌린 차를 타고 집에 가는 내내 옷 위에 난 작은 구멍에서 숨을 조금씩 빼내서 천천히 차창 밖으로 던졌다. 집에 다 왔을 무렵에 나는 겁이 덜컥 났다. 왜냐하면 그 병원의 약사가 숨이 흘랑 빠진 훌쭉해진 의자를 받

견하고는 길가에 떨어진 솜조각을 따라 우리 집까지 쫓아오지는 않을까 무서웠기 때문이다. 마치 헨젤과 그레텔이 과자부스러기를 따라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말이다. 나는 너무나 무서워서 엄마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엄마는 내 볼을 양손으로 감싸고는 뽀뽀를 하셨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자 이제 약 먹어야지.” 엄마는 알약 한 개를 내 손바닥에 놓으시고 다른 한 손에는 물컵을 쥐어 주셨다. 하지만 내가 약을 삼키기 전에 “잠깐만 기다려보렴.” 하고 말했다. 엄마는 아마레토 병을 가져와서는 그것을 마운틴 듀와 섞으셨다. 그리고 “자 보렴. 엄마도 엄마약이 있어. 엄마약은 이렇게 병에 담겨져서 나온단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건배를 하고 약을 먹었다. 나는 약 먹는 것이 정말 좋았다. 작고 둥글고 흰 알약이 마치 왕용감 알약처럼 몸 속에 들어가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과 싸워 이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다들 이 약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 정말 효과가 있었다. 그날 나는 쥐죽은듯이 조용했으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이튿날 아침 10시까지 깨지 않고 푹 잤다. 일어났을 때 엄마는 이미 미용실에 출근하고 안 계셨다. 내가 먹을 알약과 하루종일 집안에 있으라고 적힌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그래서 나는 집에 가만히 있었으며 한동안은 보통 아이들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곧 옛날의 내가 돌아왔다. 행운의 수레바퀴와 심슨 가족 재방송을 보고 난 뒤 나는 부엌에다 땅콩버터로 난장판을 만들어놓았다. 엄마가 돌아왔을 때 화가 나서 나에게 알약을 주었다. 하지만 약 효과는 전보다 좋지 않았고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사실 첫날 이후 알약은 어찌다가 효과가 있었을 뿐이었다. 나는 알약이 효과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감을 잡지 못했다. “평화냐 아

니면 대재앙이냐” 그런 상황을 엄마는 이렇게 불렀다. 엄마가 의사 선생님께 전화해서 묻자, 선생님은 그 알약은 어린이용이며 어른에게는 효과가 없는데 내가 이른 사춘기에 이르러서 내 피가 반은 어린이고 반은 어른이기 때문에 효능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이 말을 지난번 내 손가락을 다쳤을 때 홀리필드 양호선생님에게 말했더니 선생님은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그것이 값싼 약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효과가 있다가 어떤 때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나는 엄마약을 다 만든 다음 아마레토 병을 치우고는 그것을 엄마한테 조심스레 가져갔다. 엄마는 약을 한 모금 마시고는, “조이야, 만약에 네가 다시 한번 실수를 저지르면, 학교에선 그냥 물이 배수구로 흘러가듯 널 포기해 버릴꺼야. 그리고 나서는 마치 네가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은 것처럼 수업은 계속 될 테지.” 라고 말했다.

“할머니도 배수구로 흘러 간 거 아닌가요?.” 내가 물었다.

“꼭 그런 건 아니란다.” 엄마가 말했다. “사실은 네 아빠가 이곳에 잠깐 왔을 때 할머니는 당신 자신이 하고 싶은대로 하고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그런 곳에서 사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셔서 아빠랑 함께 피츠버그로 가셨단다.”

“할머니가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했다.

“그 점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꺼야.” 엄마가 말했다. “할머니는 오래된 가죽채찍처럼 질기신 분이니까. 혹시 아니? 네 아빠한테 약간의 상식이라도 채찍질해서 넣어 주실 지.” 이렇게 말하며 엄마는 미소지었다.

4. 낚시놀이 하기

점심 시간 후 나는 책상에 앉아있었고 맥시 선생님은 등을 돌린 채 칠판에다 ‘위대한 길리 홉킨스’에서 발췌한 긴 단어 목록을 적고 계셨다. 그 책은 내가 굉장히 좋아해서 한번에 일분 이상씩이나 가만히 들고 있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이미 들었던 내용이라 그날 나는 긴 줄로 내목에 걸려진 우리 집 열쇠를 갖고 노는데 더 흥미를 느꼈다. 나는 작은 얼굴처럼 생긴 매끄럽고 둥근 꼭대기를 가진 그 오래된 낚시 열쇠를 만지작거리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그것은 마치 마술처럼 신기한 것을 만지는 것과 같았다. 나는 어떻게 열쇠가 문을 열고 잠그는지 알 수가 없었다. 신기하게도 열쇠는 그냥 그런 것을 척척 해냈다. 엄마는 할머니가 떠난 후 나에게 열쇠를 주셨다. 나는 엄마가 미용실에서 돌아오기 두 시간 전에 집에 가곤 했다. 엄마는 열쇠를 줌으로써 나에게 대한 신뢰감을 보여준 것이었다. 물론 여기에는 규칙이 있었다. 나는 곧바로 집으로 직행해야만 했고, 일단 집에 가면 가스렌지에 불을 붙이는 것과 목욕하는 것, 장난 전화 거는 것과 벽이 파이는 것을 막기 위해 벽에다 대고 야구공 던지는 것 등을 일체 해서는 안되었다. 이것만 빼고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일단 집에 들어오면 밖으로 나가거나 낚시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은 금지되었다. 나는 이것을 환영했는데 왜냐하면 내가 전에 의사선생님께 말했듯이 우리 동네 애들은 무척 못됐기 때문이었다. 언젠가 그 중 몇 명이 내가 방과후에 집에 가고 있는데 날 붙잡았다. 포드라는 녀석이 나를 꿰어앉히고는 내 목에다 가죽끈을 묶었다. “굴러봐.” 그 애가 소리치자 난 시키는 대로 했다. “죽은 시늉 해봐.” 그 애가 명령했다. 나는 무서워서 가

죽끈에서 머리를 획 뺐다. 그러다 콧구멍이 찢겨서 피가 났다. 하지만 난 도망갔다. 이제는 누가 와도 절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우리 집 열쇠를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다가 입에 집어넣고는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나는 열쇠 삼키는 연습을 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열쇠를 뱃속에서부터, 목구멍으로, 다시 입으로 천천히 잡아 올리는 것이다. 마치 강바닥에 사는 물고기를 낚는 것처럼 말이다. 때때로 열쇠가 목구멍 한쪽에 걸리기 때문에 아프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면 나는 열쇠 줄을 잡아당겨서 열쇠를 쑥 꺼냈다. 또 다른 문제점은 가끔씩 구역질이 나서 거의 토할 뻔한 적이 있다는 것이었다.

점심식사 후에 열쇠놀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히나 더욱 볼만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먹었던 음식물 조각들이 열쇠랑 열쇠 줄에 묻혀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그것들을 떼어서 다시 삼키곤 했다.

맥시 선생님이 돌아서서 나를 쳐다보셨지만 나는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계속해서 열쇠로 낚시질을 하면서 간이나 콩팥 아니면 과학시간에 배웠던 다른 기관들을 끌어올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때 맥시 선생님이 갑자기 내 자리에 오셔서 한 손으로 내 입에서 열쇠 줄을 잡아 빼셨다. 열쇠가 목구멍 반쯤 밑까지 내려가 있어서 갑자기 빼내니 무척 아팠다. 선생님은 다른 손으로 끝이 아주 뾰족한 “선생님 전용” 가위를 들어 열쇠 줄을 싹둑 자르고는 열쇠를 내 티셔츠 주머니 속에 넣었다.

“공부에 신경 써야 하는 거 잊지 않았겠지.” 선생님이 내 책상 앞에 붙여진 규칙 리스트를 손가락 끝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자, 똑

바로 앉고, 잘 들어라.”

“알았어요.” 나는 곧바로 내 두 손을 엉덩이에 깔고 바로 앉았다. 선생님이 다시 수업에 전념하시자 나는 청바지 주머니에서 오래된 내 사진 한 장을 꺼내 들고는 그것을 내 책상 위에 놓았다. 그 사진 속에서 나는 양손을 옆구리 쪽에 착 붙이고는 눈은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바라보고는 꿈쩍도 안하고 서있었다. 마치 조그만 동상 같았다. 새가 머리 위에 둥지라도 틀지 않을까 싶어지는 사진이었다.

“자, 보렴.”엄마가 이 사진을 주며 내게 말했었다. “이게 바로 너도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네가 안전부절못하게 느껴질 때면 이 사진을 보렴. 네가 침착했을 때를 떠올리게 해줄 꺼야.”

나는 그 사진 속의 내 작은 눈을 들여다보았다. 내가 것처럼 가만히 서있을 때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해내려 애썼지만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내 마음은 또 판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는 맥시선생님이 열쇠를 잘라버렸다는 사실을 잊은 채 셔츠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서 내 입 속에 집어 넣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줄에 앉아있는 세스 저스트만이 열쇠를 볼 수 있도록 혀를 쭉 내밀었다. “내가 만약에 이걸 삼키면 뭘 줄 테야?” 내가 속삭이며 물었다.

“1달러.” 세스가 말했다. 그 애는 정말로 1달러를 줄 것임에 틀림 없었다. 왜냐하면 세스는 무료 아침과 점심 급식을 받지 않아서 항상 음식 사먹을 돈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이었다.

정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입안 가득 침을 모은 다음 꿀꺽 삼켰다. 그러자 열쇠는 약간 옆쪽으로 목구멍을 스치며 넘어갔다. 하지만 어쨌거나 목구멍 밑

으로 쭈욱 열쇠를 삼킨 것이었다! 나는 입을 벌려서 세스에게 열쇠를 삼켰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세스는 매우 놀라며 자기 호주머니를 뒤져 1달러를 나에게 주었다. 나는 열쇠 줄을 잡아당기기 위해서 내 턱을 만졌다. 하지만 거기에 줄은 없고 내 입술만 손에 닿았을 뿐이었다. 갑자기 나는 선생님이 열쇠 줄을 잘라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는 벌떡 일어나서는 소리지르기 시작했다. “맥시 선생님! 내가 열쇠를 먹어버렸어요!”

반 친구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 나를 쳐다봤다. 맥시 선생님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선생님은 이미 자신이 열쇠 줄을 잘라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머나, 세상에!” 선생님이 소리쳤다. 선생님은 나를 붙잡고는 옆 반 덤스 선생님 반으로 뛰어갔다. “저 대신 저희 반 좀 잠깐 봐주세요.” 맥시선생님은 절망적인 목소리로 소리치고는 양호실로 급히 나를 데려갔다.

차분함 빼고는 시체인 홀리필드 양호선생님은 침착하게 상황설명을 들은 후, 흰 캐비닛에서 작은 갈색 병과 플라스틱 숟가락을 꺼냈다. “이피캅이라는 구토제야.” 양호선생님이 설명해주었다. “이걸 마시면 토하게 될 꺼야. 내가 장담할게.”

선생님은 내 턱 밑에 초록색 플라스틱 접시를 대주셨다. 마치 바다 원숭이들이 헤엄치기에 알맞은 풀장처럼 생긴 접시였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은 나에게 약 한 숟가락을 주셨는데 너무 써서 지난 일주일간 먹었던 것을 전부 토해내고 말았다. 선생님은 플라스틱 포크로 내가 토해낸 것을 휘저어보셨다. 하지만 열쇠는 없었다. 선생님이 약을 한 숟가락 더 떠 넣어주자 나는 작년에 먹었던 것까지 죄다 토해내고 말았다. 하지만 그 속에 열쇠는 없었다.

“의사를 불러야 할까요?” 맥시 선생님이 물었다.

“아뇨.” 양호 선생님이 말했다. “지금 상황에선 조이의 배를 가르던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빠져 나오게 하던지 둘 중 하나예요.”

“자연적으로 나오게 하는데 한 표 던질래요.” 내가 말했다.

“저는 지금 교실에 돌아가 봐야 하는데.” 맥시 선생님이 말했다. “교장선생님께 말해서 조이를 좀 돌봐달라고 얘기해야겠어요.”

우리가 교장선생님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양호선생님은 나와 게임을 하고 싶어했다.

“나 카드 게임 되게 잘해요.” 내가 말했다. “우리 할머니가 포커하는 방법을 가르쳐줬거든요.”

“아니,” 양호선생님이 말했다. “너한테 몇 가지 질문할게 있어. 대답해주렴.”

“뭐라고요?” 어리둥절한 듯 내가 물었다. 나는 한창 포커게임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고 내가 얼마나 할머니를 보고 싶어하는 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음, 방금 너 내가 묻고 싶어하는 첫 질문에 대답을 한 거야.” 선생님이 말했다. “너는 자주 잊어버리나보구나?”

사람들이 나한테 질문을 많이 해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었다. 사실 나는 질문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나쁜 감정이 없었다. 그저 질문들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뿐이었다. 왜냐하면 어떤 질문은 이해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었다. 어떤 때는 하나의 질문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마치 어떤 사람이 커다란 코끼리를 꼬리부터 끌어내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큼이나 지루했다. 그 꼬리를 보는 순간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게 되고 꼬리를 갖고 있는 다른 많은 동물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다. 그러다 보면 코끼리만 빼고 다른 수 백 가지의 동물들을 생각하게 되므로 코끼리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게 된다.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니? 선생님이 물었다.

“열쇠요.” 이렇게 말하고는 선생님을 보고 씩 웃었다. “언젠가 한번 내 바지를 잃어버렸어요. 화장실에 벗어놓고는 어디다 뒀는지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동물들은 좋아하니?”

“무척 좋아해요.” 내가 대답했다. “ 강아지를 기르고 싶어요.”

교장선생님이 오시자 양호선생님은 교장선생님과 복도에서 얘기를 나누었다. 얘기를 마치고 교장선생님은 나더러 따라오라고 말했다.

“조이야, 넌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란다.” 우리가 중앙 홀을 따라 내려갈 때 교장선생님이 말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렴. 산수를 잘 못하는 학생은 산수 보충지도를 받잖니. 그리고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독서보충지도를 받고 말이다.”

“난 읽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내가 말했다.

“맞다. 조이야.” 교장선생님은 내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했다. “그렇지만 말이다. 넌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있질 못하고 공부에 집중하지도 못하잖니. 그래서, 선생님은 너한테 가만히 앉아있기 보충지도를 해줄까 하는데 말이야.”

우리는 계단 몇 개를 내려가 지하실에 이르렀다. “수위 아저씨 보러 가는 거예요?” 내가 물었다.

“아니다.” 교장선생님이 대답했다. “ 이번 여름 우리 학교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특수교육반을 만들었다.”

“나도 들은 적 있어요.” 내가 말했다. “맥시 선생님이 만약 내가 가만히 앉아 있지 않으면 거기로 가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맥시 선생님 말이 옳았다.” 교장선생님이 대답했다. 그리고는 문을 열고 우리는 아직도 갓 칠한 페인트 냄새가 풍기는 밝은 노란색 벽을 한 큰 방으로 들어갔다.

“모두들 매우 친절하단다.” 교장선생님이 말했다.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 없다. 아마 친구들도 사귀게 될 거야.”

하지만 겁에 질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윗 층 교실에서 온 아이들도 몇몇 보였지만 대부분이 다치거나 덜 떨어지거나 턱으로 휠체어를 조정하는 아이들이었고 피상하게 말하고 걷고 경련을 일으키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 애들은 모두 특수버스나 특수 제작된 자동차를 타고 등교하는 애들이었다. 나는 항상 그 애들이 학교에 오면 다들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었다. 이제 그 애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된 것이다. 게다가 아줌마들 여럿이 주변에서 그 애들을 돕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모두 그 애들 엄마였다. 그 아줌마들이 이 시각, 직장에 있지 않는 것이 놀라웠다. 우리 엄마는 항상 일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엄마들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직업일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곳에 속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엄마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맥시 선생님 반으로 돌아가도 되나요?” 내가 교장선생님께 물었다.

“조금 있다가.” 교장선생님이 대답했다. “우선, 하워드 선생님께 인사하렴.”

나는 멀리, 될 수 있는 대로 머얼리 눈을 돌려 노란색 벽 구석을 바라보았다. 우리 할머니조차도 장애자들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고개를 돌리자 그들 중 몇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물론 나는 정상이기 때문에 그 애들이 날 쳐다보는 것은 괜찮았다. 그 애들에게 손을 흔들자 애들도 나에게 손을 흔들어주었다. 몇몇은 상태가 조금 나은 편이었다. 그 애들이 착하다고 생각되자 나는 약간 마음이 놓였다.

“저는 그저 약간의 규칙만을 어겼을 뿐인데요.” 내가 교장선생님께 말했다. “규칙 어긴 거 말고는 저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 선생님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네가 규칙을 어기지 않는 법을 가르쳐주려고 하는 거야.”

“이미 다 배웠는걸요.” 내가 말했다. “앞으로 열쇠는 절대로 삼키지 않을게요. 약속할게요.”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교장선생님이 대답했다.

그러자 하워드 선생님이 내 쪽으로 다가오셔서 나에게 미소지었다.

“이 학생이 전에 내가 말했던 그 학생입니다.” 교장선생님이 말했다. “하워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이 하라는 거 잘 따라하도록 해라. 네가 가만히 앉아있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약간의 도움을 주려는 거다.”

나는 내 자신이 카페트 위에 똥을 잔뜩 싸놓고, 슬리퍼를 물어 뜯어놓고, 우체부 아저씨에게 달려든 벌로 개 훈련소에 보내진 아주 못된 강아지처럼 느껴졌다.

하워드 선생님은 내 손을 잡고 한 쪽 구석에 놓여있는 높은 쇠 의자로 나를 데려갔다. “이것은,” 선생님이 말했다. “‘큰침착의자’란다. 이것을 일 단계라고 부르겠다. 먼저 네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의자 위에 앉아 있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다.”

나는 그 거대한 의자위로 기어올라가 앉고는 선생님을 가만히 응시했다. 길으로 봤을 때는 마치 내가 정말 정상적이어서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이 큰 착오인 것처럼 무척이나 침착하게 보였는지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지루한 책을 읽으라고 주셨다. 하지만 내 몸 안에서는 언젠가 내가 상점 바닥에 떨어뜨린 적이 있는 커다란 따뜻한 맥주병처럼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곧 터질 것만 같았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은 자전거 헬멧을 쓴 채 자전거위에서 굴러 떨어진 어떤 애를 일으켜주러 가셨다. 나는 책장을 너무도 빨리 넘겨버려서 그 책이 종이로 되어있는 것만 빼고는 아무 것도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손가락의 붕대를 다시 풀었다. 그리고는 앞뒤로 의자를 움직이려 했지만 의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옆으로도 왔다갔다 움직여 보았지만 의자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나는 의자 팔을 움켜잡고는 투우사가 야생황소에게 하듯이 몸을 획 돌렸다. 그렇지만 의자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의자다리를 내려다보니 바닥에 볼트로 고정이 되어있었다. 고정이 되어있었던 것이다! 마치 서커스의 볼거리처럼. 그래서 나는 더 심하게 몸을 흔들어댔고 발뒤꿈치로 의자다리를 쿵쿵 차기 시작했다. 의자가 금속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파이프를 치는 것처럼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났다. 그러자 하워드 선생님이 달려와서는 내 무릎을 잡으셨다. 내가 잠시 발을 멈추자 신발 끈을 풀고는 운동화를 벗겼다.

“잠깐만 있어보렴.” 선생님은 신발장으로 가더니 털이 복실 복실한 토끼모양의 슬리퍼를 가져왔다. 커다란 토끼이빨이 발가락 부분에 달려있었고 걸려서 넘어질 정도로 긴 귀가 옆에 달려있는 슬리퍼였다. 선생님은 슬리퍼를 내 발에 신기고는 말했다. “됐다. 이제

원하는 만큼 의자를 차도 좋아. 그리고 여기 올 때면 가만히 앉아서 발로 차지 않아도 될 때까지는 이 슬리퍼를 항상 신어야 한다.”

선생님 어깨 너머로 몇몇 엄마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모두들 피곤한 얼굴들이었다. 내가 일을 망쳐버려서 화를 내거나 언짢은 그런 표정은 아니었다. 좀 다른 표정이었다. 그 엄마들은 너무나 슬퍼서 지쳐 보이는 것이었다. 이제 나 역시 이상한 행동을 하자 그들은 더욱 더 슬퍼진 것이었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는 자기 아이들에게 느끼듯이 나에게 대해서도 맘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었다. 마치 희망이 없는 아이처럼 취급당하는 것에 너무 화가 나서 나는 발뒤꿈치가 아프고 멍이 들 때까지 의자 다리를 발로 차댔다. 그러다 갑자기 모든 에너지가 나에게서 빠져나가는 듯이 느껴졌고 노란색 방안이 너무도 밝게 느껴져서 나는 눈을 감고는 잠들어 버렸다.

하교시간이 다 되자 하워드 선생님은 날 깨우고 다시 맥시 선생님 반으로 돌아가서 과제물을 챙기라고 말했다. 나는 토끼 이빨이 달린 토끼슬리퍼를 발에다 끼운 채 교실로 돌아갔다. 내가 눈을 비비며 교실로 들어가자 세스 저스트만이 날 가리키며 낄낄댔다. 그러자 반 전체가 웃음을 터뜨렸고 맥시선생님은 아이들을 조용히 하도록 하기 위해 손뼉을 쳐야만 했다. 그리고는 나를 자리에 앉히셨다. 선생님은 ‘이건 장난이 아니야’라는 눈빛을 하고는 내 책상 위의 규칙 리스트를 가리켰다. “기억하지, 조이.” 선생님이 내 귀에 대고 말했다. “이 규칙들만 잘 지키면 아무 문제 없을꺼야.”

선생님이 친절하긴 했어도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책상 위에 얼굴을 묻었다. 내 뺨에 느껴지는 책상표면은 매우 차

가웠다. 나는 조금 더 자고 싶었다.

“그리고 넌 아까 수업시간에 소란을 피웠으니까 반 친구들에게 사과를 해야해.” 선생님이 말했다.

“미안해. 내가 열쇠를 삼켰어.” 나는 고개를 들지 않고서 약간 큰 목소리로 말했다. “진짜야. 미안해.” 하지만 나는 하나도 미안하지 않았다. 나는 또다시 점프를 하고 싶어졌다. 그래서 토끼 슬리퍼 신은 내 발을 책상 앞다리에 단단히 끼워 고정시키고는 마치 창가에 놓인 할로윈용 호박 등처럼 한가지 움직이지 않는 사물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몸이 움직이지 않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두 손을 책상 위에서 모아 쥐었다. 만약 내가 실수를 해서 집중력을 잃거나 규칙 리스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맥시 선생님은 날 영원히 포기하고 지하실 특수반으로 보내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경고를 받아왔고 내 나쁜 행동에 대한 기록이 전화번호부만큼이나 두툼한 파일로 적혀있기 때문에 나나 우리 엄마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런 사태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책상에 붙어 앉아 마치 거인이 나를 꼭 붙잡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온 힘을 다해 내 자신을 자리에 고정시키려 노력하고 있었다. 마침 종이 울리기 전까지 나는 숨도 못 쉰 채 그러고 있었다. 수업이 끝나자 나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그 바보 같은 토끼 슬리퍼를 신은 채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가 돌아왔을 때 나는 현관문 앞에 앉아 있었다. 엄마한테 엄마 약속을 만들어주고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엄마는 이 일에 대해서 어쨌거나 알게 되었다. 교장 선생님이 그날 밤 늦게 전화를 했던 것이다.

5. 소원 빌기

잠자리에 들기 전, 엄마는 나에게 미네랄오일 몇 스푼을 주셨다. 다음 날 아침, 자연스럽게 열쇠가 빠져 나왔다. 나는 새 실내 슬리퍼를 신고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 있었다. 그때 갑자기 변기 속으로 침병하고 열쇠가 빠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엄마가 쓰는 고무장갑을 끼고 화장지로 내 코를 막고는 입으로 크게 한번 숨을 들이마신 채 손을 집어넣어 열쇠를 건져냈다. 열쇠는 더러워져 있었지만 물로 씻으니 예전과 똑같아 보였다.

학교에 도착하자 나는 세계 레슬링 챔피언이라도 된 양 의기양양하게 머리위로 깎지를 낀 채 흔들며 교실로 들어갔다. “내가 열쇠를 썼다!” 나는 소리쳤다. “화장실에서 열쇠를 썼다구!”

세스 저스트만은 환호성을 질러댔다. “가지고 있어?” 세스가 물었다.

세스는 내가 열쇠를 어쩔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열쇠를 그냥 버렸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나는 목에 새 끈으로 매달아놓은 열쇠를 내보여주었다. “이게 바로 그 열쇠야.” 내가 말했다. “냄새맡아 볼래?”

“해봐, 해봐, 해봐.” 세스가 소리쳤다. 그러자 곧 반 아이들 전체가 함께 소리치기 시작했다. 맥시 선생님은 딥스 선생님과 아래층에서 현장학습 계획을 짜느라 자리에 안 계셨다. 나는 너무나 우쭐해져서 돈을 요구하는 것도 잊은 채 열쇠를 입 속에 넣고 꿀꺽 삼켰다.

“우웁!” 애들이 얼굴을 찌푸렸다. 하지만 그 애들은 이런 것을 좋아했다.

“더러워!” 세스가 소리쳤다. “네가 똥 냄새나는 열쇠를 삼켰어.”

그런 뒤 나는 똥소리 울린다고 상상하면서 천천히 열쇠를 빼내었다. 하지만 꺼낼 때 목구멍에 뭐가 걸리는 듯해서 힘이 좀 들었다. 꺼내보니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아침에 나는 차가운 스파게티 한 접시를 먹었는데 스파게티 몇 가닥이 문어다리처럼 열쇠 끝에 매달려있었던 것이다. 반 전체가 볼 수 있도록 열쇠를 공중 위로 던졌다가 받자 아이들은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댔다. 맥시선생님이 이 소리를 듣고 부리나케 교실로 들어오셨다.

“넌 줄 알았다.” 나를 가리키며 내 자리 쪽으로 오시더니 내 손에 있는 열쇠를 보았다. “이제 양호선생님께 가서 목과 얼굴 좀 닦고 오려무나. 그리고 그 열쇠는 선생님한테 맡기고.”

홀리필드 양호선생님은 내 상황설명을 듣고는 엄마약 같은 맛이 나는 가그린이 담긴 작은 종이컵을 건네주었다.

“수 백만 달러를 벌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다.” 선생님이 말했다. “내가 만약에 너 같은 아이들을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 붙이는 법을 발견해낼 수 있다면 말이야.”

“내 열쇠 한 번 만져 볼래요?” 열쇠를 보이며 내가 물었다.

“오늘 약 먹었니?” 선생님이 대답 대신 물었다.

“나중에 대답하면 안될까요?” 내가 노래하듯 대답했다.

“대답 안 해도 알 것 같구나.” 선생님은 엄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약은 먹고 싶을 때만 먹는 게 아니야.” 나를 화장실로 데려가시며 계속 말을 이으셨다.

“나도 알아요.” 내가 불쑥 말했다. “하지만 엄마가 까먹었던 말이에요.”

“양호선생님이 대신 약을 줄 수도 있어. 매일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께서 약을 받아가거든.”

“절대 안돼요.” 내가 대답했다. “우리 엄마가 엄마말고는 아무도 나한테 약을 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럼 약을 꼬박꼬박 챙겨먹도록 해.” 선생님이 강조했다. “네 자신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하란 말이야.”

“그렇게요.” 내가 대답했다. “얼굴 씻을래요.” 얼굴을 다 씻고 선생님을 쳐다보자, 선생님은 머리를 흔들며 보이셨다.

“교실로 돌아가는 게 좋겠구나.” 그리고는 종이 타월을 건네주셨다. “넌 똑똑한 아이야.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뒤떨어질 꺼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요?”

“선생님을 어떻게 하면 골탕먹일 수 있는지 알고 있을 정도로 충분히 똑똑하지.” 선생님이 말했다. “자 이제 가보거라.”

맥시선생님은 칠판을 지우고 계셨다. 내 열쇠는 코르크로 된 게시판 위에 압정으로 고정된 채 매달려있었다. “매일 아침, 열쇠를 여기다 두거라.” 선생님이 말했다. “그리고 집에 갈 때 다시 가지고 가고. 내가 왜 이러는지 알겠지?” 선생님이 물었다.

“나중에 대답하면 안될까요?” 내가 말했다.

“좋아. 똑똑한 아저씨. 그런 식의 어려운 대화는 이쯤에서 접기로 하자구나.” 선생님이 말했다. “이제 지하실로 내려가서 하워드선생님과 집중력 기르기 수업을 받아야지. 얌전히 잘 있는다면 점심시간 이후 산수시간엔 교실로 돌아와도 좋다.”

“또 보자고, 애들아.” 반 친구들에게 인사를 했다. 나는 자를 집어들고는 뒷걸음질로 교실을 빠져나갔다. 마치 군대 전체와 칼싸움

을 벌이는 것처럼 복도의 사물함을 후려치면서 뒷걸음질로 하워드 선생님이 기다리시는 지하감옥에까지 내려갔다.

“나 왔어요.” 엉덩이로 문을 밀어젖히며 내가 말했다.

하워드 선생님은 탁자 위에 하얗게 설탕가루가 뿌려진 컵 케이크를 차리는 중이었다. “오, 어서 오렴, 조이야.”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며 나를 반겼다. “지금 막 해럴드 생일파티를 열 참이었는데, 때 맞춰 왔구나.”

“난 파티 무척 좋아해요.” 나는 냉큼 대답하고는 거기 있는 엄마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아줌마들은 날 보고 미소지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사람들이 나를 일단 알게 되지만 하면 좋아하게 되리라는 것을 난 이미 알고 있었다. 모두가 그랬기 때문이었다.

“도와드릴까요?”

“그래.” 선생님은 무지개색 파티모자를 가리키며 그렇게 해달라고 하셨다. “저것들 좀 나누어주렴.”

모자를 혼자 쓸 수 있는 애들은 스스로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하지만 잘 움직이지 못하는 애들은 내가 도와주었다. 이윽고 엄마들과 하워드선생님 그리고 나까지 전부 파티모자를 쓰고 나자 우리는 해럴드에게 아주 우스꽝스러운 목소리로 생일축하노래를 불러주었다. 해럴드는 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자기 앞에 있는 촛불도 끌 수 없었다. 하워드선생님이 바로 코앞에 촛불을 갖다대셨지만 해럴드는 그저 머리를 앞뒤로 흔들며 침방울을 튀겨댈 뿐이었다. 하지만 촛불은 꺼지기는커녕 계속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모두들 해럴드 주변에 빙 둘러 모여 그 촛불이 폭탄의 도화선이어서 해럴드가 꺼주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산산조각으로 폭발해버리기라도 하는 듯 그 애를 응원하고 있었다. 해럴드는 계속 꺼보려고 노력을 했지

만 그 애 몸 안에는 뿔어낼 바람이 없었다. 오로지 그 작은 침방울 뿐이었다. 촛불은 점점 타들어 갔고 이대로 두었다가는 헤럴드가 바라는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게 뻔했다. 나는 헤럴드의 얼굴을 아주 뻘뻘히 들여다보았다. 헤럴드는 마치 “이봐! 거기 그렇게 서있지만 말고 좀 도와달라구!” 하고 소리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어른들을 둘러보았다. 다들 헤럴드 쪽으로 몸을 숙인 채 어쩔 줄을 몰라 얼어붙은 듯 가만히들 서있었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었다. 모두가 촛불이 입김으로 꺼지기를 갈망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걸어나가서 크게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는 촛불을 훑 불어 꺾었다. 그것으로 헤럴드의 소원은 이루어졌으며 이제 아마 저 기울어진 무지개색깔 파티모자 밑에는 헤럴드가 바란 금덩어리가 숨겨져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모두들 입을 동그랗게 벌리고 마치 내가 헤럴드를 칼로 찌르길라도 한 듯 나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나는 단지 헤럴드를 도왔을 뿐이었다.

“난 네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왔을 따름이야.” 내가 헤럴드에게 말했다. 그러자 헤럴드는 경련을 일으키는 로봇처럼 머리를 확 확 움직였다. 그 애가 행복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봤죠.” 내가 헤럴드의 입을 가리키며 모두에게 말했다. “내가 도와주어서 지금 웃고있잖아요.”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워드 선생님은 내 손을 잡고는 방저쪽으로 데려가셨다. “넌 잠시동안 여기 잠자코 있어야 할 것 같구나.” 선생님이 말했다. 선생님은 나를 큰침착의자에 앉히고는 책을 읽게 하셨다. 하지만 전에 깨뜨린 적이 있는 온도계의 수은처럼 글자들이 페이지에서 온통 흘러내려 도통 읽을 수가 없었다. 나는 계

속해서 컵 케이크를 달라고 졸랐지만 선생님은 “설탕은 네게 해로워.” 라고 말하며 대신에 당근을 주셨다.

“이봐, 안녕?”나는 토끼목소리를 흉내내며 아주 큰소리가 나게 우적우적 당근을 씹었다. 그 순간 교장선생님이 새로운 아이와 함께 들어오는 바람에 하워드 선생님은 그런 나를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아이는 자기 학교에 특수교육반이 없어서 우리 학교로 온 것이라고 했다.

그날 나는 산수시간에 맥시 선생님 교실로 다시 돌아가지 못했다. 수업이 끝나 집까지 걸어온 나는 열쇠를 게시판 위에 놓고 왔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다른 심술궂은 동네아이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현관문 앞에 쪼그려 앉아서 엄마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나는 엄마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오후 내내 엄마를 생각하고 있었다.

엄마가 모퉁이를 돌아 걸어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엄마 팔에 매달렸다. “엄마,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잠깐만, 애야.” 엄마는 이렇게 말하고는 내게 지갑을 들고 있다고 건넸다.

집안으로 들어선 엄마는 화장실 표백제 냄새가 나는 작업복을 벗어 걸어놓고는 목욕가운을 걸치셨다. 그러는 와중에도 나는 계속해서 “이제 물어봐도 돼요? 지금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하고 물었다.

“잠깐 엄마 숨 좀 고를 동안 네 열쇠가 어디 갔는지 먼저 들어볼까?” 엄마가 말했다. 나는 엄마를 따라 부엌에 따라 들어가서 엄마가 마실 것을 만드는 것을 지켜보며 게시판에 대해서 말했다. 엄마

는 식탁에 앉아서 신문을 펼치셨다. 그리고는 마치 거대한 나비의 날개를 읽기라도 하듯 커다란 신문으로 얼굴을 가렸다.

“지금 물어도 되요?”

“먼저 100까지 세 봐.” 엄마가 말했다.

신문 첫 면에 실린 자동차 사고 사진을 응시하면서 나는 긴 층계를 날아 내려가듯 단숨에 100까지 셨다 .

“지금은요?” 100까지 숫자를 다 셨 다음에 내가 물었다.

“그래.” 엄마가 말했다. “이제 물어보렴.”

“혹시 내가 아기였을 때 페인트 조각을 먹었나요?”

“아니, 그냥 감자조각만 먹었지.” 페이지를 넘기며 엄마가 대꾸했다.

“내가 떨어져서 머리를 부딪힌 적이 있었나요?” 내가 물었다.

“대개는 엉덩이를 부딪혔지.” 엄마가 대답했다.

“나 임신했을 때 엄마는 술을 많이 마셨나요?”

엄마가 잠시 말을 멈추었고 나는 더 이상 농담하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다. 신문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 얼굴을 볼 수 없었다.

“평상시보다 더 마신 건 아니었던단다.” 마침내 마치 어딘가 멀리 갔다온 것처럼 무언가를 읽으며 엄마는 대답했다.

“평상시라는 게 어느 정도인데요?” 내가 물었다. “나는 평상시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알아요? 그게 뭐예요?” 말을 하는 동안 내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눈을 감고 두 손을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았다. 때때로 그렇게 하면 죄수복에 묶인 느낌이 들어서 내 자신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저녁 먹으면서 포도주 한잔과 식후에 아마레토 칵테일 한잔.”

엄마는 마치 이 말을 전에도 수백 번했기 때문에 되풀이하기 귀찮다는 듯이 내뱉었다. 그리고 나서 엄마도 반격을 했다. 잠시 신문을 내리고는 “왜 묻는 거니? 왜? 왜?” 하고 물었다.

엄마는 “왜”라고 물으면 내 머리 속 에 있는 작은 톱니바퀴들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엄마는 내가 결코 “왜”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내가 정확히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알지 못했고 내가 의미하는 것을 정리하는 길을 결코 찾아내지 못했다. 나와 내가 말하려는 것들 사이에는 너무도 많은 길들이 있어서 나는 언제나 그 속에서 헤매곤 했던 것이다.

“오늘 특수반에 새 아이가 왔었어요.” 엄마가 신문을 바스락거리자 가슴을 졸이며 내가 말했다. “어떤 아줌마 한 명이 그 애가 땅콩만 했을 때 그 애 엄마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개가 완전히 맛이 간 거라고 했어요. 그 애는 바싹 마른 데다 머리도 발로 채인 소프트볼처럼 되게 작았어요. 그 애는 정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았어요. 내 최악의 날이 그 애의 최고의 날보다 더 나을걸요. 훨씬 더.”

“그렇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렴.” 신문을 넘기며 엄마가 말했다. “네가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엄마를 비난할 생각은 말거라. 다른 사람들도 다들 포도주쯤은 마시지만 그 사람들 아이들은 똑똑하기만 하더구나. 그 정도 와인은 별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거야.”

나는 여전히 엄마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엄마목소리는 “날 그만 몰아세우렴. 도를 지나쳐서 상처 입기 전에 이쯤에서 그만두자구나.” 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고는 다시 커다란 그릇에서 양념땅콩을

집어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엄마가 신문을 내려놓았다. 엄마 무릎 위에 놓인 신문지위에 작은 물방울 두 개가 떨어져 있었다. 엄마는 울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게 엄마가 너무 많이 마셔서인지 아니면 나와 함께 하는 생활 속에서 엄마가 느끼는 슬픔 때문인지 잘 알 수가 없었다.

엄마는 눈과 코에서 떨어지려는 뭔가를 온힘을 다해 끌어올리려는 듯이 코를 훌쩍이면서 말했다. “왜 하필이면 나일까? 왜? 나는 정말 노력하고 있단다.”

나는 그 물음에 대답해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언젠가 ‘왜’라는 질문은 내 머리를 닳게 해서 꼭 삶은 달걀만큼이나 매끄럽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그러면 나는 혼수상태에 빠진 아이처럼 하워드 선생님 반의 ‘큰침착의자’에 일생동안 앉아 지내게 될 것이고 ‘왜’라는 단어는 따스한 바람처럼 한쪽 귀로 들어와서 다른 쪽 귀로 빠져나갈 것이다. 특수교육반에 커윈 클럼프라는 애가 있는데 하워드 선생님은 그 애를 “나의 귀여운 작은 럼프¹⁾”라고 불렀는데 나쁜 뜻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은 절대 아니었다. 그 애는 별로 할 줄 아는 것이 없었는데 그저 자리에 앉아 있거나 침을 질질 흘리거나 아니면 가끔씩 펄쩍 뛰어올라 플라스틱으로 만든 화재경보기를 울리곤 했다. 개학하고 첫 주에 그 애는 복도에 있는 진짜 화재경보기를 몇 번이나 누른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특수반에 가짜 경보기를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교 전체가 대피하거나 소방차가 그 뒤에 윙윙대는 앰블런스를 데리고 도착하는 불상사가 다시는 생기지 않게 할 수 있었다. 또한 커윈은 항상 포고스틱이라 불리는 용

1) 럼프(lump)에는 ‘바보’라는 뜻이 있다. 클럼프(Klump)와 럼프(lump)는 발음이 유사해서 여기서는 말장난으로 사용됨

수철 장난감을 타고 있는 것처럼 위 아래로 뛰어다니며 “나는 나빠. 나는 나빠” 하고 중얼거리곤 했다.

아니, 나는 커윈과는 다르다. 나에게서는 기분좋은 날도 있다. 어떤 날 아침에 눈을 뜨면 마음이 잔잔한 물결처럼 평온할 때가 있다. 그러면 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바닥에 발을 내딛고는 졸린 걸음으로 화장실에 가서 따뜻한 물로 기분 좋은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고 말리고 옷을 챙겨 입고, 아침을 먹고, 또 그러는 중에 오늘 하루 무얼 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멋진 일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해내면 예를 들면 책을 읽는다거나 친구를 만나는 것 혹은 하워드 선생님께 뭔가 좋은 말을 건네는 것, 시를 쓰는 것 등의 내가 하고 싶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진짜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내게 정말 대단한 일이다.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행한다. 남들은 모두 매일 이런 식으로 생활하겠지만, 나는 대개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못한다. 대개 나는 핀볼 게임에서의 볼처럼 머리 속에서 용수철이 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아침에 눈을 뜬다. 그리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곧장 부엌으로 직행한 다음 음식을 찾아 날라 다니다가 토스트 몇 조각을 훑 낚아채고는 의자가 마치 불 켜진 범퍼인 것처럼 마구 부딪쳐가며 복도로 내달려가서는 화장실로 가서 양치질을 한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치아가 아닌 입술과 턱을 문질러 대곤 한다. 그런 다음 문을 박차고 거실을 가로질러 구에 이리저리 부딪쳐 뛰어다닐 때쯤 엄마는 나를 붙잡고는 내 얼굴에 범벅이 된 치약을 닦아주신 다음 나에게 약을 먹인다. 그리고 나서 엄마는 내 머리를 감싸고 내 얼굴을 엄마의 부드러운 품안에 안으신다. 나를 그렇게 몇 분 동안 가만히 안고만 계신다. 만약 약이 효과가 있으면 나는 정말 암전해진다. 내가 엄마 품에서 얼굴을

들어 엄마를 올려다보면 엄마는 내게 미소를 지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다. 그리고 엄마가 기분이 좋으면 우리는 함께 큰소리로 웃기 시작한다. 내가 불과 몇 분 사이에 정신없는 리코체트 토끼새끼에서 안전한 찰리 브라운으로 바뀌는 것이 너무 우습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를 참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나는 엄마가 나를 이처럼 구출해 줄 때와 약이 효과가 있을 때, 학교에 가서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을 때가 너무 좋다. 그리고 친구들이 정서불안 라고 놀리지 않을 때도 선생님이 수업이 다 끝난 후에 내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참 잘했어요’ 스티커를 주고 칭찬을 해 줄 때도 너무 좋다. 엄마가 집에 돌아오시면 나는 오늘 하루동안 얼마나 착한 어린이였는지를 엄마에게 말해준다. 그러면 엄마는 미소를 지어준다. 나는 점점 신이 나서 떠들어대고, 냉큼 달려가서 엄마에게 아마레토를 타다 드리면 엄마는 연신 미소를 짓고 또 짓는다. 그러면서 나를 엄마의 사랑스러운 천재아들, 엄청똑똑이 친구라고 부르면 우리는 또 함께 커다랗게 웃곤 한다.

6. 년 누구지?

그날은 하루가 아주 멋지게 시작되었다. 모든 4, 5학년 학생들이 애미쉬 농장으로 현장학습을 떠났다. 대략 100명 가량의 학생들이 두대의 아주 큰 오렌지색 버스에 나누어서 탔다. 아침에 먹은 약이 효과가 있었고, 게다가 창가 쪽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썩썩 달리는 자동차와 멀어져 가는 집들, 들판을 바라보는 것이 무척 즐거웠다. 맥시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을 챙기느라 바쁠 때 나는 무릎을 꿇고 자리에서 일어나 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바람이 머리를 세차게

훑고 지나가자 머릿속이 차분해 지는 것을 느꼈다. 개처럼 창밖에 머리를 쭉 빼놓고 창 밖을 바라보던 그 순간이 그날 내 하루 중 가장 멋진 순간이었다.

우리가 버스에서 내리자 맥시 선생님과 딥스 선생님 그리고 두 명의 다른 선생님과 한 무리의 엄마들이 우리를 정렬시켰다. 그리고 맥시 선생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른 문화를 존중해야한다. 그러니 놀려서도 안되고, 깔깔대며 웃어도 안되고, 불쾌한 말을 해도 안되고, 버스에 그냥 남아있어도 안 된다, 알아들었겠지?” 라고 훈계하셨다. 우리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할 수도 있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아직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게 될지 예측할 수는 없었다. 선생님의 당부말씀이 끝나자 우리는 인간 개미떼처럼 줄지어서 농장으로 걸어갔다.

“멈춰라.” 우리가 농장 앞에 이르자 딥스 선생님이 외쳤다. 딥스 선생님이 “멈춰라”하고 말하면 정말 멈추는 게 상책이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은 아주 짧게 자른 머리 모양을 하고 정말 뚱뚱한 몸에 커다란 머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딥스 선생님이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일 때마다 나는 선생님의 머리가 언덕을 굴러 내리는 둥근 돌처럼 경사진 어깨위로 미끄러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긴 푸른 원피스와 풀 먹인 흰 앞치마를 깔끔하게 차려입은 두 명의 애미쉬 소녀들이 나와서는 “환영합니다. 우리 애미쉬들은 랭카스터 카운티에서 17세기 이래로 쭉 살아왔어요. 우리들은 과거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랍니다. 저희를 따라 들어오셔서 우리들이 소박하게 살아가는 모습도 보시고 공예품과 요리도 구경하세요.” 라고 말했다.

잠깐동안 나는 만약 내가 할머니랑 함께 살고있을 때 아이들이 우리 집에 현장학습을 왔었다면 얼마나 웃겼을까하는 생각을 해봤다. 할머니랑 내가 현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어서 오세요. 우리 집은 방금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어서 들어와서 저희가 노는 것처럼 맘껏 놀아보세요!”

애미쉬 소녀들은 우리를 현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현관 쪽에는 흔들의자가 주욱 놓여져 있었는데 나는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흔들의자에 유령가족이 앉아 있기라도 하는 듯 차례로 의자를 흔들며 돌아다녔다. 어떤 엄마가 나를 찌려보며 원래 줄인 맨 끝으로 돌아가라고 손짓을 했다.

마침내, 나는 집안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다. 큰 방 한쪽에는 머리에 머리수건을 쓴 나이든 아줌마들이 앉아있었다. 그 사람들은 마치 비온 뒤 돌아난 버섯들처럼 한데 모여서는 가운데 커다란 해바라기모양 별이 수놓아진 큰 켈트를 손으로 만들고 있었다. 다음 방에는 더 많은 아줌마들이 용단을 짜고 바늘로 레이스를 뜨고 있었다. 엄마들은 마치 불꽃놀이라도 보는 것처럼 감탄사를 연발했지만 내 귀에는 아무 것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복도 밑에서 올라오는 정말로 달콤하고 맛있는 냄새를 한번 맡고는 어떤 것에도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었다. 우리는 그 외에도 몇 개의 방을 더 방문했지만 나는 애미쉬사람들이 카드놀이를 하든 수업을 깎든 도무지 관심이 생기질 않았다. 눈에는 멍하니 눈물이 고였고 달콤한 냄새 때문에 나는 좀비처럼 비틀거렸다.

애미쉬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매우 예의바르지만 매우 따분한 질문과 답변들이 여러 번 오간 뒤에 한 애미쉬 소녀가 우리를 복도 아래쪽의 아주 커다란 부엌으로 안내했다. 그러자 달콤한 냄새는 점

점 너무나 강해져서 내 콧구멍은 점점 부풀어 커지는 것 같았다. 나는 코가 피노키오 코처럼 너무 크게 자라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코를 만져보았다. 다행히도 코는 그대로였다. 하지만 정말 그 냄새는 너무나 달콤해서 더 많이 들며 마시려고 공기를 먹어치우듯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 전형적인 애미쉬 부엌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음식은 천연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거랍니다.” 애미쉬 소녀가 말했다. “우리는 버터와 치즈를 만들고 빵과 비스킷, 잼 그리고 젤리도 만들어요. 하지만 특히 당밀로 만든 슈플라이 파이²⁾로 유명하지요.”

맨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귀를 의심했다. “신발과 파리와 당밀로 만든 파이라고?” 나는 놀라 세스에게 물었다.

“분명 무지 맛있을 거야.” 세스가 말했다. “넌 파리를 좀 더 없애주라고 그래라.”

“응.” 이렇게 대답한 나는 그 파이에만 온통 정신이 쏠려서 소녀가 설명하는 애미쉬 요리 비법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파이가 신발과 파리로 만들어 졌다는 생각은 나를 몹시 놀라게 했다. 그리고 사실, 파이가 땀에 절은 양말로 만들어졌건, 꾸물거리는 벌레로 만들어졌건 이렇게 달콤한 냄새가 난다면 난 전혀 개의치 않고 먹을 자신이 있었다. 부엌에서 그렇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달콤한 냄새에 취해 머리가 어지러웠다. 나는 시험삼아 두 눈을 감고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가 세스 쪽으로 비틀거리며 기대자 세스가 나를 떠밀고는 바보라고 불렀기 때문에 곧바로 눈을 번쩍 떠야만 했다. 내가 정신을 차리자 딥스 선생님이 “자, 여러분. 정원과 헛간을

2) 슈플라이 파이(shoofly pie)의 발음이 슈플라이(shoefly)와 비슷해서 조이는 파이가 신발(shoe)과 파리(fly)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함.

구경가기 전에 슈플라이 파이를 조금씩 시식해 볼 테니까 줄을 서도록 해요.”라고 말하셨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나는 온통 신발과 파리 생각뿐이었다. 내가 서 있던 뒤쪽 줄에서 보니, 먼저 파이를 먹은 애들 중에서 아무도 파이를 뱉어내지 않은 것으로 보아 파이 맛이 괜찮은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애미쉬 소녀들이 과연 어떤 신발을 신고 있나 보기 위해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아마도 내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신발을 신고 있을지도 몰랐다. 어쩌면 그 애들이 신고 있는 신발은 감초나 얼음사탕으로 만들어졌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애미쉬 소녀들의 치마가 너무 길어서 나는 그 애들이 신고 있는 신발을 볼 수가 없었다. 그러자 어떤 엄마가 내가 마치 그 소녀들의 치마 속을 들여다 보기라도 했다는 듯이 날 엄하게 쳐다보고는 내 셔츠 뒤를 잡아 당기셨다.



“예의를 지켜야지, 이 꼬마 양반아.” 그 엄마가 눈꼬리를 치켜들며 말했다.

“저는 그냥 좀 살펴보려고 한 것뿐이에요.” 내가 대꾸했다.

내 차례가 다가오자, 맥시 선생님이 나를 한쪽으로 부르시더니 속삭였다. “조이야, 저 파이는 너한테 해로운 거야.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갔거든. 그러니 넌 그냥 과일이나 먹는 편이 낫겠구나.”

선생님은 내 얼굴에 떠오른 실망스러운 표정을 봤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표정을 정말 숨길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내 얼굴 전체가 신문지처럼 구겨졌다. 그러더니 선생님은 손을 내밀어 흰 냅킨조각에 싸인, 이미 한쪽이 갈색으로 변한 사과 한 조각을 나에게 건네주었다.

“계피가루가 뿌려진 거야.” 선생님이 말했다. “맛이 매우 좋을 거

다.”

“이거 먹기 싫어요.” 내가 대답했다. “슈플라이 파이 먹을래요.”

“이런 일로 괜히 소란 일으키지 마라.” 맥시 선생님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한테 제일 좋은 걸 해주려는 거야.”

파이를 다 먹은 아이들이 뒷문에 몰려 서서 우왕좌왕하며 우리 쪽을 쳐다보자 선생님은 더 이상 이것 때문에 나와 실랑이를 벌이고 싶어하지 않아 했다.

“자, 계속 가거라.”?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했다. “파이를 다 먹었으면 호박이 심어져 있는 정원으로 가서 조각을....”

선생님은 내 앞에서 무엇인가 말해서는 안되는 것을 말한 듯 기서 입을 다무셨다. 마치 어른들이 철자를 말 할 줄 모르는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비밀로 하고 싶을 때 철자를 하나 하나 따로 떼어서 말하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사과 조각을 내 뒷 주머니에 집어넣고 왜 선생님이 조각하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말하기를 꺼려하는지 궁금해했다.

그 이유는 곧 밝혀졌다. 몇 분 후에 우리 모두는 호박밭으로 이동해서 덩굴에서 작은 호박을 따다. 애미쉬 소녀들이 나무손잡이가 달린 조각도구를 나누어주자 아이들은 모두 각자의 엄마와 함께 소풍용 탁자 앞에 자리를 잡았다.

나도 애미쉬 소녀한테 달려가서 조각칼을 받아왔다. 그렇지만 맥시 선생님이 곧바로 나에게 다가오셨다.

“조이야, 넌 그 조각칼을 가져서는 안돼.” 선생님이 말했다. “위험하단다.”

나는 조각칼을 내려다보았다. 칼날은 뭉툭했고 일인치 정도 되어 보였으며 전혀 날카롭지 않았다. 칼이라기 보다는 어린이용 안전가

위 같아 보였다.

“위험하지 않아요.” 내가 말했다. “게다가, 우리 엄마는 내가 빵이나 다른 것들을 자르는 것도 시켰단 말이에요.”

“네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일 뿐이야.” 선생님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호박에다 조각할 꺼예요.” 내가 말했다.

“조각하는 대신 호박 위에 그림을 그리렴.” 선생님이 검은 사인펜을 건네주며 제안하셨다. “그리고 나서 조각은 나중에 하자구나. 약속할게.”

“지금 다른 애들이랑 같이 할래요.” 이렇게 말하고는 등뒤로 조각칼을 숨겼다.

“나중에 하도록 하자.” 맥시 선생님이 말했다. “엄마들이 모두 다른 아이들을 돕느라고 바쁘시잖니.”

“지금 할 꺼예요!” 나는 소리를 지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갑자기 세상 어떤 것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막지는 못하리라는 것처럼 내 몸 전체에 에너지가 끓어올랐다.

“칼 이리 내렴.” 선생님이 손을 내밀며 명령하셨다.

“싫어요.” 나는 뒤로 물러서며 칼을 호박밭쪽으로 가능 한한 멀리 던져버렸다.

“이쯤에서 넌 버스로 돌아가 좀 쉬도록 하는 게 낫겠구나.” 날 상대하는데 지쳤다는 듯 선생님이 말했다. “만약 10분 동안 가만히 앉아 있는다면 다시 돌아와서 호박 위에 그림을 그려도 좋아.”

“다른 애들은 다들 호박에다 조각을 하잖아요.” 뭉툭한 꼬마 조각칼을 가지고 호박에 커다란 눈과 입을 파내느라 바쁜 다른 애들을 가리키며 내가 말했다.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야.” 그리고는 선생님은 집 앞에 세워진 버스를 가리키셨다. “자 이제 착한 어린이가 돼야지. 어서 버스로 가거라. 선생님이 여기서 지켜 볼 꺼야. 헛간으로 이동할 때 선생님이 다시 데리러 갈게.”

나는 돌아서서 농가 옆쪽으로 쿵쿵거리며 뛰어갔다. 한순간 이대로 쪽 집까지 걸어가서는 집에 있는 내 조각칼로 호박 위에다 조각을 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맥시 선생님이 내 뒤를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았다. 창문을 지나치려 하자 그 달콤한 파이 냄새를 다시 맡을 수 있었다. 뒤를 돌아보니 어떤 애가 맥시선생님의 소매를 붙잡아 끌며 얘기를 하고있었다. 그래서 나는 집이나 버스로 가는 대신에 농장의 앞문으로 살금살금 들어갔다. 부엌 쪽으로 쩍썩 내려갈 때 흘깃 보니 쿨트를 짜고 있는 아줌마들은 여전히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애미쉬 소녀들은 정원에 나가 있었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그냥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에 탁자 위에 놓여진 슈플라이 파이를 몽땅 움켜쥐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미처 깨닫기도 전에 나는 일분에 일 마일이나 달릴 만큼 빠르게 옆문을 열고는 헛간 너머에 있는 옥수수 밭으로 내달렸다. 나는 낮게 몸을 구부리고 키 큰 옥수수줄기가 심어진 고랑 사이로 주변에 옥수수 말고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은 곳까지 계속 달려갔다. 나는 자리에 앉아서 손가락이 칼인 것처럼 파이의 갈색 껍질 속에 폭 집어넣고는 할로윈 호박 전등을 만들 때처럼 얼굴을 그렸다. 그리고는 손가락을 빼내서는 활아 먹었다.

무척이나 달콤했다. 던킨 도너츠에서 먹었던 작은 설탕조각만큼이나, 아니 그것보다 더 달콤했다. 엄마가 잠시 선반에서 내놓았을

때 병째로 마셨던 로그 캐빈 팬케익 시럽이랑 비슷했다. 그리고 파이는 시럽처럼 흘러내릴 정도로 물렀다. 학교 식당에서 파는 체리 파이처럼 딱딱하진 않았다. 우선 나는 맨 위 껍데기를 떼어내서 먼저 먹어치운 다음 그 안에 신발이나 파리가 들어있지 않나 찾아내려 손가락을 집어넣고 휘저었다. 하지만 그냥 당밀 덩어리일 뿐이었다. 속은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왜 그런지 알 수는 없었다. 나는 계속해서 구부린 두 손가락을 파이 속에 집어넣었다가 입에 가져가 빨았다. 파이를 더 많이 먹을수록 더 빨리 파이를 먹고 싶어졌다. 다른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손가락과 입술에 붙은 진짜 파리도 내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옥수수 대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나 호박에 조각을 하는 아이들의 떠들썩한 목소리도 상관이 없었다. 아무 것도 중요치 않았다. 그저 파이를 먹어대며, 입안 가득 따뜻한 설탕시럽이 고여서 흐느적거리는 설탕으로 된 뱀처럼 내 배 위로 흘러내리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파이를 거의 다 먹어치우자 고개를 뒤로 젖힌 채 파이 그릇을 반쯤 기울여 마지막 남은 파이 가루를 몽땅 내 입에 털어 넣었다. 그리고는 마치 개처럼 그릇을 핥았다. 그래서 내가 파이를 다 먹어 치웠을 때는 이미 내 정신은 엉망이 되고, 다리는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전세계를 뛰어다닐 준비가 되어 있었다.

머릿속에는 밤에 정규 방송 시간이 끝났을 때 TV에서 나는 지직거리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고요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또한 매우 시끄러운 고요였다. 그것은 말소리가 아니었다. 젖은 도로에 타이어가 미끄러져 질주하며 나에게 달려오는 듯한 소리가 점점 커다랗게 들려왔다. 내 눈은 울렁거리는 머리 속에 가득 흘러 넘치는 에너지로 너무나 부풀어올라서 양 볼의 볼록 솟은 부분과 코가

있는 부분의 흐릿한 윤곽과 그 아래 부분의 흐릿한 부분만을 볼 수 있었다. 내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자, 공기는 폐 속으로 세차게 들어와서는 나를 붕 뜨게 만들었다. 갑자기 나는 옥수수 줄기에 이리저리 부딪치며 달리기 시작했다. 마치 비행기 날개처럼 양팔을 벌리고 달렸다. 길고 구부러진 옥수수 잎사귀에 피부가 베였지만 쓰라린 것도 느끼지 못했다. 내 발이 땅위에 닿는지조차 느끼지 못했다. 앞으로 쿵하고 넘어져서 옥수수 대와 흙더미 위에 꼬꾸라졌지만 아픈 것도 느끼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 계속 달렸다. 나는 너무나 빠르게 달리고 있었고 너무나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내 몸이 옥수수 밭 위로 붕 떠올라 파란 하늘 위로, 하얀 구름 사이로 점점 높게 올라가서 농장이랑 버스, 친구들 그리고 맥시 선생님이 날 보고 놀래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속도를 줄이기도 전에 나는 어느 새 옥수수 밭을 벗어나 문이 활짝 열린 헛간으로 달려갔다. 내가 스스로에게 “자, 저기 사다리가 보이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 한 것은 아니었다. 아니, 나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스스로가 미처 알아채기도 전에 사다리를 오르고 있었다. 커다란 목재 사다리 높이 올라가서 다시 기울어진 들보로 미끄러져 내려갔다가 다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식으로 코코넛 나무에 매달린 원숭이처럼 미친 듯이 이리저리 오르락 내리락거리며 돌아다녔다. 내 태업은 너무나 짝 감겨있었기 때문에 미로 속에 갇힌 쥐처럼 아무 것도 느끼지 못하고 내 자신이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은 채 그저 계속해서 더 높이, 더 빨리, 위로, 위로, 위로 올라갔다. 마침내 눈앞에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었다. 지붕에는 어두운 눈

과 갈고리 모양의 부리를 가진 커다란 흰올빼미 한 마리가 앉아있었다. 나는 멈춰 섰다.

“넌 누구지?” 올빼미가 물었다. “누구야?”

그러자 내가 대답했다. “조이 피그자. 난 조이 피그자야.”

“누구라고?” 올빼미는 다시 묻고는 내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마치 누군가가 나에게 왜 파이를 먹어 치웠는지, 왜 헛간 안에까지 들어온 것인지를 추궁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자 내가 미처 알아채기도 전에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내 몸 속에 있던 모든 에너지가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가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턱을 무릎 위에 고이고는 가능한 한 움직이지 않고 서까래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꽤 높이 올라와 있었고 저 밑에는 개미만큼 작게 보이는 사, 오학년 학생들이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중 한 명이 내 이름을 크게 부르고 있었다. 바로 맥시 선생님이셨다.

“조이야!” 선생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마치 무슨 큰 일이라도 벌어진 것처럼 머리 위로 손을 흔들고 있었다. “조이야,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우리가 올라갈게.”

그러자 몇 분 후에 내가 이제껏 본 것 중에서 가장 큰 사다리가 말이 끄는 수레에 실려와서 높다랗게 세워졌다. 그리고 마치 애미쉬 사람들의 산타처럼 생긴 커다란 검은 모자를 쓰고 기다란 흰 수염이 난 할아버지가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했다.

“애야, 아무 걱정 말거라.” 할아버지가 소리쳤다. “그냥 가만히 있으렴. 그 올빼미는 물지 않는 녀석이니까 겁내지 말고.”

“나도 물지 않는다고요.” 머리 속에서 어렴사리 단어들을 짜내어 대답했다. 나는 두 발로 벌떡 일어서서는 커다란 들보 위를 걷기 시

작했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자그마하게 보였다. 모두들 나에게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렇지만 나는 앉아 있고 싶지 않았다. 정말로 앉아 있고 싶지 않았다. 나는 커다란 천장 위를 가로질러 밑바닥에 건초더미가 쌓여 있는 곳까지 걸어갔다. 나는 이제까지 수 백 편도 넘는 영화에서 아이들이 건초 더미 위로 뛰어내려서 멀쩡하게 다시 벌떡 일어나 악당으로부터 도망치는 장면을 보아온 터였다. 그래서 건초더미위로 뛰어내리는 것이 스텐트맨 놀이를 하는 것이나 아니면 낙엽위로 몸을 던지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나는 “제-로-니-모!”하고 외치면서 건초위로 몸을 날렸다.

가장 멋진 순간은 바로 공중에 떠 있던 순간이었다. 나는 머리로 착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치 홀라춤을 추듯이 몸을 꾸물거려댔다. 그 결과 내 발이 먼저 건초더미 위에 닿았다. 영화 속에서 보여줬던 것과는 달리 전혀 폭신폭신했지 않았다. 너무 딱딱해서 내가 건초 위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것이 내 위로 떨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낙엽이나 뭐 그런 폭신했던 것 위로 떨어진 것 같지가 않았다. 오히려 커다란 바늘 방석위로 떨어진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그 위를 뛰어 오를 때마다 백 번도 넘게 바늘로 콕콕 찔러대는 듯 했다. 하지만 바늘로 찔러대는 느낌은 내가 바로 일어서려고 했을 때 느꼈던 발목 통증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었다. 발목을 뺀 것이 분명했다. 일어서서 도망가는 대신에 나는 엉금엉금 기었다. 그때 또 다른 나이든 농부 아저씨가 내게 다가왔다. “그 애를 찾았어요.” 내가 있는 쪽으로 달려오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 아저씨가 소리쳤다.

“조이야!” 맥시 선생님이 헐레벌떡 뛰어오셨다. “도대체 어찌된

일이니?” 그리고 나서 아마도 선생님은 내 얼굴과 셔츠에 범벅이 된 당밀 가루를 보셨음에 틀림없다. 그리고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 하셨다. 선생님은 처음엔 화난 표정을 지었지만 농부아저씨가 날 바로 세웠을 때 발목의 통증 때문에 내가 한쪽으로 기우뚱하자 선생님은 다시 걱정스런 표정을 지으셨다.

“어디 발목 좀 보자구나.” 선생님은 떨리는 손으로 내 신발을 벗기셨다. 발목이 약간 부어 있어서 선생님이 만지자 아팠다. 발목은 평상시보다 더 노랗게 보였다.

“세상에.” 선생님은 한숨을 내쉬며 부러진 발목뼈를 만져보셨다. “이를 어쩐다지.”

“일부러 다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그냥 건초 위로 뛰어내리려고 한 것 뿐인데.”

“그래, 안다.” 선생님이 대답하셨다. “문제는 항상 네가 의도하는 것과 실제로 너나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거지.”

고개를 들어보니 마리아 돔브로스키가 수첩 위에 내 이름을 적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맥시 선생님이 전에 마리아에게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이름을 적어놓으라고 시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들, 선생님이건 학부모이건 애미쉬 사람들이건 마치 내가 동물원 우리 안에 갇힌 동물이라도 된 듯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난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선생님 손에서 발을 빼내서 똑바로 서 보였다. “하지만 이 신발은 더 이상 내 발에 맞는 것 같지 않으니까 원한다면 파이 만드는데 사용해도 좋아요.” 내가 애미쉬 소녀들에게 이렇게 말하자 그 애들은 입을 가리고 킥킥

웃었다. 그러자 모두들 소리내서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맥시 선생님은 웃지 않으셨다. 아마도 선생님은 내 농담을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았다.

7. 특별한 아이

오전에 맥시 선생님은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반 수업은 애덤스 선생님이라는 분이 대신 맡아 주셨다. 물론 애덤스 선생님은 나에게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이것은 한 눈을 팔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다. 왜냐하면 현장학습 사건 이후 맥시 선생님은, 선생님과 나, 하워드 선생님, 교장선생님 그리고 우리 엄마, 간호 선생님이 함께 모여서 내 “앞날”에 관한 중요한 모임을 가질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 “앞날”이란게 단순히 내 발목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었다. 확실히 내 발목 때문만은 아니었다.

하지만 맥시 선생님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더 이상 걱정하지 않기로 했다. 나의 흥미를 끄는 새로운 일들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애덤스 선생님이 출석을 부른 직후에 스피커에서 특별 교육 프로그램에 속한 학생들은 특별 강연이 있으니 강당으로 모이라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몇몇 아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나도 일어나 뒤를 따라나갔다. 마리아가 맨 처음에 나갔고 나는 맨 나중에 따라 나갔기 때문에 그 애는 나를 보지 못했다. 안 그랬으면 틀림없이 내가 일어나 따라나선 것을 또 고자질했을 것이다.

교장 선생님은 어제 일로 화가 나 있으셨기 때문에 나를 본다면

아마도 나를 하워드 선생님 교실로 내려보낼게 틀림없었다. 그래서 강당 정식 입구로 들어가는 대신, 무대 뒤로 연결된 옆문으로 들어갔다. 커다란 벨벳으로 만들어진 커튼 주름 사이에 숨는 것을 좋아했던 나는 전에도 강당에 들어간 적이 있었다. 누에고치 속의 유충처럼 부드러운 파란 벨벳에 감싸인채 영원히 거기 서 있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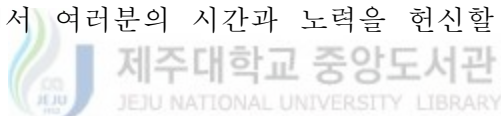
그래서 나는 무대 뒤쪽으로 살금살금 걸어가 커튼 주름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간 뒤 먼지 묻은 벨벳천이 내 코를 간질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이윽고 교장선생님이 콜 부인을 소개하셨다. 그 분은 “좋은 성품은 중요하다.”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 제목은 교장선생님이 가장 인용하기 좋아하는 표어이기도 했다. 교장선생님은 콜 부인에게 그 자리에 모인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소개하시며 모두들 매우 특별한 아이들이라고 말하셨다. “소수의 정예부대.” 교장선생님은 그 애들을 그렇게 부르셨다.

콜 부인은 매우 기뻐하면서 텔레비전에 나온 연설가처럼 아주 크고 열정적인 목소리로 강연을 시작하셨다. “특별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해야만 해요.” 콜 부인이 단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이야말로 특출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완수해야만 하는 위대한 임무중의 하나이지요.”

그 분은 나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물론 내가 재능이 뛰어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 결코 아니다. 하지만 내가 그 특별한 사람들 중의 한 명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우리 엄마도 나더러 특별하다고 했고 양호 선생님도 나더러 특별하다고 했다. 게다가 나는 특수반에서 공부도 하고 있다. 나는 콜

부인이 하는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열심히 들었고, 그 내용은 모두 다 내 마음에 꼭 들었다. 우리는 특별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재능과 열정을 전세계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마치 어마어마한 비밀을 말해주거나 하는 듯 콜 부인은 짐짓 심각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 강당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컴퓨터 같은 것을 발명해 낼 수도 있고, 에이즈 치료약을 개발해내서 수 백만 명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겠지요. 혹은 테레사 수녀님처럼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돕는데 자신의 일생을 바칠 수도 있을 테구요. 아니면 대통령이 되어서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주는 좋은 모범이 될 수도 있을 테고,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헌신할 수도 있을 겁니다.”



콜 부인은 계속해서 특별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해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만약 우리 하나 하나가 세상의 긍정적인 구성원으로 살기를 마음먹는다면 틀림없이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한 사람의 자그마한 행동 하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랍니다.” 콜 부인이 말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도 오늘부터 친구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것 한가지씩을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강연이 끝나자 모두들 박수를 쳤다. 나는 감히 박수칠 상황이 아니어서 아주 빠르게 눈을 깜박거리는 것으로 몰래박수를 보냈다. 콜 부인이 말씀하신 것은 전부 다 옳은 말이었다. 나는 나, 조이 피그자로 인해서 세상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남은 오후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보았다.

강연은 끝났지만 교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발목부상을 살펴보기도 할 겸 절름거리며 양호실로 내려갔다. 오랫동안 커튼 속에 서있어서 그런지 발목이 욱신거리고 아팠다. 크게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발목이 쭈시는 느낌은 양호 선생님을 만날 핑계거리가 되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양호 선생님은 나를 보면 언제나 기뻐하셨다.

나는 한 쪽 발에는 보통 신발을 신고 있었고 뺨 다른 한 쪽 발에는 하워드 선생님이 주신 토끼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양호 선생님은 내 발목을 보시고는 꼭 쥐었다가 놓고는 앞뒤로 가볍게 두드려 보셨다. “크게 다친 건 아니구나.” 장난스레 내 턱을 치는 시늉을 하시며 선생님이 말했다. “열쇠 삼킨 것보다는 덜 위험한걸.”

“발목을 삼키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내가 장난스레 대답했다.

“세상에, 제발 그런 일은 없길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선생님은 웃음을 터뜨리셨다.

“발목을 삼키면 열쇠처럼 자연적으로 배설되지는 않을 테니까 말아야.” 그리고 나서 양호 선생님은 캐비닛에서 붕대를 꺼내서 내 발목을 단단히 묶어주셨다. 욱신거리는 느낌이 훨씬 덜했다. “이 붕대는 가져도 좋아.”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신난다.“ 내가 말했다. ”할로윈날 미라 분장할 때 사용하고 싶었거든요. 더 있나요?“

“오래된 붕대가 좀 있긴 하지.” 선생님이 말했다. “하지만 미라 분장하기 전에 네 발목부터 낫게 해야지, 그렇지?”

“네” 나는 선생님 말씀에 동의했다. 나는 동의하는 것을 무척 좋

아한다. 또한 나는 양호선생님을 무척 좋아하고 선생님이 특별한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껏속말로 내가 특별 아동을 위한 강연회에 몰래 숨어 들어갔다는 말을 해드렸다. “그리고 콜 부인이 오늘 아주 좋은 일 한가지씩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삭였다.

“그래? 아주 훌륭한 생각이구나.” 양호 선생님도 속삭이는 목소리로 대답하셨다. “특별히 생각해 둔 일이 있니?”

“계속 생각 중이에요.”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곧 떠오를 거예요.”

“그렇다면 잘 생각해보렴.” 선생님이 말했다.

“네.” 내가 일어서면서 대답했다. 발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비틀지 않고 똑바로 걸으면 그다지 아프지 않았다.

“나중에 보자구나.” 양호 선생님이 말했다.

점심을 먹은 후 운동장에 나가 노는 대신에 나는 교실로 들어왔다. 무언가를 먹으면 항상 그렇듯이 약 기운이 없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정리해 보고 싶었다.

맥시 선생님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작성하고 계셨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내가 말했다. “아침시간은 잘 보내셨나요?”

“그래, 조이야.” 선생님이 대답하셨다. “발목은 좀 어떠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혹시 선생님 서랍 속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나요?” 내가 물었다.

“물론 발견했지.”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다. 나도 턱을 우쭐하게 내밀며 선생님께 미소지었다.

“누군가 선생님을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 서랍 속에 시나몬 애플파이 조각을 넣어 두었던걸.”

“그 착한 아이가 누군지 혹시 아시겠어요?”

“물론이지. 그 아이는 틀림없이 오후 내내 아주 얌전히 행동할거야.”

“저도 그럴 거라 믿어요.” 내가 대답했다.

“있잖니. 그 얘기를 또 꺼내야만 할 것 같은데 말이다.” 여전히 미소를 지은 채 선생님이 말을 이었다. “어제 넌 선생님이 전에 했던 그 얘기들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처럼 보이더구나.”

“네, 하지만 전 이제 변했어요. 아까 특별아동을 위한 강연회에 몰래 숨어들어 갔었는데요. 그걸 듣고 이제 전 세계에 도움이 되는 멋진 일을 하려고 해요.”

“몰래 숨어 들어갔다는 말을 들으니 내가 변했다는 말은 전혀 믿을 수가 없구나.” 선생님이 대답하셨다.

“하지만 그건 그냥 사소한 규칙을 어긴 것뿐이에요.” 내가 대답했다. “이제 저는 세상을 위해서 뭔가 아주 대단한 일을 할꺼예요.”

“그래?” 선생님이 물었다. “어떤 일을 할건데?”

“‘증오는 가족적 가치가 아니다’ 라는 범퍼 스티커를 수 백 만장 만들꺼예요. 전에 엄마가 그 스티커를 직장에서 보셨는데요. 스티커를 세상 모든 자동차에 다 붙일 수 있게 수 백 만장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 그것 참 좋은 생각이구나.” 선생님이 말했다. “하지만 네가 사람들 차에 직접 붙여서는 안될 것 같은데 말이야.”

제가 안 붙일꺼예요.” 내가 대답했다. “우리 엄마가 붙일꺼예요. 이제 가서 만들기 시작해야겠어요. 다른 친구들이 곧 교실로 돌아올

테니까요.”

“그러렴. 교실 뒤쪽에 가서 미술용품을 사용해서 만들어보거라.”
선생님이 말했다. “열심히만 한다면 제 시간에 수 백 만장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교실 뒤쪽으로 가서 두꺼운 종이 한 장을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그 위에 공들여 널찍하게 줄을 여러 개 긋고는 줄 위에 큰 글씨로 범퍼스티커 표어를 써넣었다. 나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데이-글로 매직펜을 사용해서 ‘중오’라는 글자 테두리를 두껍게 덧칠했다. 글자를 다 써넣고는 종이를 머리 위로 번쩍 집어 들고 외쳤다. “맥시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선생님은 하던 일을 멈추고 내가 흔드는 종이를 보고는 잘했다는 표시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워 보였다. 그리고 나서는 나에게 왕크를 하시며 미소지었다. 내가 좀 못 말리긴 해도 매우 특별하고 영리한 것임에 틀림없다. 모두들 그렇게 말하곤 했기 때문이다.

“참 잘 만들었구나.” 선생님이 말했다. “아주 잘했다. 조이야.” 아주 잘했다, 조이야, 라는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너무나 듣기에 좋았기 때문에 그 말 이외에 다른 말이 머릿속에 다시는 끼어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는. 그냥 그 세 마디, 아주 잘했다, 조이야. 그 말이면 되었다.

그러다 갑자기 나는 빨리 이 일을 끝마쳐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안전가위를 집어 들고 두꺼운 종이를 범퍼스티커 크기의 조각으로 잘라 내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두꺼운 종이가 너무나 두툼해서 가위가 잘 물리지 않고 자꾸만 옆으로 기우뚱거렸다. 게다가 내가 더 짹 쥐면 쥘수록 손가락만 더 아파 왔다.

이윽고 종이 울리자, 아이들이 교실로 우르르 몰려 들어왔다. 나

는 되도록 빨리 범퍼스티커를 오려내고 싶었다. 그래서 맥시 선생님이 아이들이 뛰지 못하게 하려고 복도로 나가시자, 나는 몰래 선생님 책상에 가서 첫 번째 서랍 속에서 내 것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선생님용 가위를 꺼내들었다.

그 가위를 손에 쥐고 범퍼스티커를 잘라내기 위해 교실 뒤쪽으로 달려가는 찰나에 바로 그 사건이 터졌다. 나는 그 바보 같은 토끼슬리퍼의 한쪽 귀에 걸려 거대한 새의 뾰족한 부리처럼 가위를 앞으로 짹 펼쳐 쥔 채 휘청거렸다. 바로 그 순간 마리아 돔브로스키가 안전 수비병처럼 내 옆을 지나가며 “좀 천천히 다녀”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내 손이 마리아의 옆얼굴과 충돌한 순간 나는 그대로 앞으로 꼬꾸라졌다.

나는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생각했다. 비명소리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온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아니었다. 나는 벌떡 일어났으며 한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세상에, 그 엄청난 피를 다들 봐야만 했다. 마치 파이프가 터진 것 같았다. 잘려진 마리아의 코끝에서 피가 홍수처럼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마리아는 감전되기라도 한 것처럼 눈을 크게 치켜 뜨고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울어대고 있었다. 나는 몸을 구부려 마리아의 잘려진 코끝을 주웠다. 그것은 잘려진 아주 작은 바나나 조각처럼 보였다. 나는 그것을 주워들고 마리아 코에 다시 갖다 붙여주려고 했지만 피가 샤워 기에서처럼 펄펄 뿜어져 나와서 그럴 수가 없었다. 아, 정말이지 너무나 끔찍했다. 마리아는 너무 심하게 울어대서 이제는 크게 입을 벌린 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마리아의 눈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어서 그 눈을 들여다보고 있자니 나는 마리아

보다 더 겁이 나서는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다. 맥시 선생님이 사고 소식을 듣고 교실로 허겁지겁 달려오셨다. 나는 마리아보다도, 맥시 선생님보다도 더 당황해서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고 소리질러대며 떨어진 작은 코 조각을 제자리에 다시 붙이려고 애썼다. 그렇게 하면 코가 원래대로 붙어서 피가 멈춰지거나 하듯이, 베인 자국이 말끔히 사라지거나 하듯이, 그래서 내가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범퍼스티커 만들기에 다시금 열중할 수 있게 되거나 하듯이 말이다.

맥시 선생님이 마리아 곁에서 나를 뺨 잡아떼어 놓자 내 몸은 팽이처럼 빙그르 돌았다. 나는 이 책상 저 책상을 옮겨다니며 “미안해! 미안해!”를 계속 외쳐댔다. 그리고는 맥시 선생님한테 빼앗긴 가위를 다시 집어들려고 했다. 내가 얼마나 미안해하는 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 코 전체를 베어서 마리아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맥시 선생님은 내가 가위를 집어들지 못하게 하시며 “그만두렴! 그만 두라니까! 저 쪽에 가서 있어!”하고 소리치셨다. 나는 그 순간 너무나 정신이 없어서 저 쪽이나 이 쪽 같은 것을 도통 구분할 수가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홀리필드 양호 선생님이 기다란 거즈와 흰 반창고를 가지고 와서는 코 조각을 얼음에 싸기 시작했다. 오, 그리고 나는 불에 텐 것처럼 안절부절못하며 뛰어다녔다. 이윽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교장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자신의 걸옷을 마리아의 어깨에 둘러주시고는 서둘러 교실에서 데리고 나갔다. 나도 그것이 끔찍한 일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모두들 마치 내가 미치광이 살인자라도 되는 듯이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기 때문에 그저 내 자리에 앉아 그 놈의 토끼 슬리퍼의 귀를 싹둑 잘라서 주머니 속에 찢러 넣고는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걸 각오하고 있었다. 그리고 진짜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맥시 선생님이 엉망진창이 된 교실을 정리하고 반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고 계실 때 교장선생님이 핏자국이 묻은 겹옷을 들고 돌아오셔서 나를 지목하셨다. “조이야, 네 물건을 다 챙겨서 나를 따라 오거라.”

나는 티셔츠 앞부분을 늘여서 그 안에다 내 물건을 담았다. “금방 돌아올게.” 나는 뒤돌아보며 반 친구들에게 말했다. 모두들 겁에 질린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곧 돌아올 거야.” 나는 울고 있었다. 눈물 때문에 앞을 잘 볼 수가 없었고 바보 같은 발목은 아파왔다. 문 모서리에 어깨를 부딪혀 어깨도 시큰거렸다. 티셔츠의 한쪽 끝을 놓치자 물건들이 바닥 위로 우르르 쏟아졌다. 내가 맥시 선생님을 쳐다보자 선생님은 그저 입술을 지그시 깨물 뿐이었다. 선생님은 내가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분명했다. 맥시 선생님은 내가 그 누구도 일부러 해치려고 한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 선생님과 눈이 마주치자 나는 말했다. “전 착한 아이예요. 단지 효과 없는 약을 먹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은 잠시 주춤하시더니 고개를 돌려 반 친구들을 보며 말했다. “자, 모두들 제자리에 앉도록 해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그리고 나서 산수문제 풀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산수문제 풀기는 내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내가 소리쳤다. 하지만 그 순간 바닥의 물건을 다 챙기신 교장선생님이 내 손을 물건 쥐듯 잡아 쥐고는 복도 아래 교장실로 끌고 가셨다.

8. 정확

“조이가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건 어찌 보면 작은 이유라고 할 수 있죠. 더 큰 문제는 다른 아동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겁니다.” 교장선생님이 꽃무늬가 그려진 크리넥스 상자를 엄마 쪽으로 밀어 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티슈 몇 장을 뽑아들었다. 최근에 엄마는 손톱 색깔을 아주 새빨간 색으로 바꿨다. 너무나 빨강기 때문에 마리아 코를 다시 붙여주려고 애쓸 때 피가 잔뜩 묻었던 내 손을 떠오르게 했다.

우리는 교장실에 앉아있었다. 교장선생님이 교실에서 나를 데리고 나온 직후부터 나는 계속 여기에 앉아있었다. 엄마가 미장원에서 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오셨다. 앞쪽에 ‘프랜’이라는 엄마이름이 새겨진 흰 색 유니폼을 입은 채였다. 엄마는 차를 빌려 타고는 굉장히 빨리 학교로 오셨는데 거의 마리아가 구급차에 실려나가자마자 도착했다. 엄마는 목에 흐르는 땀을 닦아내며 숨을 고르셨다.

“틀림없이 사고였을거예요.” 땀을 닦고 난 크리넥스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엄마가 말했다. “어차피 애들은 애들이니까요. 이런 일들은 일어나기 마련이잖아요.”

교장선생님은 크리넥스 한 장을 뽑아서 무슨 더러운 것을 집기라도 하는 듯 엄마가 올려놓은 티슈뭉치를 집어서 휴지통에 던졌다. “이 경우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지요.” 교장선생님은 나에게 관한 파일을 가볍게 두드리면서 말을 이었다. “조이는 전에도 자해를 한 적이 있고,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었어요.”

“그건 저도 압니다.” 엄마가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이 애 엄마예요. 그러니 누구보다도 조이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약간의 말썽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전부 사고였을 뿐이에요. 조이는 절대로 나쁜 아이가 아닙니다. “마리아 일 때문에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한 듯 엄마는 계속 땀을 흘리고 있었다.

“사고라고 하신 것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군요.” 교장선생님이 대답하셨다. “걱정스러운 것은 조이가 실수한 횡수입니다.” 교장선생님은 내 파일을 펼치셨다. “이번 학년에 있었던 사고들만 한번 짚어 보도록 하죠.”

“그만 두세요.” 미장원에서 사람들이 화나게 했을 때처럼 엄마 목소리는 약간 노여움이 배어있었다.

“저희가 이미 아드님의 행동에 대해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엄마에게 약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려고 했지만 엄마는 내 다리를 토닥거리시며 “지금은 잠자코 교장선생님 말씀을 들어보자꾸나.” 하고 속삭이셨다.

“...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교장선생님이 말을 이었다. “만약 학교에서 조이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내에 위치한 특수교육센터에서 집중 카운슬링을 받을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그곳에서는 조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알고 있습니다.” 엄마가 대답하셨다. 하지만 나는 전혀 모르고 있던 내용이였다.

“특수교육센터라고요?” 내가 갑자기 물었다. “그게 뭐죠?”

“애야.” 엄마가 말했다. “엄마가 말할 때는 잠시라도 좀 듣고 있렴.”

교장선생님이 이미 크리넥스 상자를 치워버렸기 때문에 엄마는 대신 지갑을 열었다. 지갑 속에서는 분 냄새, 립스틱 냄새 그리고

향수냄새가 났다. 특히 향수냄새를 맡자 나는 엄마 무릎위로 뛰어올라 엄마 목에 얼굴을 묻고 향기를 맡고 싶어졌다. 엄마는 항상 목에 향수를 뿌리기 때문에 향을 더 잘 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향수를 맡으면 그 향내를 따라, 나를 모든 나쁜 것들로부터 보호해주고, 또한 내가 엄마를 보호해줄 수 있는 안전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엄마나라로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조이야.” 엄마가 나를 부르셨다. “조이.” 엄마가 내 허벅지를 살짝 꼬집자 나는 상상에서 깨어났다.

“네?” 방금 잠에서 깬 듯 그래서 다시 자러가고 싶다는 듯이 졸린 목소리로 내가 대답했다. “왜요?”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된 일인지 네 얘기를 듣고 싶어하시지 않나.”

“무슨 얘기를요?” 나는 약간 절망적인 느낌이 들었다. 선생님과 엄마는 꽤 오랫동안 말씀을 나눈 것이 분명했다. 나는 딴 생각을 하느라 두 분이 무슨 얘기를 나누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자, 말씀드리렵.” 내가 다른 생각에 빠져있었다는 것을 눈치채고 이번에는 한결 부드러운 목소리로 엄마가 말씀하셨다. “가위에 대해서 말이야.”

“그래, 조이. 말해보렴.” 교장선생님은 가위에 대한 이야기가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재미있는 이야기라도 되는 듯 상냥한 표정을 지어 보이셨다.

그래서 나는 입을 열었다. “저는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범퍼스티커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안전가위가 종이를 자르기에 너무 작아서 맥시 선생님 서랍에서 선생님 가위를 가지고 뛰어오다가 토끼 슬리퍼 귀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그때 마리아가 뛰어든

거예요. 난 넘어졌고 일어나 보니 모두들 내가 마리아 코끝을 잘렸대요.”

내가 말을 마치자 엄마는 잠자코 무릎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교장 선생님은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계셨다. 그리고 나서 적는 것을 멈추고 얼굴을 들었다.

“내일은 아드님을 집에 데리고 계시도록 하세요. 그 다음날 특수교육센터의 버스가 조이를 태우러 갈 겁니다. 서류 상 일 때문에 하루정도 늦춰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엄마가 대답하셨다. “하지만 이걸 그냥 임시 조치겠죠? 그렇죠?”

“아드님이 다른 학생을 다치게 했으니 6주간 정확 조치와 카운슬링을 필수적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학교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의 조이의 생활기록을 보면 어쨌거나 특수교육센터에 가게 된 것은 이미 예상한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만, 어쩌면 이것이 오히려 더 잘된 일이 될 수도 있겠지요. 모든 것은 조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엄마와 나는 교장실을 나와서 아무 말 없이 걸었다. 주차장까지 가는 내내 나는 마리아가 흘린 핏자국을 찾아보려고 땅바닥을 줄곧 쳐다보았다. 어쩌면 마리아는 도중에 코 조각을 잃어 버렸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만약 내가 잃어버린 코 조각을 다시 찾아준다면 날 용서해줄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한 순간 나는 얼핏 코 조각을 본듯하여 몸을 굽히고 그 조그맣고 둥그스름한 살색 조각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냥 쓰다 버린 일회용 밴드조각이었다. 엄마가 내 손에서 그것을 빼앗아 던져버리셨다. 그 순간 처음으로 엄마가 내게

무척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내 마음이 다리만큼이나 후들후들 떨려왔다. 항상 엄마만은 내 편이라고 생각해왔었다. 내가 항상 엄마 편이듯이. 하지만 어찌면 엄마마저도 이미 나를 포기해 버렸는지 몰랐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엄마도 다른 사람들처럼 나를 싫어하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웠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차를 타고 달렸다. 버거킹에 차를 몰고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엄마는 입을 여셨다. 내게 뭘 먹겠냐고 묻지도 않고 엄마는 주문을 했다. 주문한 음식이 옆 창문으로 나오자 그것을 받아들고 엄마는 차를 몰아 그늘진 나무 밑에 주차를 시켰다.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음식을 건네주며 엄마가 말했다.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 엄마가 말을 이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내가 대답했다. “다 내 잘못이라는 거 알아요. 내가 모두 엉망진창으로 망쳐놨어요. 엄마 탓이 아니에요.”

나는 프렌치프라이를 먹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밑 부분을 베어먹고 그리고 나서 꼭대기 부분을 베어먹었다. 중간 부분은 먹지 않고 한쪽에다 두었다. 중간 부분은 바삭거리지 않기 때문에 야채를 먹을 때처럼 맨 나중에 먹으려고 남겨두는 것이었다.

“넌 바보가 아니야. 그리고 엉망진창인 것도 아니고.” 엄마가 말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라.”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걸요.” 엄마 얼굴을 쳐다보지 않은 채 내가 말했다. “아니면 지진이라고 부르고요. 엉망진창이 지진이나 정서 불안 혹은 바보라는 말보다는 낫잖아요.”

엄마는 잠자코 냅킨을 눈가에 가져간 다음 몸을 앞으로 숙이셨다. 전에도 수 백 번 엄마가 우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감추려던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나는 엄마가 울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엄마는 널 위해 노력했어.” 마침내 엄마가 입을 열었다. “내가 아기였을 때 엄마는 실수를 저질러서 널 버리고 떠났었다. 그렇지만 널 너무 사랑해서 다시 냉정을 되찾고 너에게 돌아온 거야. 이제 네가 엄마를 위해서 노력해줘야 해.” 엄마가 말했다. “이제 네 차례야. 그 정도는 엄마를 위해서 해줄 수 있겠지?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해. 지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야. 하지만 틀림없이 훨씬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될 거야. 이제까지 있었던 어떤 일보다 훨씬 나쁜 일이 말이야.”

나는 엄마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무서운 특수교육학교에 꼭 가야만 하나요?” 나는 엄마 어깨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어버렸다.

“잠시 동안만이야.” 내 머리를 어루만지며 엄마가 말했다. “머지않아 네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 그 사람들도 알게 될거고, 그러면 널 다시 학교에 돌려보내 줄 거다.”

9. 나쁜 씨앗

다음 날 나는 엄마가 정한 중요한 규칙 중 하나를 어겨버렸다. 엄마가 일하러 간 동안 혼자 밖에 나온 것이다. 나는 열 블록 정도를 질룩거리며 걸어 마리아네 집에 이르렀다. 거기까지 가는 동안 내내 나는 내가 얼마나 미안하게 생각하는지를 표현해줄 수 있는 말들을 계속해서 되뇌었다. 그리고 마리아 집 문을 노크하기 바로 전에도

나는 사과와 딸기를 다시 한번 중얼거리며 보았다.

문은 금방 열렸다. 기름때 묻은 수리공 작업복을 입은 몸집이 큰 남자가 현관 앞에 서있었다. 마리아의 아빠인 듯 보였다. “누구지?” “저는 조이 피그자예요.” 내가 대답했다. 나는 무척 떨고있었다. 여기까지 오는 내내 나는 문을 노크하면 마리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럴 경우만을 대비했던 것이다. 하지만 내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른 채 그저 마리아에게 하려고 했던 말을 불쑥 내뱉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고 왔어요.” 이렇게 말하고는 실수로 300파운드 나가는 고릴라의 발을 밟기라도 한 듯 싱긋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아저씨는 내가 행여 아저씨를 속이고 가랑이 사이로 몰래 집안으로 들어가서는 마리아의 코를 다시 공격하기라도 하는 듯 등뒤로 문을 광 닫아버렸다. “여기서 나가거라.” 아저씨가 말했다.

나는 가위 집을 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보세요. 이번에는 가위 같은 거 가지고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 아저씨는 내게 성큼 다가오며 말했다. “정신이 이상한 애를 정상적인 애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데 말이야.”

나는 뒤로 주춤 물러섰다. “저는 그냥 조금 엉망일 뿐인데요.” 내가 조그맣게 대답했다.

아저씨는 내가 통나무 덩어리인 것처럼 번쩍 집어들어서 자기 집 밖으로 집어던지기라도 할 듯이 내 쪽으로 재빨리 다가왔다.

비록 발목이 아팠지만 나는 빨리 몸을 돌려서 인도 쪽으로 내달렸다. 뒤돌아보니 아저씨는 뛰지는 않았지만 배를 내밀어 나를 밀어낼 기세로 굉장히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다. 그 뒤로 커다란 창문가에 마리아가 얼굴에 붕대를 칭칭 감고 내다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마리아 주위에는 캐유를 비는 은빛 풍선들이 매달려있었고 팔에는 복슬복슬한 흰 강아지가 안겨져 있었다. 잠시 동안 나는 어떻게 해야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당장에 달려가서 코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 아저씨로부터 달아나야만 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버렸다. 그러자 아저씨가 내게 다가왔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서는 눈을 찢끔 감아버렸다.

하지만 아저씨는 나를 때리지는 않았다. “여기서 나가거라.” 아저씨가 말했다.

“그건 그냥 사고였어요.” 내가 대답했다. “전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네가 착한 아기 예수인지 어쩐지 그런 것에는 관심 없다.” 아저씨가 말했다. “내 딸아이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입혔다간 너나 네 가족 모두 재미없을 줄 알거라.”

“우리 엄마는 이 일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말했다.

그 아저씨는 나를 심술궂은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고개를 뒤로 젓히고 웃었다. “네 엄마는 이 모든 것과 관련이 있어.”

“거짓말이에요.” 내가 말했다. “엄마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 아저씨가 엄마에 대해 나쁘게 말하자 나는 너무나 화가 나서는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우리 엄마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쏘아붙였다. “바로 내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 아저씨는 내 말에 당황해서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알고 있었다. 나는 두 손을 허리에 얹고, 턱을 높이 쳐든 채 뒤돌아 서서는 총총걸음으로 그 자리

를 떠났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 앞에 앉았을 때 내가 앞으로 학교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이 떠올라 두려워졌다. 대신에 나는 수많은 이상한 애들과 선생님들에 둘러싸여 다른 곳에 있게 될 것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니 무척 겁이 났기 때문에 나는 집안으로 들어가 허겁지겁 약을 찾기 시작했다. 약을 여러 알 먹으면 내 자신이 정상적인 아이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약은 엄마가 직장에 가지고 갔기 때문에 찾을 수 없었다. 그것도 엄마가 정한 규칙 중의 하나였다. 엄마는 스스로가 정한 규칙을 절대 어기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냥 커다란 라즈보이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서 매우 침착하게 찍힌 내 사진을 들여다보며 내 자신에게 숨돌릴 시간을 주었다. 엄마가 확인차 집에 전화를 했을 때 나는 모든 게 괜찮다고 말했다.



그날 저녁, 마카로니와 치즈 요리로 저녁식사를 한 후, 엄마와 나는 산책을 나갔다.

“하루 종일 네 생각을 했단다.” 이렇게 말하고는 엄마는 팔을 내 어깨에 둘렀다. 엄마의 따스한 손이 내 귀를 감싸자 귀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려서 기분이 좋아졌다.

“나도 엄마 생각을 했어요.” 나는 엄마를 올려다보고 그리고 나서 길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또 다시 엄마를 올려다보고, 다시 바닥을 쳐다봤다. 전에 한번 개똥을 밟아서 미끄러져 넘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 일을 절대로 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음, 엄마가 널 생각한 이유는 내일 아침 일하러 가야하기 때문에 아침에 네가 버스 타는 것을 볼 수 없을 것 같아서야.”

“아,” 나는 조그맣게 소리를 냈다. 갑자기 내 몸 전체가 슬퍼지는

느낌이었다. “엄마가 배웅해 주기를 바랬는데.”

“나도 그러고 싶어.” 엄마가 부드럽게 속삭였다. “그렇지만 일정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단다. 손님들은 제 시간에 머리 손질 받는 것을 까다로울 정도로 중요시하거든. 하지만 그 대신 너에게 두 가지 선물이 있어.”

나는 엄마를 올려다보았다. “두 가지나요?” 내가 말했다. “나한테요?” 나는 선물을 무척 좋아한다.

“첫 번째 선물은,” 엄마가 말했다. “선물처럼 보이지는 않아. 포장지로 포장된 것도 아니고 리본으로 장식된 것도 아니거든. 그렇지만 엄마는 그것이 아주 큰 선물이라고 생각해.”

“그래요?”

우리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가만히 섰다. 엄마는 나를 내려다보면서 양손으로 내 턱을 감쌌다. “첫 번째 선물은,” 엄마가 매우 심각하게 말했다. “바로 좋은 충고란다. 엄마에게 있어서 항상 도움이 되었던 이 말을 너도 기억하기를 바래. 나쁜 것이 떠오를 때마다 재빨리 좋은 것을 떠올리는 거야. 그리고 절대로 나쁜 것을 세 가지 연달아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질 테니까.”

“알겠어요.” 충고보다는 다른 선물을 기대하며 내가 말했다. 나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원했다.

“지금 엄마는 심각하게 말하는 거야.” 내가 심각하게 듣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엄마가 말했다.

“그럼 내가 좋은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는 나쁜 것을 떠올려야 한다는 말인가요?” 내가 물었다.

“아냐.” 엄마가 대답했다. “좋은 것은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많이

생각해도 돼.”

“알았어요. 그럼 두 번째 선물은 뭐예요?” 첫 번째 선물이 가져다 준 즐거움이 생각보다 빨리 사라졌기 때문에 재촉하듯 내가 물었다.

“매우 작은 선물이란단다.” 엄마가 말했다.

“처음 것보다 더 작아요?” 나는 이렇게 소리쳐 묻고는 마치 부상을 당한 것처럼 비틀거렸다.

“잠깐, 너무 성급하게 굴지는 말고. 이것은 처음에는 작지만 점점 커지는 선물이야.”

우리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지나쳐서 걸었다. 나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리고 폴란드 미국인들이 주로 가는 클럽 앞을 지나갔다. 전에 할머니는 아빠가 피츠버그에 가기 전에 이 곳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중고 책을 파는 서점에 들어갔다.

“책이에요?” 선물이 정말로 작아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내가 물었다.

“책은 그저 한 부분 일뿐이지.” 엄마가 대답했다. 엄마가 웃음 짓는 것을 보니 정말 좋은 선물인 모양이었다. 우리는 서점 뒤쪽에 가서 애완 동물에 관한 책들이 놓여진 선반 앞에 섰다. 엄마는 손을 뻗어 개에 관한 책 한 권을 뽑아 들었다.

“조이야, 네가 특수교육센터에서 정말 잘 지낸다면,” 엄마가 말했다. “강아지를 키워도 좋아.”

그러자 내 마음이 갑자기 기쁨으로 반짝였다. 나는 항상 강아지를 기르고 싶어했다. 꼭 나처럼 생긴 강아지를 말이다. 바로 조이 강아지. 착하고 쾌활한 강아지. 말 잘 듣는 강아지. 나는 전에 할머니에게 강아지를 갖고 싶다고 말했었지만 할머니는 강아지를 키우면 집

안에 나를 하나 더 두는 꼴이 될 것이라며 반대했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얼굴 가득 미소를 띄고 강아지 책을 보고 있었다. 거기에는 수많은 강아지들이 있었지만 어떤 개가 나의 개가 될 것인지 알 수 있었다. 바로 치와와였다.

“고마워요, 엄마.” 내가 말했다. “나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는 무릎을 굽혀 내 이마에 뽀뽀를 했다. “그래, 생각하지 않겠다.” 엄마가 말했다. “네 운이 달라질 거야. 앞으로 넌 ‘조이 피그자, 강아지를 키우는 운 좋은 꼬마’로 불리게 될 거다.”

10. 건널목

다음 날 아침 나는 강아지 책을 옆구리에 낀 채 현관 앞에서 특수교육센터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파랗고 하얀 색이 칠해진 특수교육버스가 우리 집 앞에 멈춰 섰다. 쇠 하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옆문이 열리면서 마치 코끼리가 한 쪽 무릎을 굽히는 것처럼 버스 전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며 조그만 승강 계단이 자동으로 땅위로 내려왔다.

엄마가 부탁했듯이 현관 계단을 뛰어내려가 착한 아이처럼 버스에 올라타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는 그냥 현관 앞에서 버스를 쳐다보고만 있었다. 버스 모서리의 긴 철로 된 기둥마다 작고 둥근 거울이 매달려 있었다. 내가 서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이 달려있는 거울 속을 들여다보니 세상이 전부 늘어지고 구부러져 보였기 때문에 그 거울을 통해서 뒤쪽의 다른 거울을 볼 수 있었다. 그 거울 안에는 버스 전체와 앞좌석의 운전자 아저씨 얼굴과 아저씨의

벗겨진 뒷머리가 보였고 엄마가 잘라준 새 머리 모양을 하고 가방을 발 사이에 낀 채 현관에 서 있는 내 모습도 보였다. 그 거울 속의 작은 내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오늘 아침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일 그리고 그 다음날을 볼 수 있어서 내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알아보고 싶어졌다. 엄마에게 나쁜 것을 세 가지 이상 연달아 생각하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나쁜 생각을 떨쳐버릴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운전사 아저씨는 클립보드 위의 종이를 몇 장 건어본 다음에 일어서서 앞문을 열고 소리쳤다. “네가 바로 새로운 위탁아동이야?” 그 질문은 특수교육센터에 가는 것이 곧 엄마를 다시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매우 겁이 났다.

“난 위탁아동이 아니에요.” 내가 곧바로 대답했다. “나는 조이 피그자예요. 누가 내가 위탁아동이라고 했나요? 난 엄마가 있던 말이에요. 우리 엄마 지금 일하러 갔기 때문에 여기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위탁아동은 아니에요.”

계속 말을 하면 할수록 기분이 더욱 나빠졌기 때문에 나는 쉬지 않고 더 말을 할 수도 있었다. 엄마는 내가 가진 전부였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위탁아동이라고 놀리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다. 내가 이런 생각에 잠겨 꽉 잠긴 문처럼 딱딱하게 굳어 서 있는 동안 운전사 아저씨는 클립보드 위의 서류를 다시 몇 장 건어 보았다.

“네 엄마는 어디 계시니?” 아저씨가 물었다.

“일하러 가셨다고 말했잖아요.” 내가 대답했다.

“어디에 말이냐?” 아저씨가 다시 물었다.

그렇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버스 안의 라디오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에 만약 내가 엄마 있는 곳을 알려주면,

운전사 아저씨가 다른 사람에게 무전을 보내서 엄마를 멀리 데려가 버릴지도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엄마와 내가 더 이상 함께 살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모두 내 잘못일 것이다. 내가 마리아의 코끝을 잘라서 사람들이 엄마가 날 잘 기르지 못했다고 비난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이미 사람들이 엄마를 멀리 데려가 버렸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탁아동”이라고 부르는 것인지도 몰랐다.

“아무튼 어서 타거라.” 아저씨가 말했다. “버스시간을 지켜야 하니까.”

나는 강아지 책을 가방에 집어넣고 계단을 내려왔다. 내가 가고싶어서 가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버스 안에는 네 명의 아이들이 타고 있었다. 내가 버스에 탄 첫 번째 아이였다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탈 때마다 차례로 한 번에 한 사람씩 익숙해질 시간이 생겼을 테니까 말이다. 하워드 선생님 반에서 정말 끔찍한 문제를 가진 아이들을 몇 명 보았지만, 이번 경우는 달랐다. 하워드 선생님 반에서는 그 애들은 그 애들이고, 나는 나인 느낌, 그 애들과 나는 서로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었다. 하지만 이 버스에서는 그저 ‘우리’만이 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 애들만큼이나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었다. 먼저, 저쪽에 팔이 없는 아이 한 명이 앉아 있었다. 엄밀히 말하면 그 애는 팔이 있긴 했지만 너무 작았다. 마치 잔가지처럼 연약한 작은 손가락이 달린 핑크빛 양배추가 양옆에 붙어 있는 꼴이었다. 팔은 너무나 짧아서 팔꿈치도 없었고 작은 팔이 가려지지 않도록 티셔츠의 소매는 잘라져 있었다.

“안녕.” 뒤집어진 계의 다리처럼 손가락을 허공에다 버둥거리며

그 애가 인사했다. 그 애가 나를 보며 자기 옆자리에 앉으라는 고갯짓을 하자 나는 그 애 옆에 앉았다.

“안녕.” 나도 인사를 건넸다. 그 날 아침은 약 효과가 없는 것 같았다. 약을 먹으면 이른 아침에는 대개 얌전하기 마련이었는데도 나는 갑자기 고압 전류 같은 느낌이 내게로 밀려드는 것을 느꼈다.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움츠리고 앉아 있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 애가 나를 만지지 않기를 바랐다. 버스가 급정거를 하자 나는 그 애 손 쪽으로 몸이 기울어졌다. 그 애의 조그맣고 뽀족한 손톱이 내 셔츠 위를 찌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 이름은 찰리야.” 그 애가 말했다. 나는 그 애 얼굴을 쳐다보았다. 얼굴은 그다지 이상하지 않았다.

“난 조이라고 해.” 내가 대답했다. 찰리는 바닥에 뭔가 떨어지기라도 한 듯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리고는 그 애의 작은 손으로 내 손을 건드렸다. 우리가 처음 만났기 때문에 찰리는 악수를 하고 싶어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애 손을 잡고는 가볍게 흔들어 주었다.

“만나서 반가워.” 몸을 똑바로 고쳐 앉으며 찰리가 말했다. “넌 뭐가 문제 인거야?”

“아무 문제도 없어.” 내가 말했다. “아무 문제도. 단지 사람들이 우리 엄마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만 빼고 말이야. 운전자 아저씨가 나를 위탁아동이라고 불렀거든.”

“네 엄마를 빼앗아 가진 않을 거야.” 찰리가 말했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엄마를 데려가 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러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너희엄마도 너 몰래 데려가진 않을 거야.”

어떤 아이가 내 자리 뒤편에다 대고 머리를 찡어댔기 때문에 나

는 찰리의 말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서 그 애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애는 머리를 무척 세게 부딪치고 있었다. 다행히도 머리에는 헬멧을 쓰고 있었다. 자전거용이나 풋볼용 헬멧이라기 보다는 매끈한 오토바이 헬멧처럼 보였다. 그 애는 계속해서 앞뒤로 몸을 움직이며 발을 들어서 내 자리 뒤쪽의 금속 테두리를 쿵쿵 쳐댔다. 헬멧의 투명한 창 너머로 보이는 그 애의 눈은 고통으로 움츠러들어 있었다. 마치 거대한 바위덩이가 그 애를 내리눌러서 바위 밑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 계속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내 앞자리에는 여느 소녀처럼 보이는 두 명의 소녀가 앉아 있었다. 그 둘은 모두 단정하게 잘 차려 입고 있었고, 무릎 위에는 잘 닦인 빨간 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 소녀들이 마리아를 생각나게 했기 때문에 나는 내 코를 만져 보이며 그 애들을 향해서 미소지었다. 그러자 그 애들도 나에게 미소를 지어주었다. “저 애들은 뭐가 문제 인거야?” 내가 찰리에게 속삭이듯 물었다.

“저 애들은 자매야.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받는데, 모든 것을 거꾸로 읽고 거꾸로 쓰기 때문이지.” 찰리가 소녀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는지 이 애한테 한 번 보여줘.”

한 소녀가 자신의 가방을 들어 보았다. 가방 위에는 ‘이메’라는 글자가 써 있었다. 나는 누군가의 이름을 어떤 감자종류의 이름에서 따왔나보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여겼다. 또 다른 소녀의 가방에는 ‘운주’라는 글자가 적혀있었다.

“이 애 이름은 메이야.” 찰리가 말했다. “그리고 저 애 이름은 주운이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는 메이를 쳐다보았다. 메이는 싱긋 웃어 보였다. “나랑 우리 동

생은 서로 거꾸로 글을 써서 쪽지로 주고받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절대 알아볼 수가 없어.” 그 애가 말했다. “참 재밌어.”

“거꾸로 말할 수도 있니?” 내가 물었다.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 메이가 대답했다.

“혹시 특수교육센터에서 가르쳐줄지도 모르지.” 주운이 이렇게 말하고는 킥킥 웃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읽는 법을 배운 다음에 말이야.”

철도 건널목 앞에 이르자, 운전사아저씨는 버스를 세우고 기차 소리를 듣기 위해서 버스 문을 열었다. 그렇지만 그건 꼭 나를 놀리기 위해 문을 연 것처럼 여겨졌다. 마치 운전사아저씨가 버스 문을 열고는 “이봐, 조이. 새로 맡겨진 애야. 이 문밖으로 뛰어내려 도망갈 수는 없겠지.” 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만 같았다. 몸에서는 땀이 나기 시작하고 발은 이륙하기 직전의 로켓처럼 흔들렸다. 나는 버스 문을 박차고 멀리 달아나서 이리저리 튕겨 다니다가 아빠처럼 피츠버그 까지 가거나 아니면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내 자신을 추스르고 특수교육센터로 가서 도움을 얻을 수도 있었다. 이것은 마치 내 인생이 달아날 것이냐, 머무를 것이냐 라는 두 문장 사이에 꼼짝없이 갇힌 것과 같았다. 그리고 내 뒷 좌석의 애가 계속 머리를 부딪치는 것처럼 나도 달아날 것인가, 머무를 것인가 라는 두 문장에 내 머리를 계속 부딪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그냥 엄마를 떠올렸다. 엄마는 이미 엄마 자신을 추슬렀으며 이제는 바로 내 차례였다. 그 순간 버스 문이 닫히며 버스는 울퉁불퉁한 철로위로 덜커덩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깊게 숨을 내쉬고는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러자 엄마를 잃게 되거나 앓을까 하는 걱정이 다시 고개를 들

어 긴장이 됐다. 엄마를 떠올리고, 엄마라면 어떻게 행동할까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버스에서 뛰어내려 도망가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엄마를 잃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더 커졌던 것이다.

버스는 크고 오래된 벽돌 집 앞에 잠시 멈춰 섰다. 한 소년이 길가에 서있었다.

“네가 새로운 위탁아동이나?” 운전사아저씨가 물었다.

“맞아요.” 그 아이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 보였다. “그래서요?”

그 애가 버스에 올라타자 나는 그 애를 쳐다보았다. 나와 그리 달라 보이지 않았다. 나는 너무 슬퍼서 눈을 감아버렸다.

버스가 다시 멈춰 서자 나는 눈을 떴다. 버스는 은행이나 멋진 사무실처럼 보이고 어둡게 음영처리가 된 창문이 난 흰 색 새 건물 앞에 서 있었다. 벽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강철로 만들어진 ‘랜카스터 카운티 특수교육센터’라는 글자가 붙어있었다. 우리는 아마 좀 늦게 도착한 것 같았다.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보도 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중에 보자.” 찰리는 이렇게 말하고는 발을 사용해서 가방을 들어올린 다음 자신의 초미니 손으로 다시 가방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커다란 자동문 쪽으로 달려갔다. 두 소녀 역시 찰리 뒤를 따라 뛰어갔다. 내가 버스에서 내리자 덩치가 큰 남자가 다가왔다.

“네가 조이 피그자니?” 그가 물었다. 그 남자는 카키색 바지에 흰색 셔츠를 입고 줄무늬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네.” 내가 대답했다.

“난 에드 배네스라고 한다.” 그가 말했다. “난 너를 도와줄 사회복지

지사야. 날 에드 아저씨라고 부르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거든.”

“말씀드릴게 있어요.” 내가 대답했다.

“우선 이 학교에 대해서 알려주마.” 에드 아저씨가 말했다. 자동문이 열리자 우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 곳은 네가 알고 있는 그런 종류의 학교가 아니야. 물론 사람들이 널 싫어하거나 더 이상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여기에 오게 된 것은 더욱 아니야. 이 곳은 별주기 위한 장소가 아니거든.”

“그야 이 곳에 있는 사람은 모두 이미 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겠죠.” 철로 된 교정기를 착용한 채 경사로를 오르기 위해 애쓰고 있는 한 소년을 가리키며 내가 말했다. 그 애의 팔다리는 꼬인 파이프 청소기구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다.

에드 아저씨가 그 애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안녕, 제이슨!” 아저씨가 소리쳤다. “좋아 보이는구나, 애야!”

제이슨은 머리를 한 쪽으로 꺾 움직이며 히죽 웃어 보였다. 그리고는 무언가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렸다.

“제이슨은 아주 대단한 아이란다.” 에드 아저씨가 나에게 말했다. “저 애에게 경사로를 오르는 것은 너나 내가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이야.”

“할 말이 있는데요.” 내가 물었다.

“잠깐만.” 에드 아저씨는 나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안내하며 말했다. “먼저 너에게 이 곳을 구경시켜주고 싶구나. 그러면 이 곳이 바로 네가 다시 제자리를 찾기 위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나는 네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줄 거야. 그래서 네가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된다면 여기서 나가게 되는 거야. 네 경우

는 다른 학생에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이 곳에 적어도 6주간은 머물러야 해.”

“그건 그냥 사고였어요!” 내가 소리쳤다.

“그래, 맞다.” 에드 아저씨가 동의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 그리고 네가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 다음 학교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란다. 네가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말이 되지. 솔직히 얘기하자면 우리는 이곳에 있고 싶어하지 않는 아이들을 좋아한다.”

나는 여전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에드 아저씨의 말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 “버스 운전사아저씨는 나를 위탁아동이라고 생각하던데요.” 내가 불쑥 말을 꺼냈다.

“그건 착오였어.” 에드 아저씨가 대답했다.

“엄마를 만나고 싶어요.” 내가 말했다.

“지금 당장은 그럴 수 없을 것 같구나.” 에드 아저씨가 말했다. “몇 가지 할 일이 있거든. 앞으로 널 도와줄 분들을 소개해주마.”

“그리고 나면 우리 엄마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물었다.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보자구나.” 에드 아저씨가 말했다. “약속하마.”

엘리베이터가 커다랗게 웅하는 소리를 내며 멈추자 문이 열렸다. 우리는 양옆에 교실이 늘어선 크고 밝은 복도를 걸어 내려갔다. 여전히 내부는 학교라기 보다는 병원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음식냄새 대신에 약 냄새가 더 강하게 났다. 눈이 안 보이는 아이들이 줄을 지어 한 손으로는 끈을 잡고 다른 한 손에는 흰 지팡이를 쥐고서 반대쪽 벽을 더듬어가며 걸어가고 있었다. 휠체어를 탄 아이들도 있

었고, 책을 든 평범하게 보이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결코 일반 학교로 돌아갈 수 없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 애들은 완전히 망가졌거나, 나무판자 위에 묶여있는 불구이거나, 아니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였다.

에드 아저씨가 다른 아이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냐고 물었기 때문에 그 애들을 쳐다보아야만 했다. “저 애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조차도 몰라요.” 내가 말했다. “난 정상적으로 보일 거예요.”

“그렇다면 저 애들은 네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어서 여기에 온 것인지 궁금해하겠구나.”

“그럴 거예요.”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알 수 없을 걸요.”

“왜지?” 에드 아저씨가 물었다.

“이제 엄마한테 전화 걸어도 되나요?” 내가 물었다.

“오늘 아침에 약은 먹었니?” 내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아저씨는 물었다.

“네.” 내가 대답했다.

“아침은 먹었니?”

“아뇨. 난 진짜로 배고프기 전에는 배 안고파요. 그리고 진짜 배가 고프면 황소 한 마리도 거뜬히 먹을 수 있죠.”

“음, 우선 말이다.” 에드 아저씨가 말했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먹는 법을 배워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렴. 싫든 좋든 매일 매일 샤워를 해야하잖니?”

“난 오늘은 샤워 안 했는걸요.” 내가 말했다. “나 혼나는 거예요?”

“아니, 괜찮다. 널 혼내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이건* 말이다.” 빌딩 전체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전부를 뜻하기 위해 손으로 커다랗게

원을 그리며 에드 아저씨가 말을 이었다. “이것은 너를 좀더 나은 아이로 만들기 위한 거야.”

“말썹이 생겨서 여기 오게 된 거예요.” 내가 말했다.

“말썹을 부리지 않으면 여기서 나가게 될 거다.” 마치 모든 답을 미리 외워놓기라도 한 것처럼 에드 아저씨는 거침없이 대답했다.

우리는 아저씨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자리에 앉기 전에 화장실에 다녀와도 되나요?” 내가 물었다.

“물론이지.” 에드 아저씨는 방의 다른 쪽에 있는 문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사실 화장실이 급한 것은 아니었다. 그저 잠시 혼자 있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서서 변기 물을 내렸다. 여기 오기 전에 나는 특별교육센터는 못된 아이들을 위한 감옥 같은 곳 일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나는 걱정스러웠다. 그러나 직접 와서 보니 그렇게 나쁜 곳 같지는 않았다. 누군가가 나를 마구 때려서 혼낼 것 같지는 않았다. 게다가 에드 아저씨도 상상했던 만큼 무섭지 않았다. 사실 내 안의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었다. 볼 수 없는 무엇인가가 흰개미처럼 소리 없이 나를 갉아먹어서 내가 양전할 때조차도 내 자신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지도 모르는 일이다. 나는 내 자신이 무서웠다.

변기 물을 다시 한번 내리고 나는 화장실에서 나왔다. “우리 할머니는 전에 어떤 것도 나를 더 나은 아이로 변화시킬 수 없다고 했어요.” 내가 말했다. “우리 가족은 원래부터 모두 이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도움이 될 수 없다고 했어요.”

“네 할머니는 좋은 분이라고 믿는다.” 에드 아저씨가 말했다.

“할머니는 나를 냉장고에 가두려고 했었는데요.” 내가 불쑥 말을

내뱉었다.

“때때로 좋은 사람들도 나쁜 결정을 내리곤 한다. 조이야.” 아저씨가 말했다. “내 말 믿으렴. 넌 괜찮아질 꺼야. 우리는 너에게 몇 가지 테스트를 할 꺼야. 바로 네가 지금 먹고 있는 알약이 너에게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지. 네가 알맞은 양의 약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 할거야. 그리고 네가 너 자신에 대해 더 좋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줄 거다. 또 숙제도 잘 할 수 있게 도와줄 거고 말이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모두 조이 피그자의 더 나아진 모습을 보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다시 예전 학교로 돌아갈 수 있지.”

“강아지를 길러도 되나요?” 내가 물었다.

에드 아저씨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아주 좋은 생각이구나.” 아저씨가 말했다. “강아지를 어떻게 보살피는지 알고 있니?”

“아직은 몰라요.” 내가 말했다.

“음, 강아지를 보살피는 법을 배우면, 네 자신을 돌보는 법도 알게 될 거다.”

“할머니는 나도 반은 개라고 했어요.”

“네 할머니를 한번 뵈고 싶구나.” 에드 아저씨가 말했다. “진심이다.”

“음, 그건 불가능해요.” 내가 대답했다. “할머니는 하수구에 빠져서 떠내려 가버렸거든요.”

“정말이니?” 아저씨는 내게 믿기 어렵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물었다.

“할머니는 아빠랑 피자버그에 있어요. 이제 엄마한테 전화해도 되나요?” 내가 물었다.

에드 아저씨는 전화기를 들어 나에게 건네주었다. 나는 번호를 눌

렸다. “미녀와 야수 미용 실입니다.” 안내데스크의 티파니 누나가 전화를 받았다.

“조이에요.” 내가 말했다. “우리 엄마랑 통화할 수 있나요?”

“너희 엄마는 지금 바쁘셔.” 티파니 누나가 말했다. “메모 남길래?”

“다시 걸게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때때로 나는 티파니 누나가 엄마를 바꿔 줄 때까지 계속 전화를 걸어대곤 했었다.

“네 엄마는 여전히 바쁘셔.” 티파니 누나가 말했다. “조이야, 전에도 전화 자주 거는 것에 대해 말했었잖니. 조금 있다가 전화하렴.”

내가 전화를 끊고 다시 또 전화 번호를 누르려 하자 에드 아저씨가 전화를 끊어버렸다. “조이야.” 아저씨가 말했다. “아주 심각한 얘기를 꺼내야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이따가 얘기하면 안될까요?” 내가 대답했다. 갑자기 몸이 근질근질해지는 느낌이였다.

“네가 여기에 온 데는 심각한 이유가 있다.” 에드 아저씨가 말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넌 다른 친구를 다치게 했어. 만약 우리에게 네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넌 예전의 학교로 돌아갈 수 없어. 그게 요지다. 조이. 내 말 이해하겠니?”

“하워드 선생님이 나더러 토끼 슬리퍼를 신으라고 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대답했다. “내가 슬리퍼에 걸려 넘어져서 마리아 코를 자를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문제는 슬리퍼가 아니야, 조이.” 아저씨가 말을 이었다.

“그럼 뭐가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물었다. “뭐가요?”

“네가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 바로 문제란다.”

“예를 들면요?”

“넌 네 손가락을 연필깎이 안에 집어넣었어. 또 열쇠를 삼켰지. 현상 학습 때는 통제력을 잃어버렸고. 조이야. 넌 지금까지 네 자신을 위해 아주 나쁜 결정을 내려온거야.”

“엉터리 약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했다. “그 약은 아침에는 효과가 좀 있지만 점심 먹고 나면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약 문제에 있어서는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에드 아저씨가 말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 넌 여전히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법을 배워야만 해.”

나는 수화기를 들고 전화번호를 누르기 시작했다. “엄마랑 얘기할래요.” 내가 말했다.

에드 아저씨가 전화를 끊어버렸다. “만약에 너의 가정환경 역시 네 문제의 한 부분이라고 말한다면 어떡하겠니? 조이, 우리는 이제 심각해질 필요가 있어. 큰 그림을 봐야할 때다.”

11. 기어변환

나는 현관 앞에 앉아 오렌지 색 스펀지 공을 현관문에 튕겨 대고 있었다. 한 시간 정도 계속 그러고 있었다. 집 열쇠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엄마가 다섯 짐짚 아래쪽 퀸 스트리트의 모퉁이를 돌아서는 모습을 보고, 나는 더 세계 공을 튀기기 시작했다. 엄마가 보도 위로 올라서자 나는 고개를 돌려 단숨에 말을 쏟아냈다.

“그 아저씨가 그러는데 엄마도 문제의 한 부분이라고 했어요.” 내

가 소리쳤다. “나는 엄마가 아니라 내가 마리아의 코끝을 잘랐다고 말했지만 아저씨는 이것이 단순히 마리아의 코 문제만은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내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한 문제래요. 내가 엉터리 약을 먹어서 그랬다고 하니까 엄마가 어떤 의사한테 날 데려갔었는지 알고 싶다고 했어요. 난 그 의사가 누군지 모른다고 했고 엄마가 나를 할머니한테서 구해줬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아저씨는 특별교육을 받으면 내가 더 나은 아이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진정하렴. 소리지를 필요 없다. 그리고 머리는 그만 잡아당기렴.” 그리고는 엄마는 고개를 돌려 이웃 사람들이 듣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자, 안으로 들어가서 약을 좀 먹은 후에 얘기를 하도록 하자구나. 그런데 그 아저씨란 사람은 도대체 누구니?”

“에드 아저씨요.” 내가 대답했다.

“오, 그래. 이름이 둘이던 그 분 말이구나.” 엄마가 중얼거렸다.

우리는 집으로 들어갔다. 나는 계속 중얼거렸지만 엄마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런, 집안이 엉망이네.” 엄마는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니?”

“말썽을 피웠어요.” 내가 말했다. “버스 운전사 아저씨가 나더러 위탁아동이라고 해서 난 사람들이 엄마를 데려가 버린 줄 알았어요. 내가 마리아에게 한 짓 때문이에요. 엄마 미용실에 전화했는데 엄마랑 통화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전화를 했는데, 티파니 누나가 엄마가 바쁘다고 하잖아요. 난 사람들이 나 대신 엄마를 체포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후에는 내가 지긋지긋해져서 엄마가 또다시 도망가버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드 아저씨

“이 얘기를 하니깐 아저씨는 가정환경이 내 문제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약 찾는다고 집안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지 않기로 약속 했잖니?” 엄마가 말했다.

“오늘은 아주 기분 나쁜 날이었어요.” 내가 말했다.

“누구에게나 기분 나쁜 날은 있는 법이란다.” 엄마가 대답했다. “그런 날도 잘 견뎌내야 하는 거야.”

엄마는 지갑에서 플라스틱으로 된 약병을 꺼내서는 알약 하나를 손바닥에 떨어뜨렸다. “네가 연락처를 안 남겼잖니. 남겼으면 너한테 다시 전화를 했었을 텐데 말이야.” 엄마는 내 입 속에 알약 반쪽을 넣어주었다.

약을 삼키고 나서 나는 냉장고로 달려가서 마운틴 듀를 꺼냈다. 엄마는 싱크대 밑에서 아마레토를 꺼냈다. 그리고 나서 엄마는 둘을 섞어 칵테일을 만들었고 나는 거기에다 빨간 체리 하나를 떨어뜨려 주었다.

“그래서 그 아저씨는 내가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씀하셨니?” 잠시 침묵 후에 엄마가 물었다.

“아저씨는 엄마가 날 버린 후에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고 싶어했어요.”

“난 너를 할머니한테 말했었다.”

“할머니는 나한테 못되게 구셨어요.” 내가 말했다. “에드 아저씨한테 할머니 얘기도 했어요.”

“그것 말고 또 무슨 얘길 했니?”

“아빠에 대해서요.”

“그리고?”

“우리 생활에 대해서도요. 내가 잠에서 깨서 다시 잠자리에 들기 까지. 전부 다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매일 미장원에 일하러 나가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완벽한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듣는 다는 것도 말했니? 난 그 사람들 자식들이 완벽하다는 말을 믿지 않아. 왜냐하면 그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아이들이 완벽한 척하는 거야. 그래야 너 같은 아이들과 나 같은 부모들을 무시할 수 있으니까 말이야. 이런 모든 게 얼마나 날 구역질나게 만드는 지도 얘기했니?”

엄마는 일어나서 아마레토 칵테일을 한 잔 더 만들었다.

“엄마가 칵테일을 두 잔 마시니까 나도 알약을 두 알 먹어도 되나요?”

“아니, 안돼. 그리고 우리 생활을 모르는 사람에게 시시콜콜 얘기하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에드 아저씨는 날 돕는 것이 아저씨의 임무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상황이 더 나아지기 전에는 상황이 나빠지기 마련이라고 말했어요.”

“그 점에 있어서는 그 아저씨 말이 맞구나.” 엄마가 말했다. “아주 맞는 말이야. 그 아저씨 상황도 나빠질 수 있을 거라고 전해주렴.” 그리고는 엄마는 마치 물을 마시듯 단숨에 잔을 비우고는 또 한 잔을 만들었다. 나는 그런 엄마를 찬찬히 쳐다보았다.

“아니, 얘기하지 말거라.” 침착을 되찾은 엄마가 말했다. “나도 오늘 끔찍한 하루를 보냈다. 하루 종일 네 생각을 하고 네 걱정을 했어. 네가 우리에게 관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할까 생각하면 할수록 난 더욱더 부끄러워졌어. 난 널 위해서 돌아왔지만, 단순히 돌

아왔다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어. 우리 머리 위에 단순히 지붕을 달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머리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가 문제인 거야.. 내 말 이해할 수 있겠니?”

“네.” 내가 말했다. “오늘 식이요법 담당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내가 몸에 맞게 음식을 섭취하고 있지 않대요.”

“그 분한테는 또 무슨 말을 했니?” 엄마는 이렇게 묻고는 다시 침착함을 잃어버렸다.

“내가 초콜릿 도넛이랑 테이터 토츠랑 나초를 좋아한다는 것과 엄마는 절대 내가 먹기 싫어하는 음식은 먹게 하는 법이 없대요.”

“그게 뭐 잘못된 거니?”

“그 분은 내가 야채랑 샐러드 그리고 곡물을 먹어야 한 댔어요. 그리고 비타민을 먹는지도 물어봤어요. 나는 엄마가 땅콩 버터가 나한테 좋다고 해서 아침마다 리스 땅콩버터 사탕을 먹는다고 말했어요.”

“이런, 한 잔 더 마셔야겠구나.” 엄마가 말했다.

“에드 아저씨는 엄마가 술을 마시냐고 물었어요.” 내가 말했다.

엄마는 아마레토 병을 손에 쥔 채 몸을 획 돌려 나를 쳐다보았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니?”

“마신다고요.” 내가 말했다. “정말 마시잖아요.” 엄마 손에 있는 병을 가리키며 내가 말했다. “그렇죠? 그리고 에드 아저씨가 말하길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면 나아질 수 없다고 했어요.”

“음, 오늘 배네스씨와 얘기를 했었다.” 칵테일을 만들며 엄마가 말했다.

“그 분이 바로 에드 아저씨 예요.” 내가 말했다.

“그래, 알아.” 엄마가 말했다. “네가 집에 간 후 그 분이 나한테 전화를 주셨다.”

“무슨 얘기했는데요?”

“말 안 해줄 거야.” 엄마가 말했다. “이게 바로 너와 나의 차이지. 난 입 다무는 법을 알고 있거든.”

“난 어쩔 수 없이 말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말했다.

“그럼 안 그렇도록 노력해봐.” 엄마가 말했다.

“엄마도 술 안 마시려고 노력해요.” 내가 말했다.

“왜 우리 중 한 명은 옳아야하고 다른 한 명은 틀려야 하는 거지?” 엄마가 물었다. “왜 항상 이런 식이어야 하나구?”

“나한테 ‘왜’라고 묻지 마세요.” 난 더 이상 듣지 않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귀를 막았다.

엄마가 내 손을 치웠다. “가끔가다 넌 정말 엄마를 힘들게 해.” 엄마가 말했다. “때때로 널 쫓아다니는 것보다 네 아빠를 쫓아다니는 게 훨씬 쉬울 거라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엄마는 날 더 사랑하잖아요.” 내가 말했다. “그렇다고 엄마가 말했잖아요.”

“넌 정말 못 말리는 말쟁꾸러기야.” 엄마가 말했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서 커다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렇게 웃으면 아무 것도 보이지 않고 단지 내 안의 얼굴만 볼 수 있었다. 마치 미소를 띤 커다랗고 노란 할로윈용 마스크를 쓰고있는 것 같았다.

“자,” 엄마가 말했다. “오늘 하루만 더 나쁜 짓 하게 피자나 주문 하자구나.”

“피자 위에 야채를 넣어달라고 해도 돼요?” 내가 물었다. “야채를 더 많이 먹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래. 예를 들면 어떤 거 말이니? 버섯이나, 피망, 양파 같은 거?”

“샐러드도 잊어버리지 마세요.”

“꿈 깨렴.” 엄마가 말했다. “샐러드 피자는 없어. 샐러드는 피자과 정반대 음식이야. 샐러드는 토끼가 먹는 거고 피자는 치즈와 소시지, 페퍼로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먹는 거지. 그게 바로 너와 나고 말이야.”

다음날 아침 나는 현관 앞에 앉아 어제 먹다 남은 엑스트라 치즈야채 피자를 먹으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맥시 선생님이 차를 타고 오셔서 내게 손을 흔드셨다. 선생님은 다행히도 내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웃는 얼굴이 아니었다면 나는 당장에 뒤돌아 집으로 들어가서는 문을 잠가버렸을 것이다. 선생님은 차에서 내려서 갈색 종이 봉투와 지갑을 들고 내 쪽으로 걸어오셨다.

“잘 지냈니?” 현관 계단을 올라서며 선생님께서 물으셨다.

“네. 잘 지냈어요.” 내가 말했다. “이제 저는 야채도 많이 먹고 있어요. 이거 한 입 드실래요?”

“아니, 괜찮다.” 엄마처럼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며 선생님이 말했다. “우린 모두 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

그 말은 피자보다도 나를 더 기쁘게 했다. “저도 선생님 생각했어요.”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전 다시 돌아갈 거예요. 그러겠다고 말했잖아요.”

“그래, 계속해서 노력하렴. 그럼 꼭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나는 용기를 내서 다음 질문을 했다. “마리아는 어때요?” 내가 물었다. “사과하려고 마리아네 집에 갔었는데 그 애 아빠가 날 내쫓았

어요.”

“마리아는 더 이상 우리 학교에 다니지 않는단다.” 맥시 선생님이 말했다. “그 애 부모님이 카톨릭 학교로 전학 시켰거든.”

“특수교육센터에도 카톨릭 학교에서 온 애들이 있어요.” 내가 말했다. “그 친구들은 여전히 그 학교 교복을 입고 다녀요.”

“그래.” 맥시 선생님이 말했다. “우리는 마리아 부모님께 그런 사고는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분들은 마리아를 몹시 걱정하시더구나.”

“저는 지금도 그 사고에 대해 무척 마음 아프게 생각해요.” 내가 말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느끼고 있단다, 조이.” 맥시 선생님이 말했다. “그렇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해. 자, 선생님이 널 위해 뭘 가지고 왔는지 좀 보겠니?” 선생님은 종이 봉투에서 산수, 국어, 지리, 역사, 과학 과목 자료를 꺼내서 내게 보여주었다. “이것을 집에서 엄마와 함께 공부하거라. 그러면 앞으로 몇 주간의 학교 진도는 따라갈 수 있을 거야. 네가 다시 학교로 돌아왔을 때 너무 뒤쳐지지 않도록 앞으로 네 숙제를 가져다줄게, 알았지?”

“그럼 6주 후에는 나를 다시 학교로 보내준다는 건가요?” 내가 물었다.

“그건 다른 사람에게 달렸지.” 선생님이 말했다. “베네스씨가 내게 전화를 해서 너한테 계속 숙제를 가져다 줄 수 없겠느냐고 그러셨어. 그래서 네가 다시 학교로 돌아올 경우에 바로 수업을 따라 갈 수 있게 말이야.”

그리고 나서 맥시 선생님이 떠나려하자 내가 말했다. “선생님, 죄송해요.”

“그래, 알았어, 조이야. 우리도 모두 미안하게 느끼고 있단다. 그렇지만 이제 그만 미안해야 할 때야. 태도를 변화시켜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하는 거야, 알았지?”

“죄송해요.” 나는 다시 한번 말했다. 내가 포옹하기 위해서 팔을 내밀자 선생님은 날 안아주셨다. 무척 포근하고 좋았다. 선생님이 팔을 풀 때 내가 말했다. “저는 꼭 변화할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거예요.”

“좋아.” 선생님이 말했다. “참 착하구나.” 그리고 나서 맥시 선생님은 봉투 속에서 황금별 모양의 스티커가 여러 개 붙여진 긴 종이 조각을 꺼내셨다. 그 중의 하나를 떼어내서는 내 이마에 붙여주셨다. “이것은,” 선생님이 말했다. “태도를 변화시키려는 네 노력에 대한 상이야.”

나는 조심스레 별을 들고 다섯 개의 황금 모서리를 만져보았다. 한 과목당 한 개의 모서리. “내가 더 나아지면 엄마가 강아지를 사준다고 했어요.”

“그것 참 좋은 생각이구나.” 선생님이 말했다. “가 봐야겠다. 내가 제 시간에 가지 않으면 교실이 어떻게 되는지 너도 잘 알잖니.”

물론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맥시 선생님은 돌아서서 현관 계단을 내려가셨다. 포옹할 때 내 손이 닿았던 등 부분에 피자 소스가 묻어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맥시 선생님!” 나는 소리치며 허공에다 피자를 흔들며 보였다.

“난 따로 점심 도시락 싸왔단다.” 내가 옷에 묻은 손자국에 대해 말하기도 전에 선생님이 소리쳤다. “고맙다.”

선생님이 가지자, 나는 손을 바지에 문질러 닦고는 과제물을 집안에 던져두었다. 몇 분 후에 특수교육센터 버스가 도착했다. 버스에

오르자 찰리가 나를 반겼다.

“여기 앉아.” 어제처럼 고개 짓을 해 보이며 찰리가 말했다.

“피자 먹을래?” 내가 물었다.

“물론.” 찰리가 대답했다. 내가 피자를 그 애 입에 갖다대자 찰리는 한 입 베어먹었다.

“조심해.” 내가 말했다. “잘못하면 지저분해져.”

그 날은 중요한 날이었고 또한 잘 풀리지 않는 날이었다. 나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기로 되어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긴장해서 완전히 흥분상태에 빠져버렸다. 아침에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에 마음을 집중할 수가 없었다. 독서지도 선생님은 나에게 일반 책 대신 그림책을 읽도록 시켰는데, 그림이 있어서 내 수준 이상의 단어들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나는 도통 집중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산수시간에도 산수 문제 풀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머리 속에 크게 소리지르는 무서운 의사 선생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서 선생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쉬는 시간이 그나마 가장 좋았다. 나는 머리를 부셔버리려는 공처럼 앞뒤로 신나게 움직이는 그네를 피해가며 그네 주위를 그저 뛰어다녔다.

드디어 수업이 다 끝나자 나는 작은 검사실에 앉아있었고, 에드 아저씨는 내 옆에서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옆에는 캐비닛이 하나 놓여있었는데 그 안에는 멋진 물건이 가득 들어있었다. 나는 캐비닛을 열고 일회용밴드를 꺼냈다.

“조이야.” 에드 아저씨가 말했다. “도로 넣어두렴.”

“그냥 보기만 할 거예요. 보는 것은 괜찮잖아요.”

“우리가 의사선생님을 기다리는 동안은,” 에드 아저씨는 의사선생님처럼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다. “뭔가 좀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 말이다.”

“알겠어요.” 내가 말했다. “할머니는 언제나 사소한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했어요.”

“의사선생님은 네 몸 상태와 약물치료를 담당하실 거야.” 아저씨가 말했다. “그게 그 분이 하시는 일이란다. 나는 네 행동을 담당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팀이라고 할 수 있지. 의사 선생님이 네 약을 조절해준 다음에도 한참 동안 너와 나는 함께 한 팀으로서 노력해야 해.”

“전 이제까지 아주 얌전하게 지냈는데요.” 내가 말했다. “며칠동안 말썽도 피우지 않았잖아요.”

“그래, 착하다.” 에드 아저씨가 말했다. “그렇지만 단순히 말썽을 ‘피하는’ 것 이상이어야 해. 애초에 말썽을 부리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 일회용 밴드 말이다, 조이.” 캐비닛을 가리키며 아저씨가 말했다. “내가 몇 분 동안 너를 여기 혼자 있게 하면 밴드를 가지고 뭘 할 셈이지?”

“아무 것도 안 할 거예요.”

“아무 것도?”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에드 아저씨가 물었다.

“네. 아무것도요.” 내가 다시 대답했다.

“그럼 한 번 확인해 보자구나.” 아저씨가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난 복도에 나가 있으마.”

에드 아저씨가 나가자마자 나는 일회용밴드를 껌싸게 꺼냈다. 그

리고 티셔츠를 걷어올리고 가슴과 배 전체에 밴드를 붙이기 시작했다. 스무 개정도 붙였을 때 “안녕하십니까, 의사 선생님” 하는 에드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서둘러 밴드를 찢던 포장지를 커튼 뒤쪽의 창턱에 감추고, 셔츠를 내린 다음 자리에 앉았다.

의사 선생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나는 프레스턴 박사라고 한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다. “늦어서 미안하구나. 내 잘못이다.”

나는 그 분이 금새 좋아졌다. 일이 잘못된 게 처음으로 내 잘못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의사 선생님은 서류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은 다음 겹옷을 벗었다. “피그자 부인은 오실 건가요?” 처음에는 나를 보고 그 다음에는 에드 아저씨를 쳐다보며 의사 선생님이 물었다.

“오늘은 참석하지 못할 겁니다.” 에드 아저씨가 대답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미 얘기를 나누었고 제가 따로 부인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입을 다물었다. “ 좋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냉담하게 대답했다. 그것은 마치 “그건 잘못된 행동이군요” 라고 말하는 투였다. 엄마가 여기에 참석할 만큼 나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내 모든 생활이 엉망이 되었고 그것은 모두 엄마 탓이라고 생각하는 듯 싶었다.

“자,” 의사 선생님은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게 우리가 하게 될 것이란다.” 그 분은 서류 가방을 열어 내 과일을 꺼냈다. “먼저, 내가 널 잠깐 진찰해 볼 거야. 그리고 나서 또 몇 가지 검사를 할거야. 힘든 검사는 아니야. 내가 네 혈액을 채취할거고, 넌 컵에다 소변을 보면 돼.”

그렇게 나쁘게 들리지는 않았다. “더 나쁜 것도 해봤는걸요.” 내가 말했다. “한번은 버스에서 할머니가 코카콜라 병에다 오줌을 누게 했었거든요.”

“그래, 그랬구나.” 의사선생님은 내 파일을 열어서 마치 내 가슴을 열어 그 안의 내장기관을 살펴보기라도 하듯 아주 꼼꼼하게 파일에 적혀 있는 내용을 읽어보셨다.

다 읽은 후, 선생님은 고개를 들어 크게 호흡을 들어 마신 다음 다시 입을 여셨다. “조이야, 넌 아주 착하고 똑똑한 아이인 것 같구나. 그래서 너에게 정직하게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 모두를 말해주겠다. 좋은 소식은 지금 네가 먹고 있는 약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다. 만약 더 나은 약을 먹게 된다면 네 집중력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을 거야. 그 부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렇지만 어려운 부분은 바로 네게 맞는 약을 결정하는 일이란단다. 필기테스트와 질의 응답 식의 테스트를 통해서 네 행동을 도표화할 수 있지. 예를 들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거나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딴 짓을 하는 것 등등 말이다. 네가 이런 것에 대해 이미 알고 있지 않았다면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진 않았을 거야. 하지만 내가 알기로는 이미 너와 배네스씨가 이 문제에 관해 얘기를 나눈 것 같더구나.”

나는 이미 이런 문제들에 대해 그 동안 나를 가르쳤던 모든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다. 하지만 에드 어저씨가 전에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암전히 들어야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왼쪽 볼 안쪽을 잘근잘근 씹으며 잠자코 앉아있었다. 오른쪽 볼 안은 어제 씹어서 아직도 아팠기 때문이다.

“내가 내린 결론은 우리가 현재 의학적인 의미에서 볼 때 네 몸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너에게 적절한 약을 처방하려면 먼저 그런 것을 알아내야 하거든. 따라서 우리의 계획은 바로 이거다. 조이 네가 피츠버그에 있는 아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거야. 듣기에는 좀 무섭게 들리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검사야. 바로 뇌 단일광전자방출단층촬영이라고 불리는 검사지. 엑스레이촬영 같은 것인데 좀더 자세하게 그리고 컬러로 뇌를 촬영하는 거야. 하나도 아프지 않단다.”

“내 머리가 잘못된 건가요?” 내가 물었다. “이곳에서 머리가 잘못된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다들 정상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행동도 이상하게 하던데요.”

에드 아저씨가 끼어 들었다. “의사 선생님이 너한테 맞는 약을 알맞은 양만큼 주시기전에 네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거야.”

“그렇단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다.

“우리 엄마랑 같이 가도 되나요?”

“물론이지.” 의사 선생님이 대답했다. “사실 네 엄마는 꼭 함께 가셔야 한단다.”

“엄마가 시간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에드 아저씨를 쳐다보았다.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시간을 내실 수 있을 거야.” 에드 아저씨가 말했다. “걱정 마라.”

“조이야,” 주머니에서 청진기를 꺼내며 의사 선생님이 말하셨다. “심장소리를 좀 들어보자꾸나. 여기 바로 앉아보렴.” 그리고는 선생님은 종이시트가 씌워진 검사대 끝을 가볍게 두드렸다.

나는 에드 아저씨를 흘끗 쳐다보고는 일회용밴드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지만 아저씨는 아주 자랑스러운 듯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저씨가 정말 좋은 아빠처럼 보여서 나는 아무 말 없이 검사대위에 올라가서 앉았다.

의사선생님은 내 셔츠를 올려보시더니 매우 염려스러운 얼굴을 짓고는 다시 셔츠를 내렸다. “배네스씨,” 의사선생님이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랑 잠시 복도에서 얘기 좀 하실 까요?”

두 분이 방에서 나가자마자, 나는 일회용밴드를 떼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 개를 떼어내기도 전에 애드 아저씨가 방으로 다시 들어오셨다. “조이야,” 아저씨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의사선생님도 바로 뒤따라 들어오셨다. “의사선생님께 내가 한 짓을 말씀드리렴.”

나는 의사선생님을 쳐다보았다. “일회용밴드로 배를 장식해 보았어요.” 내가 말했다. “그게 뭐 큰 일인가요?”

“의사선생님은 내가 구타당한 줄 아셨잖니.” 애드 아저씨가 다시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폭행은 아주 큰 문제란다.”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할머니가 파리채로 때린 거 빼고는 아무도 저를 때리지 않았어요.”

의사선생님은 진찰을 계속하시고는 애드 아저씨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간호사에게 조이의 차트를 작성하라고 하세요.” 선생님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리고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하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의사선생님은 책상 쪽으로 가서 서류 가방을 닫으셨다. “이렇게 서둘러서 미안하구나, 조이야. 하지만 모든 검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약물치료에 대해서 어떤 결정도 내릴 수가 없어서 말이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거든.” 나는 일어나서 의사선생님과 악수를 했다. 그리고는 그 분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다. 엄마는 내게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저는 괜찮은 건가요?” 내가 물었다. 의사선생님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다. 왼쪽이나 오른쪽을 흘끔거리거나, 깜박이거나, 눈을 돌리거나, 문이나 시계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내 생각에 넌 괜찮을 것 같구나. 물론 의학적인 문제는 있지. 그리고 행동 면에서도 문제가 있긴 하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들은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지. 너의 뇌 상태는 괜찮다고 생각해. 넌 오랫동안 힘든 시기를 보내왔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만약 무엇인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잘 버텨오지 못했을 꺼야. 그러니 그저 확인차 검사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렴.”

“제 머리니까 알아들 필요가 있어서 여쭙본 거예요. 엄마도 알고 싶어하실 것이고요.”

에드 아저씨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의사선생님께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나머지 일은 제가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가 말했다. “계속 연락 드리죠.”

“안녕, 조이야.” 의사선생님이 말했다. “검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만나자구나.” 그리고 나서 의사선생님은 문을 열고 나가셨다. 나는 선생님이 복도를 걸어나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갑자기 ‘안녕하세요’나 ‘안녕히 가세요’ 라는 말도 모르는 두 살배기가 된 것처럼 의사선생님이 서 있던 자리를 향해서 계속 손을 흔들었다. 내가 뒤돌아서면 에드 아저씨가 일회용밴드 사건 때문에 야단을 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에서 눈을 떼기가 싫었다. 그러나 어저씨는 밴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대신에 손을 내 어깨에 올려놓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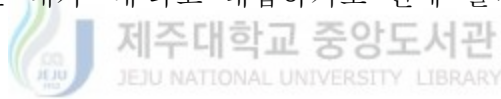
“그래, 기분이 좀 어떠니?” 아저씨가 물었다.

나는 희망적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엄마 말대로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것 말이다. 그러나 내 머리 안의 뭔가가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무서웠다. 나는 이미 머리에 문제가 있는 애들을 많이 봤었는데, 가장 끔찍한 점은 그 중 몇 명은 나와 비슷해 보였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아이처럼 보였었다. 그렇지만 나처럼, 그 애들도 뭔가가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다.

“별로 좋지 않아요.” 내가 대답했다. 무섭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전에 이 말을 너무 자주 했기 때문에 또다시 무섭다는 말을 하는 것은 너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꼭 내 머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엄마한테 전화해 보겠니?” 이렇게 묻고는 아저씨는 수화기를 들었다. 그리고는 내가 ‘네’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벌써 전화번호를 누르셨다.



12. 피츠버그

내가 엄마와 얘기를 하고 난 후, 에드 아저씨는 내일 피츠버그에 있는 병원에 가는 문제에 대해 엄마와 통화하셨다. 저녁 때 집에 오는 길에 엄마는 새 바지랑 셔츠를 사오셨다. 내일 병원에 갈 때 입을 옷이었다. “네가 깔끔하게 보였으면 해.” 내 머리를 살펴보며 엄마가 말했다. “깔끔하게 보이면 항상 최선을 다한 느낌이 들거든.”

다음 날 아침 일찍 밝은 아직 어두웠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세수를 했다. 버스를 타고 갈 것이기 때문에 새로 산 옷이 더럽혀질까봐 나는 예전에 입던 청바지와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티셔츠를 걸쳤다. 엄마가 샌드위치를 만들어 여행가방에 담은 동안, 나는 약을 먹

었고 엄마는 커피를 마셨다. 얼마 안 있어 택시가 도착해서 경적을 울렸다. 우리가 올라타자 곧바로 버스 역에 데려다주었다. 우리가 맨 처음 손님이었다. 버스 운전사가 출입문을 열자 우리는 버스에 올랐다. 나는 전에 학교버스와 시내 버스도 타봤었고 물론 특수교육 센터 버스도 타봤었다. 그렇지만 이렇게 커다란 그레이하운드 버스는 타본 적이 없었다. 그 버스가 단순히 버스였기 때문이 아니라 강아지 이름을 딴 버스였기 때문에 나는 무척 신이 났다.

우리는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가 있었다. 나는 맨 뒤쪽에 앉아서 긴 의자 전부를 차지하고 싶었다.

“안돼.” 엄마가 말했다. “화장실이 저 뒤에 있잖니.” 엄마는 조그마한 은색 문을 가리켰다. “뒤쪽에 앉으면 이상한 냄새가 나니까 편안하게 여행하려면 가운데 자리가 가장 좋아.”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네 아빠와 나는 버스를 많이 탔었거든.” 엄마가 대답했다. “해리스버그, 피츠버그,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전부 가봤어. 네 아빠는 항상 돌아다녔거든.”

“아빠는 피츠버그에 계실까요?” 내가 물었다.

“얘야, 네 아빠는 달나라에 계실지도 몰라. 어디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목소리로 엄마는 대꾸하셨다.

“하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아빠를 만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하지 마라, 조이야.” 엄마가 말했다. “만에 하나 보게 되더라도 널 알아보지 못할 테니까.”

아빠가 다른 아이들과 나를 구별하지 못 할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나는 아빠나 할머니조차 떠올리지 않으려고 노력

했다. 그렇지 않아도 내 머리 속이 엉망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생각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되던 참이라 나는 엄마가 말했듯이 뭔가 좋은 것을 생각해내려고 애썼다. 단 한가지라도. 나는 머리를 유리창에 기대고 잠이 들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다.

잠에서 깨었을 때 엄마는 내게 배가 고픈지 물었다. 배가 고프다고 하자 엄마는 음식을 꺼내셨다. 나는 가방 속에 챙겨온 강아지 책을 꺼냈다.

“숙제 먼저 해야하는 거 아니니?” 엄마가 명령조로 말했다.

“이거 먹고 난 다음에요.” 내가 졸라댔다. “그리고 나서 엄마가 숙제하는 거 도와주면 되잖아요.”

“좋아.” 엄마는 종이타월을 펼치고는 무릎 위에 샌드위치를 올려 놓았다. “하지만 속임수 쓰면 안돼. 맥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업진도에 맞춰서 숙제를 해야해.”

나는 강아지 책의 책장을 넘겼다. “난 이 강아지가 맘에 들어요.” 차이니즈 크레스티드 강아지를 가리키며 내가 말했다.

“머리 꼭대기에만 털이 있네.” 엄마가 말했다. “꼭 트롤 인형처럼 생겼구나.”

난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다. “이 강아지가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강아지예요.” 갈색 치와와를 가리키며 내가 말했다.

“이런, 거기에 조이 강아지가 있었구나.” 이렇게 말하고서 엄마는 내게 몸을 굽혀 뽀뽀를 하고는 머리카락이 뽑힌 곳을 다시 슬쩍 만지셨다.

“난 엄마의 강아지가 되는 법도 알아요.” 이렇게 말하고는 나는 머리를 피했다. “엄마가 떠난 후 할머니한테 엄마는 언제 오냐고 묻곤 했어요. 그러면 할머니는 ‘지금 아무 때라도’ 하고 대답했어요. 할

머니는 창문가에 의자를 하나 놓아두었는데 매일 저녁 나는 의자 위에 앉아 장난감이랑 책을 안고서 엄마를 기다렸어요. 할머니가 나를 의자에서 떠나지 못하게 해서 나는 의자 위에 섰다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가, 뒤쪽으로 흔들거리기도 하고 말처럼 타기도 하면서 엄마가 행여 오지 않을까 계속해서 거리를 살펴보았었죠. 어찌다가 쿠키나 잡지 혹은 교회 추천 티켓을 파는 아줌마가 걸어오는 게 보이면 벌떡 일어나서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내다보았어요. 그렇지만 나는 내가 누구를 찾고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어요. 전에 말했듯이 난 엄마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난 할머니한테 소리쳐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저 사람이 우리 엄마예요?’ 하고.”

“조이야,” 엄마가 말했다. “지금 할머니가 널 심하게 대했던 얘기를 하려는 거니?”

“네.” 내가 말했다.

“그 얘기는 벌써 여러 번 했잖니. 자꾸 들을 때마다 엄마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렇지만 이런 얘기는 한 번 말했다고 해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자꾸 자꾸 얘기해야만 하는 것이다. 과연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말이다. 나는 창 밖을 바라보며 에드 아저씨를 생각했다.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아저씨한테 얘기하고 있다고 상상했다. 아저씨한테는 생각만 하고 있었지 아직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창가에 앉아 엄마를 기다릴 때면 항상 할머니는 나를 놀려댔다. “널 좀 봐라.” 할머니는 말했다. “작은 강아지 새끼 같구나.”

그리고는 나에게 강아지 흉내를 내보라고 시켰다.

“굴러보렴.” 할머니는 명령하곤 했다. 그러면 나는 마룻바닥 위에 내려 와서는 벽에 부딪칠 때까지 데굴데굴 굴렀다. “앉아!” 할머니는 손뼉을 치며 소리쳤다. 그러면 나는 작은 팔을 내 얼굴 앞에 갖다대고 손목을 강아지 발처럼 구부리고는 앉았다. “짓어라!”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만약 내가 짓지 않으면 파리채를 들고서 내가 강아지로 가득 찬 애완 동물가게에서 나는 소리처럼 시끄럽게 소리를 지를 때까지 내 엉덩이를 찰싹찰싹 때렸다. 내가 좋아하는 명령이 하나 있긴 했다. “줄라봐!” 할머니가 명령하면 나는 강아지처럼 킁킁거리기 시작했다. “제발요오, 제에발요오, 제에발요오.” 할머니가 생활 보호연금을 타던 은행에 놓여진 어항 모양 유리그릇에서 한 움큼씩 집어온 사탕을 줄 때까지 계속 즐라댔다. 나는 그 사탕을 굉장히 좋아해서 전부 얻어낼 때까지 킁킁거렸다.

때때로 할머니는 내가 암전히 있지 않는다고 화가 단단히 나서는 전화벨이 울린 것처럼 가장하고는 수화기를 들고 말했다. “오, 그래? 오, 집에 돌아온다니 그것 참 좋구나. 언제 오겠다고? 오늘밤에? 오, 이런. 조이가 참 신나겠구나. 아주 신나겠어.”

사실이지 나는 무척 기뻐다. 그래서 전화코드를 잡아당겨서 수화기에다 대고 ‘빨리 와요!’라고 소리치려 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한 손으로 수화기를 꼭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나를 밀어냈다. 그리고는 “뭐라고? 조이가 목욕을 하고 자리에 가만히 암전히 앉아 있으면 좋겠다고? 오 그래, 노력해보마.” 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할머니가 수화기를 내려놓으면 나는 썩썩 수화기를 다시 집어들고 “엄마!”하고 소리쳐 불러보았지만 전화는 이미 끊긴 후였다. “자, 네 엄마를 실망시키지 말거라.”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면, 나는 욕실로 날

췌게 달려가서 온 몸이 빨개지도록 문질러 깨끗이 씻은 다음 잠옷으로 갈아입고 창가의 의자에 앉았다. 내가 아주 조금만 몸을 움찔거리도 할머니는 방 저쪽에서 퍼즐게임을 하다가 소리질렀다. “이런, 난 방금 네 엄마가 걸어오는 걸 봤는데, 네가 가만히 앉아 있지 않는 걸보고는 다시 가버리더구나. 못된 아이가 사는 집에는 돌아오고 싶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거짓말이에요!” 나는 소리쳤다. 그리고 나는 침착함을 잃고 안절부절못하면서 머리카락을 뽑아댔다. 한 움큼씩 뽑은 것이 아니라 한번에 한 개씩. 그래서 내 머리에는 머리털이 없는 반질반질한 둥근 부분이 생기게 된 것이다. 나쁜 행동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 할머니는 또다시 수화기를 집어들고 말했다. “뭐라고? 조이가 바보처럼 머리카락을 뽑는 것을 그만 두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알았다. 그리 전해주마.” 그리고 나서 할머니는 전화를 끊은 다음 나에게 말했다. “그 말 들었지, 조이야?” 그러면 나는 영영 울어버리고 말았다. 가만히 앉아 있지도 못하고, 무릎 위에 얹전히 손을 올리고 있지도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 싫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할머니는 다시금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그렇지만 내일 저녁에 또 돌아오도록 노력해보겠다는 말이나? 오, 참 고맙구나. 이런 꼬마녀석을 그렇게 사랑하다니 천사가 따로 없구나. 조이에게 창가에 앉아있으라고 말해놓겠다. 그래, 그 애가 얹전히 앉아 있나 지나가다 몰래 살펴봐서 만약 가만히 앉아 있으면 집에 돌아올 거라고 조이에게 전해주마.”

그러면 다음 날 저녁에도 나는 엄지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어김없이 의자 위에 앉아있었다. 그러다가 어떤 아줌마가 길을 걸어내려 오기라도 하면 몸을 똑바로 세우고 정말로 가만히 앉아 있곤 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가고 나면 다시 풀이 죽어 웅크리고 앉았다. 내가 착하게 보인 사람이 우리 엄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모르는 아줌마들을 향해서 자주 웃으면서 손을 흔들며 보이곤 했기 때문에 어느 날인가 현관 앞에서 놀고 있을 때 한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나를 가리키며 자기 딸아이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들은 적도 있었다. “저기 저 소년은 창가에 앉아서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어주는 착한 아이란다.” 그러면 나는 다시 손을 흔들어주었다. 그러자 함께 있던 소녀는 “엄마, 재머리는 왜 저래요?” 하고 말했다. 내 머리에는 머리카락을 뽑혀서 생긴 구멍처럼 보이는 반질반질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창 밖에서 눈을 돌려 과거와 할머니에 대한 생각에서 빠져나왔다. 엄마를 쳐다보니 엄마는 손톱손질을 하고 있었다. “엄마랑 얘기해도 되요?” 내가 물었다.

“전에 자꾸 했던 말이 아니라면 해도 좋아.” 엄마가 말했다.

“알았어요. 내가 강아지를 갖고 싶어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강아지가 매일 창가에 앉아서 날 기다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나는 매일 강아지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갈 거예요. 엄마는 나를 찾아오지 않았지만 난 강아지한테 매일 돌아갈 거라고 약속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잘 보살펴 줄 거예요. 내가 예전에 느꼈던 마음을 강아지가 느끼게 하고 싶진 않거든요. 만약 검사 결과가 좋으면 축하하는 의미에서 나에게 강아지를 사줘야하고, 결과가 나쁘게 나온다면 강아지를 사줘야 해요. 왜냐하면 마침내 내 머리 속이 엉망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고 아무도 고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엄마는 나에게 정말 잘 대해줘야 하잖아요. 어느 경우든, 난 강아지를 갖게 될 거예요.”

내가 말을 마치고 엄마를 바라보자 엄마는 머리를 앞좌석 쪽에 기대고 있었다. 내가 한 말이 전부 무거운 돌처럼 엄마 머리 속에 가득 차서 잠시 머리를 기대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 에드 아저씨는 언젠가 내가 엄마한테 화가 나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 한 적이 있었는데 아저씨 말이 옳았다.

“그런데, 내가 널 것처럼 힘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날 사랑하는 거니?” 잠시 후에 엄마가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리고 손톱 줄을 지갑 속에 다시 넣으셨다. “왜지?” “왜 그런지 나도 몰라요.” 내가 말했다.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엄마는 우리 엄마니까 사랑하는 거죠. 어쨌거나 엄마도 날 사랑하고, 그리고 내 머리는 영원히 엉망진창일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라.” 엄마는 내 뺨에 뽀뽀를 해주었다. 그리고는 깔끔하게 보이면 내 상태가 더 나아지더라도 하듯 내 옷매무새를 매만져주고 머리를 가지런히 넘겨주셨다.

“강아지는요?” 내가 물었다.

“집에 돌아가면 한 마리 기르자구나.”

“야호, 신난다.” 나는 공중에 주먹을 지르며 소리쳤다. “마리아도 강아지를 기르던걸요. 강아지를 기르기 위해서 누군가 내 코를 자를 때까지 기다리고 싶진 않았거든요.”

“마리아는 참 착한 아이일거야.” 엄마가 말했다. “그러니까 그 애에 대해서 쓸데없는 소리하면 안돼, 알겠지?”

“네.” 이렇게 대답하고 나는 다시 강아지 책의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다.

“네 치료법을 찾아낼 거야, 조이.” 엄마가 말했다.

“아뇨, 못 찾아낼 거예요.” 내가 대답했다. “치료법이 없는 걸요.”

“음,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야.” 엄마가 말했다.

“알아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치료약이 없대구요. 의사선생님이랑 에드 아저씨가 그렇게 말하셨어요.”

“네가 어떤 약을 한 알 먹어서 모든 게 감쪽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을 말하는 게 아니야.” 엄마가 말했다.

“그럼 뭘 말하는 건데요?” 내가 말했다. 갑자기 내 자신이 스프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갑자기 의자에 앉아 있고 싶지도 않았고 창 밖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굉장히 흐릿하게 보이면서 내 머리 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가득 찼다.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뭘 말하려는 건지 말해봐요.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그 말을 계속 되풀이하면 다른 생각을 해낼 수 있는 것처럼 나는 계속 똑같은 말을 되뇌었다. 하지만 나는 다른 생각이 아닌 계속 그 생각에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좀 더 큰 소리로, 좀 더 심술궂게 내가 소리쳤다.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애야, 진정하렴.” 엄마는 속삭이며 내 손을 꼭 쥐었다. “잠깐 화장실에 다녀 오자구나.”

엄마는 나를 자리에서 일으켜 세운 다음 내 손을 꼭 잡고 통로로 나를 끌고 갔다. 나는 계속해서 이 쪽 저 쪽으로 기우뚱거리며 사람들과 부딪쳤다.

“죄송합니다.” 엄마는 그 사람들에게 계속 사과했다. “죄송해요.”

그리고 보니, 엄마는 미안해한다. 엄마는 항상 미안해한다.

화장실 안은 매우 비좁았다. 엄마는 화장실 문을 열고 변기 뚜껑 위에 앉았다. 나는 엄마 쪽으로 몸을 기댔다. 엄마는 화장실 문을 내 엉덩이로 겨우 눌러 닫아 잠근 후에 지갑을 열었다. 엄마가 약을

꺼내자 나는 입을 벌렸다.

“다시 엄마의 착한 아기 새가 되어주렴.” 엄마가 조용히 속삭이면서 약을 내 입안에 넣어주었다.

엄마와 나는 그 상태로 한 동안 있었다. 버스가 길을 덜컹거리며 달려 내려가자, 온 세상이 흔들거리며 한없이 계단 밑으로 튕겨져 내려가는 것 같았다.

“고백할게 있단다.” 오랜 침묵 후에 엄마가 입을 여셨다.

“뭘데요?”

“너랑 함께 살고 싶은 때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 난 돌아올 상황이 아니었어. 네 아빠랑 같이 술을 마시면서 내 자신을 돌보지 않았거든. 그래서 내가 돌아가기로 결심했을 때에서야 나는 널 보러갔어. 너를 보면 내 자신을 추스르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야. 그렇지만 맹세컨대, 네가 창문가에 앉아있는 걸 보지 못했어. 그리고 할머니가 너한테 시킨 것에 대해서도 몰랐었다.”

나는 내 뺨을 엄마 머리 위에 갖다 대고는 엄마의 머리 향을 맡았다. 엄마는 미용용품이 많이 바르기 때문에 머리에서는 항상 달콤한 크림 향이 났다. 우리는 버스가 멈추고 운전사가 화장실 문을 두드릴 때까지 그대로 있었다.

“피츠버그입니다.” 그가 말했다. “어서 나오세요.”

13. 달에 간 남자

병원에 도착한 후 몇 분만에 검사는 모두 끝났다. 먼저,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방사선과에 갔다. 간호사가 나에게 인사를 건네는 동안 엄마는 데스크에 앉아 있는 직원에게서 작성할 서류를 받아오

했다. “다 작성하시면, 3번 방으로 오세요.” 간호사가 말했다.

검사실에 들어가자마자 나는 일회용 밴드가 담긴 유리병을 발견했다. “하나 가져도 되나요?” 내가 물었다.

“물론이지.” 간호사는 손수 유리병을 열고서 일회용 밴드를 딱 한 개 꺼낸 다음 내 윗주머니에 넣어주었다. 그러더니 내가 하나 더 달라고 하기도 전에 유리병을 선반 맨 위에 올려놓았다. “자, 이제 옷을 벗고 이걸 입도록 하렴.” 간호사가 얇은 흰 가운을 건네주었다.

“그렇지만 제 옷은 새 건데요.” 내가 말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갈아입은 거예요.”

간호사는 미소를 지었다. “걱정하지 마라. 잘 보관해 둘 테니까. 그리고 이 고무로 된 마우스피스를 아주 꼭 물도록 해. 네 턱하고 이를 꼭 다물고 있어야 해. 사진 찍는 동안 머리가 절대 움직이면 안 되니까.”



“하지만 사진 찍을 때 입으려고 새 옷도 산 건데요.” 내가 말했다.

“그런 사진이 아니란다.” 간호사가 말했다.

“알겠어요.” 이번에는 잘못을 저지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순순히 대답했다.

“자, 이제 준비를 해야겠다.” 문 밖으로 반쯤 나가다 말고 간호사가 말했다. “이 검사는 하나도 아프지 않고, 오래 걸리지도 않을 거야. 다른 아이들도 전에 이 검사를 많이 받았었어. 아주 식은 죽 먹기란다. 제일 중요한 것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는 거야.”

간호사가 나가자마자 나는 의자를 선반 쪽으로 밀고 가서는 그 위에 올라서서 유리병을 열었다. 일회용밴드를 한 움큼 쥐어서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 의자에서 내려와서 의자를 제자리에 갖다 둔 다음 옷을 갈아입었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서 실수를 저지를 틈도 없었다. 간호사는 나를 환한 방으로 데려가서 검사대 위에 올라가도록 도와줬다. 그리고 등을 대고 똑바로 눕게 한 다음 마치 내가 점토로 만들어진 실리퍼티 인형인냥 바른 자세가 나올 때까지 팔다리와 어깨를 정해진 위치에 이리저리 맞춰 넣었다.

“자, 이제 그대로 가만히 누워서 미라처럼 움직이지 마라.” 간호사가 말했다. “눈을 움직여도 안돼.”

나는 눈을 감았다. 간호사의 발자국소리가 재빨리 멀어져갔다. 다른 쪽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고 이윽고 사진 찍는 기계가 웅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천천히 내 위를 지나갔다. 그러자 내 머리는 마치 벌이 가득 들어있는 벌집처럼 웅웅거렸다. 나는 항상 벌과 꿀을 무척 좋아했다. 그래서 말린 호두같은 머리를 가진 오래된 미라가 되기보다는 벌을 떠올리는 편이 훨씬 기분이 좋았다. 갑자기 웅웅거리는 소리가 멈췄고 검사는 끝났다.

이윽고 문이 열리더니 내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이제 눈을 떠도 좋아.” 간호사가 말했다. “그리고 눈을 움직여도 돼.” 간호사는 고무 마우스피스를 빼내서 작은 흰 가방에 담았다. “일어나렴. 아주 잘했다. 움찔거리지도 않고 기침도 않고 재채기도 않고 말이야. 가만히 있는 것에 아주 프로구나.”

내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벌써 좋아지고 있나봐요.”

“그러게 말이다.” 간호사가 대답했다. “자, 따라오렴.”

엄마는 검사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어떻게 됐니?” 내 머리에 키스를 하며 엄마가 물었다.

“내 머리는 별로 가득 차 있나봐요.” 내가 대답했다.

엄마가 얼굴을 찡그리며 웃었다. “머리 가지고 농담하지 마라.” 엄

마가 말했다. “겁나잖니.”

엄마가 겁을 먹으니 나도 갑자기 무서워져서 빨리 병원에서 나가
고 싶어졌다. 빨리 옷을 갈아입은 다음, 엄마와 나는 모두에게 고맙
다는 인사를 했다. 간호사가 검사결과는 곧바로 의사선생님께 보낼
거라고 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엘리베이
터 문이 닫히자 한결 기분이 나아졌다.

“난 병원이 싫어요.” 내가 엄마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병원에는 선물가게가 있는 거란다.” 그리고는 엄마는
한 팔로 여행 가방을 든채 다른 한 팔로는 나를 감싸안았다.

“어떤 선물을 살까요?” 내가 물었다. “뭘 사죠?”

“규칙이 있다는 거 기억하지?” 엄마가 내 기억을 상기시켰다. “엄
마 지갑이 훌쩍하다는 거 잊으면 안돼.”

우리는 선물가게에 들어갔다. 그러자 나는 머리가 다시 뿡뿡거리
움을 느꼈다. 가게 안은 내가 이제까지 본 것 중에 가장 멋진 물건
들로 가득했다.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장난감들
만 모아둔 것 같았다. 실제 아이 크기 만한 인형들이 동물원처럼 가
득 진열되어 있었다. 나는 기린을 가리켰다.

“꿈도 꾸지 마라.” 엄마가 말했다.

“내가 직접 운전할 수 있는 저 큰 자동차 장난감은요?”

“안돼.”

“저 오후운드 짜리 병에 담긴 땅콩사탕은요?”

“안돼.”

“그럼 도대체 뭐가 되는데요? 어떤 거요?”

“적당한 걸로 고르렴, 조이야.” 엄마가 말했다. “네 호주머니 안에
들어갈 만한 걸로 하나 고르렴.”

“엄마는 나를 안됐다고 생각해야 하잖아요.” 내가 말했다.

“내가 너에 대해 느끼는 것과 실제로 사줄 수 있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야.” 엄마가 말했다. “게다가 넌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나는 약간 심술궂은 목소리로 엄마가 한 말을 흉내냈다. 그리고는 엽서걸이 쪽으로 발을 쿵쿵거리며 걸어갔다. “그냥 카드나 살래요.” 내가 야단스레 큰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내 머리가 별집이 아니라 마구 휘저어 놓은 스크램블 달걀처럼 생겼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뭔가 좋은 선물을 사고 싶었다.

“카드는 참 좋은 기념품이 될 거야.” 가게 점원이 무슨 도둑 보듯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는 여느 엄마들처럼 말했다.

내가 한 손으로 엽서걸이를 꽉 잡고는 최대한 빠르게 돌리는 바람에 옆에서 카드를 뽑으려던 한 부인의 손가락이 하마터면 잘릴 뻔했다. 그 부인은 전에 애미쉬 농장에서 봤던 올빼미처럼 놀란 표정을 짓더니 비니 베이비 인형 진열대 쪽으로 가버렸다. 엽서걸이를 계속해서 더 빨리 돌려대자 엽서는 돌풍처럼 휘휘 돌면서 엽서걸이에서 떨어져 나와 바닥에 흩어졌다.

“조이야!” 엄마가 나를 붙들며 나무랐다. “조이야, 그만 두지 못하겠니?”

나는 그만 둘 생각이 없었지만 엄마가 나를 멈춰 세웠다. 엄마는 한 손으로는 나를 꽉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엽서걸이를 잡았다. 엽서걸이는 거의 바닥에 넘어질 뻔했지만 넘어지지는 않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빙글빙글 돌면서 비틀거렸다. “자, 엄마가 이거 줘는 것 줘 도와주렴.” 허리를 굽혀 카드를 주우며 엄마가 말했다.

나는 강아지처럼 엮으려서는 엽서를 입에 물었다.

“그만 하라니까.” 엄마가 화를 내며 내 입에서 엽서를 빼냈다. “네 침이 묻은 카드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 주머니에 속 들어갈 만한 것 중에서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뭔데?”

“치와와 강아지요.”

“생각해 보고 말해주마.” 엄마는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점원이 다가와서는 우리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도와드릴까요?” 그 말은 마치 우리가 나가도록 도와주겠다는 말처럼 들렸다.

“여기 치와와도 파나요?” 엄마가 물었다.

“치와와는 없는데요.” 점원은 얼굴에 억지 미소를 지어 보이며 엽서걸이를 정돈하기 시작했다.

“그럼 다른 가게에 가서 알아봐야 쟈네요.” 엄마가 오만한 손님처럼 말했다. 엄마는 내 손을 잡고 로비를 지나 그 곳을 빠져 나왔다. 그리고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걸었다.

잠시 후에 엄마는 가방을 내려놓고는 은행 시계를 쳐다봤다. “시간이 좀 남았네. 잠깐 시내 관광이나 하자구나.”

“좋아요.” 내가 말했다. “이글루에 펭귄 보러 가요.”

“시합도 없는데 하키 링크장에 우리를 들여 보내줄 것 같진 않구나.” 엄마가 말했다. “엄마는 PPG빌딩의 전망대에 올라가서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면 좋겠는데 말이야.”

“거기에 망원경도 있나요?”

“아마 있을 거야.” 엄마가 말했다. 하지만 엄마는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제발 그 곳에 망원경이 있기를 바랐다. 내 마음속에는 별 말고도 어떤 생각이 웅웅거리며 떠오르고 있

었기 때문이다. 피츠버그에서 뭘 찾고 싶어하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PPG빌딩에 도착해서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50층 가량을 올라갔다. 엘리베이터가 높이 올라가자 엄마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뭘미를 하는 것 같구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엄마가 말했다. 우리는 큰 창문가에 쭈욱 늘어서 있는 망원경 쪽으로 걸어갔다. 엄마는 자리에 앉아서 심호흡을 하셨다.

“망원경 보게 25센트 동전 하나만 주세요.” 내가 말했다.

엄마는 지갑에서 동전 하나를 꺼내주셨다. 나는 작은 철제 발판 위에 올라서서 투입구에 동전을 집어넣고는 조그만 구멍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망원경을 피츠버그에서 가능한 한 멀리 하늘 쪽으로 들어올렸다.

“뭘 보는 거니?” 엄마가 물었다.

“달이요.” 내가 말했다. “아빠가 달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엄마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올라온 거니? 네 아빠 찾으려고?”

“여기 오자고 한 건 엄마였어요.” 그리고는 나는 망원경을 돌려 엄마 쪽으로 향하게 했다. “엄마, 웃어봐요.” 내가 말했다. 그렇지만 엄마 얼굴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모든 것이 너무 흐릿하게 보였기 때문에 엄마가 웃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망원경을 밑으로 향하게 해서 사람들이 거리를 오가는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그들 중 한 명이 우리 아빠일수도 있었다. “아빠한테 전화해 보면 안되나요?” 내가 물었다.

“안돼. 엄마를 속이고 전화할 생각하지 마라, 조이.” 엄마가 말했다. “네 아빠를 찾으러 여기 온 게 아니야.”

“그냥 한 번 물어본 거예요.” 내가 말했다. “아빠를 만나보고 싶어요.”

“글세,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구나.” 엄마가 말했다. “네가 네 아빠를 좋아할 것 같지가 않거든.”

“이거 기억해요?” 내가 말했다. “엄마가 돌아오기 전에 할머니는 엄마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면서 내가 엄마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했었어요. 그렇지만 엄마가 돌아왔을 때 난 엄마를 좋아했어요. 아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약 아빠를 만나면, 아빠를 좋아하게 될 거예요.”

“내 말 믿으렴.” 엄마가 말했다. “넌 아빠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내가 말했다. “하지만 아빠를 직접 만나보기 전에는 확실히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나는 망원경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술집을 들여다보면 혹시 모르겠구나.” 엄마가 말했다. “그 안에 술 취한 채 붉은 돼지처럼 생긴 피그자 얼굴을 한 작달만하고 안절부절못하는 어떤 남자가 보인다면 그 사람이 네 아빠일거야.”

“사람들도 아빠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나요?” 내가 물었다.

“네 아빠가 안됐다고 생각하진 마라.” 엄마가 말했다. “그 사람은 그저 떠돌아다니면서 문제만 일으키거든.”

“어쩌면 술을 끊었을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말했다.

“그건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그만두는 격이란다.” 엄마가 냉소적으로 대답했다.

“날 낳아준 아빠를 만나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말했다.

망원경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다 되어서 화면이 까맣게 변

해버렸다. 내가 엄마를 쳐다보자 엄마가 말했다. “이제 동전 가진 게 없어.”

나는 발판에서 내려와 공중전화 쪽으로 걸어갔다. “전화번호부에서 아빠 이름을 찾아 보는 건 괜찮잖아요.” 엄마가 벌떡 일어나서 뒤를 따라오자 내가 말했다.

“네가 아빠를 만나보고 싶어하는 거 알아.” 엄마가 말했다. “아빠를 만나보는 것이 네게 좋을 거라는 것도 알고. 그렇지만 걱정되는 건 말이야. 네 아빠가 지금 어떤 모습일까 하는 거야. 그 사람은 술 취해 있을 수도 있고, 정신이 멀쩡한 상태일수도 있고, 친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 뱀처럼 비열할 지도 몰라. 네 아빠가 착실히 자리를 잡고 산다는 확신만 있다면 서로 만나볼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 점에 대해 확신을 갖기 전에는 널 실망시킬지도 모르는 네 아빠를 만날 생각이 없다. 내 말 이해하겠니?”

나는 전화번호부를 넘겨 ‘피’부분을 펼쳐보았다. 그리고는 페이지를 넘겨가며 손가락으로 이름들을 짚어 확인해 갔다. 카터 피그자나 할머니 피그자와 같은 이름은 없었다.

“흠,” 엄마가 말했다. “이제 만족하니?”

“아뇨.” 내가 말했다. 나는 아빠가 술을 그만 마시고 나를 만나고 싶어하기를 바랐다.

엄마는 벽에 붙은 시계들을 쳐다보고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각각의 시계는 여러 나라의 시간을 보여주고 있었다. 런던에 사는 사람들이 잠자리에 드는 때에 도쿄에 사는 사람들은 일어나는 것이다. “자, 이제 버스 타러 가야겠구나.” 엄마가 말했다. “집에 갈 시간이다.”

엄마가 말한 ‘집’은 바로 우리 집을 의미했다. 아빠 없이 엄마와

내가 사는 집 말이다. 그리고 우리 집은 결코 아빠 집이 아닌 것이다. 내가 만약 아빠를 만나러 가게 된다면 나는 아빠 집까지 가야만 할 것이다. 그 곳이 어디인지간에.

14. 새로운 약

일주일 후 엄마와 나, 에드 아저씨는 의사선생님과 함께 사무실에 앉아있었다.

“검사 결과는 매우 낙관적입니다.” 의사선생님이 미소지으며 말씀 하셨다. “조이의 두뇌가 건강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나는 너무 기뻐서 불쑥 끼어 들었다. “거봐요.” 내가 엄마에게 말했다. 그러자 엄마는 손가락을 입에 갖다대며 심각한 표정을 지어 보이셨다.



의사선생님은 계속 말을 이었다. “조이야, 네 문제는 신경학적으로 봤을 때 그리 심각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적절한 약을 찾아서 적당한 양을 투여하는 거야. 나는 피부에 붙이는 패치를 사용하도록 권하겠다. 그건 큰 동그란 모양의 일회용 밴드 같은 건데...”

의사선생님이 ‘일회용 밴드’라는 말을 하자 내 귀가 번쩍 띄었다.

“... 그것은 한 번 붙이면 하루 동안 효력이 지속되고 피부를 통해 약 성분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스며들기 때문에 알약을 먹을 때처럼 기분이 들쭉날쭉 바뀌는 일은 없을 거다. 목표는 네가 정상적인 집중력을 기를 수 있게 하는 거야. 일단 그렇게 되면 다른 행동 치료 요법과 긍정적인 가정환경 등도 네 행동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거야.”

의사선생님이 ‘가정환경’이라는 말을 하자 엄마는 아랫입술을 지
곳이 깨물더니 포갠 다리를 바로 똑바로 한 다음 치마를 내리고는
다시 반대편으로 다리를 포갠다. 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한 다는 것
이 어떤 느낌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손을 뻗어 엄마 손을 꼭
잡아주었다.

의사선생님은 엄마와 잠시동안 얘기를 나눈 후 엄마에게 읽고 서
명을 할 몇 가지 서류들을 건네 주셨다. 그리고 나서 서류 가방에서
상자 하나를 꺼내셨다. 그리고는 상자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가장
자리를 뜯은 다음 투명한 패치를 떼어냈다. 그 때 맨 처음 내게 떠
오른 것은 사인펜을 사용해서 그것으로 멋진 문신을 만들면 좋겠다
는 생각이었다.

“조이야, ” 의사선생님이 말했다. “셔츠를 잠깐 벗어보거라.”

나는 일어나서 티셔츠를 배 위까지 끌어올렸다. 내가 미처 티셔츠
를 다 벗기도 전에 엄마가 놀라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배 위에 일
회용 밴드로 강아지 얼굴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었다.

“괜찮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엄마에게 말했다. “다른 아이들도 마
찬가지이니깐요. 일회용밴드를 싫어하는 아이는 없답니다.”

“저는 치와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에드 아저씨를 향해 싱
긋 웃어 보였다. 아저씨는 내가 예상한 대로 행동하고 있었다. 이것
은 내 머리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했다. 아저씨는 웃음을
참느라 애쓰고 있었다. 지난번에 아저씨는 무척 화를 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이다. 나는 어디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단지 장
난꾸러기 아이일 뿐이었다. 나는 점점 나아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나
를 더 좋아하게 될 것이었다.

“오늘 한 마리 사자꾸나.” 이렇게 말하고는 약간 무안한 듯 엄마

는 발끝을 쳐다보았다.

“이것을 네 옆구리에 붙여주마.” 의사선생님은 패치를 내 옆구리에 잘 펴서 붙여주셨다. “이제 24시간 동안 이걸 붙이고 있거라. 샤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잠시 떼었다가 샤워 후에 다시 붙이도록 하렴. 이제 됐다.” 의사선생님은 나를 올려다보고는 미소지으셨다. “넌 괜찮을 거야.” 의사선생님이 말했다. “이제 너는 새로운 약을 테스트하는 프로젝트의 일원이 된 거야. 이 약은 이미 많은 아이들에게 아주 효과가 있었단다. 그렇지만 만약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배가 아프거나 하면 네 엄마에게 곧바로 말하도록 해라. 그러면 다른 약을 시도해 볼 테니까 말이야. 빨리 알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너만 믿는다.”

나는 다시 한번 싱긋 웃고는 에드 아저씨를 쳐다보았다. “만약 내가 우리 집 열쇠를 삼키는 걸 보면 약 효과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요.” 내가 말했다.

“기억해두마.” 아저씨가 웃으며 대답했다.

의사선생님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손을 내미셨다. “피그자 부인, 만나서 매우 반가웠습니다.” 의사선생님이 말했다.

“저두요.” 이렇게 대답하며 엄마는 의사선생님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를 보며 엄마가 의사선생님을 정말로 좋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엄마도 패치를 붙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엄마가 이처럼 남자에게 상냥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에드 아저씨가 말했다. “물어볼게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가 말했다.

“꼭 연락주세요.” 에드 아저씨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서 엄마에게 건네주셨다. “우리 모두 조이가 잘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엄마는 지갑을 열어 안주머니에 명함을 집어넣으셨다. 그리고 그 손이 나올 때는 티슈 한 장이 들려있었다. 엄마는 고개를 돌려 눈가를 닦으셨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듯이 나를 더듬어 찾았다.

에드 아저씨가 문을 열었다. “내일 보자꾸나.” 아저씨가 나에게 말했다. “앞으로 몇 주간은 숙제도 해야하고 행동에 관한 수업도 들어야 하니까 말이다.”

“물론이죠.” 내가 말했다.

엘리베이터를 타러가면서 나는 엄마에게 혹시 의사선생님이나 에드 아저씨와 데이트를 하고 싶은지 물었다. “아니야.” 엄마는 티슈를 공중에다 흔들며 터무니없는 생각이라는 듯 대답했다. “절대 아니야. 내가 다룰 수 있는 남자는 세상에 너 하나 뿐이란다.” 엄마가 말했다. “난 그저 널 좋아해 주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뿐이야.” 엄마가 나를 엄마 옆구리 쪽으로 끌어당기자 나는 얼굴을 엄마 몸에 꼭 갖다댔다. 우리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까지 그렇게 서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은 하루에도 수 백 번 열리고 닫힌다. 하지만 우리가 로비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그것은 마치 나를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해주는 아주 특별한 순간처럼 여겨졌다. 거기에 서서 나는 마침내 더 나아지기 위한 올바른 길로 한 걸음 내딛었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정말로 더 나아지고 있는 것이었다.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차례인 것이다. 다시 일을 엉망진창으로 망치지 않는 한 나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리고 싶지 않았다.

“자, 어서 내리자, 조이야.” 엘리베이터 문이 막 닫히려 했으므로 엄마가 내 손을 잡아끌었다. 나는 나만의 생각에서 빠져 나와 엘리베이터 문에 서서는 삼손처럼 팔을 벌려 문이 닫히지 않게 잡았다. 엄마는 내 팔 밑으로 살짝 몸을 굽혀 빠져나갔고 나도 엄마를 따라 엘리베이터 밖으로 뛰어나왔다.

“난 엘리베이터가 무척 좋아요”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는 도중에 내가 말했다.

“난 엘리베이터를 타면 멀미를 해.” 엄마가 말했다.

맞다. 엄마는 멀미를 했었다.

아마 그것은 새로운 약이 효과가 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에드 아저씨가 말했던 것 때문일 것이다. 아저씨는 내 모든 문제가 단순히 내가 과민하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했다. “어느 정도는 태도의 문제이기도 해.” 아저씨는 그렇게 말했다. “만약 네가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면 상황이 훨씬 나아질 거야.” 아저씨 말씀이 옳았다. 여전히 나는 조이 피그자이고, 약을 먹고, 특수교육센터에 다니지만, 예전과는 뭔가 느낌이 달랐다. 마치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느끼는 그런 기분이 들었다.

거리를 걸어 내려올 때 엄마는 의사선생님이 주신 패치가 들어있는 상자를 꺼내셨다. “이건 일회용밴드가 아니야.” 상자를 손톱으로 툭툭 치며 엄마가 말했다.

“나도 그쯤은 알아요.” 내가 말했다. “난 바보가 아니라구요. 머리 사진도 찍었는데 아무 이상 없었잖아요.”

“그래, 고맙구나.” 엄마가 머리카락이 빠진 주위의 머리카락을 흘뜨려 놓자 나는 엄마 손을 피했다.

“다시 자랄 거예요.” 내가 말했다. “자꾸 만지지 말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엄마한테도 패치를 붙여줄 거예요.”

“머리카락 뽑지마. 그러면 엄마도 안 만질게.” 엄마가 말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애완 동물가게로 갔다. 나는 정말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온 듯한 기분이 들어서 얼굴에 웃음을 가득 지었다. 그렇지만 그 애완 동물가게에서는 치와와 강아지를 팔지 않고 앞으로 팔 계획이 없다는 것을 알게되자 곧 시무룩해졌다. 애완동물 가게 점원은 내가 이 지구상에서 치와와를 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듯한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았다.

“치와와는 매우 예민하단다.” 점원이 설명했다. “그리고 항상 시끄럽게 짖어대지.”

“그래서 꼭 기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대답했다.

점원은 로트웨일러나 핏 불 아니면 빨간 두견 동화에서 할머니를 잡아먹은 늑대처럼 생긴 개를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했다. 나는 잠시동안 늑대처럼 생긴 개를 살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만약 할머니가 돌아오면 할머니를 통째로 삼켜버리게 말이다.

“그건 그냥 동화일 뿐이야.” 늑대처럼 생긴 개가 할머니를 삼킬 수 있는지 물어보니 점원이 대답했다.

“착하게 굴어야지.” 점원이 다른 손님과 얘기하느라 잠깐 자리를 비우자 엄마가 나에게 속삭였다. “엄마가 없었을 때 그래도 할머니가 널 보살펴 주셨잖아.”

나도 늑대가 할머니를 삼켜버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나는 에드 아저씨나 엄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착한 아이가 되려고 노력 중이었다. 물론 할머니가 나에게 것처럼 끔찍한 행동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할머니를 사랑했다. 착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다. 아마 이런 것이 점점 나아진다는 것의 의미가 아닐까 싶었다. 자신에게 못되게 대했던 사람까지도 용서해줄 수 있게 되는 것 말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강아지를 사지 않았고 나는 무척 실망했다. 그러나 특수교육센터에 다니는 동안 엄마와 나는 쓰리프티 니켈 무료 신문을 매일 매일 훑어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에서 반은 치와와이고 반은 닥스훈트인 강아지에 대한 광고를 발견했다. 우리는 거기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고, 한 남자가 신발 상자에 강아지 한 마리를 넣어서 우리 집에 데리고 왔다. 그 강아지야말로 내가 찾던 바로 그 강아지였다. 반만 치와와였기 때문에 짧은 다리와 핫도그처럼 볼록 나온 배만 제외한다면 생김새는 꽤 괜찮았다. 그리고 반은 닥스훈트여서 다른 치와와보다는 덜 예민한 편이었다. 그래도 물론 굉장히 많이 짖기는 했지만 말이다. 나는 그 강아지에게 파블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파블로 피그자. 줄여서 피피(P.P.)라고 했다.

우리는 정말 환상적인 콤비였다. 우리 집 식구가 된 직후부터 파블로는 창가에 앉아 나를 기다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짖어댈기 때문이다. 엄마는 짖는 소리 때문에 정신이 나갈 지경이고 TV 볼륨도 크게 높여야 한다고 불평이셨다. 그러면서 파블로를 조용하게 만드는데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내가 쓰다 남은 패치를 잘라서 파블로 배에 붙여보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효과 없을걸요.” 내가 말했다.

“그러면 고무줄로 입을 퐁퐁 묶어두던지.” 엄마가 말했다. “그 강아지 정말 예전의 너같구나.”

“그때도 엄마는 날 사랑했었잖아요.” 내가 말했다.

“그렇지만 내가 저 강아지를 사랑해야 할 의무는 없어.” 엄마가 말했다.

나는 길다란 파블로의 배를 안아 올려서 파블로를 엄마 귀에 갖다댔다. 그러자 파블로는 엄마 귀를 훑으면서 간질였다. “파블로를 사랑한다고 말해요.” 내가 말했다. “말하라구요.”

파블로를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파블로는 꼭 나와 같기 때문이다. 엉망이지만 사랑스러운 것이다.

엄마는 행복했다. “그래,” 엄마가 말했다. “나는 파블로를 사랑한다.”

“정말로 사랑한다고 느끼면 사랑한다고 말해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는 파블로의 코를 엄마 귀에 비벼댔다.

“오, 그래. 난 파블로를 사랑해.” 엄마가 소리치르며 머리를 뒤로 제쳤다. “엄마는 파블로 없인 못산단다.”

“훨씬 낫네요.” 내가 말했다. “파블로와 나는 이제 기분이 훨씬 좋아졌어요.”

15. 다시 여기에

의사선생님은 패치의 효능이 전에 알약을 먹었을 때처럼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었다. 패치는 알약과는 다른 약물이기 때문에 “약발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그렇지만 맹세하건대, 처음 패치를 붙인 날부터 나는 천천히 멈춰가는 그네에 탄 듯 서서히 안정되어 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이 사실을 에드 아저씨한테 말하자 아저씨는 좋은 징조라고 하셨다. 즉, 이것은 나에게 항상

적절량의 약물이 투여되어서 갑자기 흥분했다가 갑자기 죽은 듯이 힘이 빠졌다가 다시 또 흥분하는 것처럼 급격하게 기분이 변하지 않게 된 것이었다.

참 대단한 일이었다. 일단 내가 침착해져서 특수교육센터에서 열심히 공부하게 되자, 매사는 꽤 빠르게 흘러갔다. 나머지 2주는 쓴살같이 지나가서 막상 그 곳을 떠날 때가 되자 시간은 그리 많이 지난 것 같지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무척 많이 변해있었다. 물론 한꺼번에 몽땅 변한 것은 아니었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가 도와준다고 해도, 아무리 효과가 좋은 약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내 안의 일정부분은 항상 잘못되어 있을 테고 그것은 결코 바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태어난 것이 내 잘못은 아니지만 싫건 좋건 어쨌거나 이 건 내 모습인 것이다. 에드 아저씨는 말씀하셨다. “너는 네 상황을 직시하고 잘 대처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네 문제가 네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 가능한 한 최소한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노력해야하는 거야.” 아저씨 말이 옳았다.

내 친구 찰리 역시 특수교육센터를 떠나게 되었다. 찰리는 한 쪽 팔에 충분한 힘을 키웠기 때문에 그 끝에 플라스틱 팔을 붙일 수 있게 되었다. 이제 한 쪽 끝에 달린 진짜 손가락처럼 생긴 부드러운 플라스틱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에드 아저씨로부터 내가 센터를 떠날 때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나는 찰리를 찾아갔다. 찰리는 새로 생긴 손으로 내 손을 잡고 악수를 해주었다. 나는 그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찰리에게는 정말 잘 된 일이었다.

“이것 좀 만져봐, 조이야.” 플라스틱 손가락 하나를 움직여 내 손바닥을 간질이며 찰리가 말했다.

“대단하구나.” 내가 말했다. “다른 쪽 팔은 언제 갖게 되니?”

“몇 주 후에.” 찰리가 대답했다. “나중에 보여줄게.”

“피그자라는 성은 희귀해서 전화번호부에 딱 하나밖에 없어.” 내가 말했다.

“나한테 전화해. 우리 집에 와서 파블로랑 같이 놀자.”

찰리는 손가락으로 전화 거는 시늉을 해 보이며 말했다. “응, 전화 할게.”

마침내 엄마와 에드 아저씨는 교장선생님과 맥시 선생님을 만나셨다. 두 분 선생님은 내가 규칙을 잘 지키고 약을 꾸준히 먹는다고 약속한다면 학교로 돌아와도 좋다고 하셨다. 선생님들과의 면담에서 돌아와서 엄마는 내가 앞으로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하셨다. 그러자 나는 “전 규칙을 무척 좋아해요.” 라고 말했다. 그건 사실이었다. 심지어 나는 파블로를 위해서 강아지 규칙까지 만들었다. 파블로가 아무거나 씹어대고 마룻바닥에다 자꾸 응가를 해서 파블로를 강아지 특수교육센터에 보내서 강아지 장난감만 씹고, 마당에서 일을 보는 법을 배우도록 해야했기 때문이다.

특수교육센터 버스가 더 이상 우리 집 앞에 멈춰 서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로 돌아가는 첫 날 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나는 학교로 씩씩하게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현관을 지나 교장실로 들어갔다.

“교장선생님 계세요?” 나는 그 곳에서 사무 보는 분에게 물었다.

“다시 돌아왔구나. 오랜만이네.” 그 분이 말했다. “여행 갔었니?”

“아뇨.” 내가 대답했다. “저 기억하세요? 전에 마리아의 코끝을 잘라서 특수교육센터로 보내졌었어요. 지금은 패치를 붙이고 있습니다. 한 번 볼래요?”

“지금 교장선생님은 무척 바쁘신 것 같구나, 조이야.” 그 분은 손을 뺐어 내 셔츠를 다시 내리며 말했다. “뭐 부탁할거 있니?”

“큰 스피커에다 대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암송하고 싶어요.” 내가 말했다.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해보고 싶어요.”

“음, 잠깐 거기 앉아 있으렴.” 그 분이 말했다. “내가 알아봐 주마.”

내가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 양호선생님이 들리셨다. 나는 눈, 귀, 입으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사팔뜨기 할로윈 호박처럼 선생님을 보고 싱긋 웃었다. 그러자 선생님도 활짝 웃어주셨다.

“첫 날부터 말썽부려서 여기 와 있는 건 아니겠지?” 허리에 손을 얹으시며 선생님이 말했다.

“아니에요.” 웃음을 터뜨리며 내가 말했다. “이제 저는 새롭고 더 나아진 조이라고요.” 내가 셔츠를 올렸다. “이 패치 보이죠?” 내가 말했다. “이제 이것 좀 보세요.” 나는 두 손을 무릎에 올려놓고는 문에 걸려진 낡은 신발을 모자처럼 뒤집어 쓴 광대그림을 응시했다. 그리고 머리를 조금도 옆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심지어 눈도 깜박이지 않았다.

잠시 후에 선생님이 물었다. “흠, 나더러 뭘 보라는 거지?”

“이거 말이에요.” 내가 말했다.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 거요. 모르시겠어요? 난 훨씬 나아졌다구요.”

선생님이 미소지었다. “정말 대단하구나.” 선생님이 말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아졌으니 앞으로 널 볼일이 없겠는걸.”

“오, 아니에요. 또 보게 될거예요.” 내가 말했다. “제가 선생님 만나러 갈게요. 그렇지만 열쇠 토하러는 아니고요.”

“그래.” 선생님이 대답했다.

사무보는 분이 자리에 돌아와서는 말했다. “그래, 교장선생님께서 오늘 아침 국기에 대한 맹세는 네가 암송해도 좋다고 하셨다.”

“잘하렴, 조이야.” 양호선생님이 응원해주셨다. 그리고는 큰 패종 시계를 올려보고는 말했다. “가야겠구나. 약 정리를 해야겠어.”

“아이들에게 패치를 주세요.” 내가 말했다. “알약보다 훨씬 효과가 좋아요.”

“그래, 그러도록 할게.” 선생님은 서둘러 복도로 나가셨다.

조금 후에 나는 마이크 앞에 서서 손을 가슴에 얹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암송하고 있었다. “나는 국기 앞에 충성을 맹세하며...” 암송을 마쳤을 때 나는 아주 큰 소리로 외쳤다. “내 이름은 조이 피그자고, 난 다시 돌아왔어!” 나는 이제 모두의 코가 안전하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러나 교장선생님이 마이크를 내 손에서 뉘아챈 다음 볼륨을 꺼버리셨다. 그렇지만 “난 다시 돌아왔어! 돌아왔어! 돌아왔어!”라는 말은 거인의 발자국 소리처럼 복도로 여전히 메아리쳐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나는 그 소리가 무척 좋았다.

“고맙습니다, 교장선생님.” 교장선생님이 나를 꾸짖듯 내려다보시자 내가 말했다.

“학교에 돌아온 첫 날부터 지각하기 전에”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어서 하워드 선생님 반으로 가거라.”

교장선생님과 에드 아저씨가 내린 결정은 일주일 동안은 학교 특수반에서 수업을 받아서 내가 나와 다른 학생들에게 위협하지 않는 것을 증명해 보이면 그 후에 맥시 선생님 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에드 아저씨는 다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자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다쳐서 집에 오는 일이 결코 없을 것

이라는 확신을 갖기를 원한다고 말하셨다. “항상 큰 그림을 생각하렴.” 아저씨는 내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또한 어떻게 느낄지를 생각해야하는 거야.” 나는 아저씨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마리아를 다치게 한 다음 마리아의 아빠가 얼마나 화를 냈는지 내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이었다. 만약 내 코끝이 잘렸더라면 우리 엄마 역시 마리아 아빠와 같은 심정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하워드 선생님 반에서 일주일을 보내는 것도 내겐 괜찮았다. 게다가 그 반에는 친구들도 있었다. 내가 교실에 들어서자, 하워드 선생님은 아주 기쁘게 나를 반겨주셨다.

“환영한다.” 선생님은 무릎을 굽혀 나를 안아주셨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참 잘하더구나.”

엄마들과 특수반 도우미들, 그리고 특수반 아이들이 모두 거기에 그대로 있었다. 모두들 몸을 돌려 나를 쳐다보며 각자 뭐라고 인사를 해주었다. 잘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다들 다시 보게 되어서 기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이제, 여기 있는 것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 하워드 선생님이 나에게 말했다. “얼마 안 있어서 널 윗 층의 맥시 선생님 반으로 보내 줄게.”

“알고 있어요.” 내가 미소지으며 말했다. “난 다시 한번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 넌 운이 좋은 아이야.” 선생님이 말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하단다.” 선생님은 나를 자리로 안내해주셨다. 맥시 선생님 반과는 달리 규칙을 적어놓은 목록이 책상에 붙어있지 않아 참 좋았다. 나는 이제 규칙들을 전부 알고 있었다. 전에도 몰랐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때는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

을 자꾸 까먹었던 것이다.

해럴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 애의 생일 때 내가 빌어줬던 소원은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았다. 만약 소원이 이루어졌다면 해럴드는 휠체어와 목에 착용한 교정기를 벗어 던지고 나와 함께 축구를 하며 뛰어 놀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워드 선생님은 다른 아이들을 돕느라 바쁘셔서 나는 그냥 해럴드의 엄마에게 다가갔다. “저 돌아왔어요.” 내가 말했다. 나는 셔츠를 걷어올려서 패치를 보여드렸다. “새 약이에요.”

해럴드 엄마는 무척 친절하셨다. 내게 팔을 둘러 꼭 껴안아 주셨다. “넌 내게 희망을 주었다, 조이야.” 아줌마가 말했다. “네가 해냈으니, 혹시 아니? 우리 해럴드도 언젠가는 해 낼 수 있을 거야.”

해럴드 엄마가 한 말은 내게 정말 큰 의미가 있었다. 이제까지 누가 나를 가리키며 내가 그에게 언젠가 자신의 아이도 나처럼 될 수 있는 희망을 심어주었다고 말하리라는 생각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줌마가 그 말을 했을 때, 나는 아주 똑바로 서서 엄마가 가르쳐 준대로 아줌마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물었다. “진심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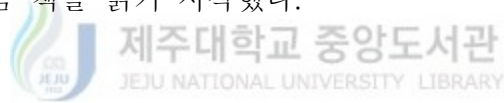
“생일 파티 이후에,” 아줌마가 말했다. “네가 해럴드 대신 촛불을 꺼준 다음부터, 해럴드는 널 줄곧 찾았었어.”

나는 해럴드를 쳐다보았다. 여전히 입밖으로 침방울을 내뿜고 있었다. 전보다 더 나아진 것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내가 더 나아졌기 때문에 해럴드도 더 나아지기를 바랐다.

그러자 아줌마는 이제까지 가족 아닌 사람이 내게 해준 말 중에서 가장 멋진 말을 해주셨다. “있잖니, 조이야. 새 약이 네가 침착해지는 데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넌 새 약을 붙이기 전부터 줄

곧 착한 아이였단다. 넌 천성적으로 맘이 고운 아이야. 네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다. 넌 심성이 참 착한 아이란다.”

아줌마가 그 말을 한 순간, 마치 내 생일 케이크 위에 모든 촛불을 아줌마가 불어서 꺼준 듯한 느낌이 들었다. “고맙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리고는 몸을 반쯤 돌려서 어깨에 눈을 닦았다. 나는 마치 무언가 목적이 있는 사람처럼 몇 걸음 건다가 멈춰 서서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내어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문질러 닦았다. 그 안에는 침착하게 서있는 내 모습이 담겨있었다. ‘난 나쁜 아이가 아니야.’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는 책장에서 책 한 권을 꺼내들었다. ‘큰침착의자’에는 아무도 앉아있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그 위로 올라가 앉은 다음 책을 읽기 시작했다.



작가 소개

잭 갠토스는 뉴베리 상 수상작인 「조이가 자제력을 잃었어요」를 쓴 유명한 작가이다. 또한 그는 라튼 랠프에 관한 인기 있는 그림책과 「잭의 검은 책」의 작가이기도 하다. 「잭의 검은 책」은 작가의 또 다른 자아라 할 수 있는 잭 헨리가 주인공인 반 자서전적인 이야기 모음집 중 최신작이다. 그는 현재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에서 아내와 딸과 함께 살고 있다.



참고문헌

1. 국내서

- 김재현. 「번역의 원리와 실제」. 서울: 한신문화사, 1995.
- 김효중. 「번역학」. 서울: 민음사, 1998.
- 안정호. 「영어 길들이기(번역편)」. 서울: 현암사, 1997.
- 유영난. 「번역이란 무엇인가」. 서울: 태학사, 1991.
- 이근달. 「영문 번역의 노하우」. 서울: 시사영어사, 1998.
- 이기문. 「번역의 길잡이」. 서울: 백산출판사, 2001.
- 지정숙. 「번역의 기초이론」. 서울: 도서출판 한국번역연구원, 1997.
- 최정화. 「최정화 교수의 통역 번역 노하우」. 서울: 넥서스, 2001.

2. 번역서

- Bassnett, Susan 저 · 엄재호 역: 「번역학 개론」. 서울: 인간사랑, 1999.
- Koller, Werner 저 · 박용삼 역: 「번역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7.
- Lederer, Marianne 저 · 전성기 역: 「번역의 오늘: 해석이론」.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1.
- 마쓰모토 야스히로 · 마쓰모토 아이린 저 · 김정우 역: 「영어번역을 하려면 꼭 알아야 할 90가지 핵심 포인트」. 서울: 창문사, 1997.

3. 국외서

Baker, Mona. *In Other Words*. New York: Routledge, 1992.

Bassnett, Susan. and Lefevere, Andre. *Constructing Cultures*.
Bristol: Multilingual Matters Ltd, 1998.

Hatim, Basil and Mason, Ian. *The Translator as Communicato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7.

Hickey, Leo, ed. *The Pragmatics of Translation*.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1998.

Karttunen, Frances. *Between Worlds*.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Press, 1994.

Katan, David. *Translating Cultures*.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1999.

Robinson, Douglas. *Becoming a Translator: an accelerated
cours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8.

Schaffner, Christina, ed. *Translation and Quality*.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1998.

Vandaele, Jeroen. *Translating and the (Re)Location of Meaning*.
Leuven:CETRA, 1999.

Venuti, Lawrence.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7.